2021.5.

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산업동향&이슈 I 제17호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CONTENTS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추이와 시사점
최근 민간소비의 특징과 전망
중점전략기술의 기술수준 국제 비교와 시사점
코로나19의 확산이 인구 이동성에 미친 영향

경제·산업이슈 | 거시경제변수가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양적완화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5월호 통권 제17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3

Ⅰ. 경제동향 6
Ⅱ. 산업·고용동향 29
Ⅲ. 해외경제 동향 64

경제·산업현안 81

Ⅰ.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추이와 시사점 82
Ⅱ. 최근 민간소비의 특징과 전망 88
Ⅲ. 중점전략기술의 기술수준 국제 비교와 시사점 95
Ⅳ. 코로나19의 확산이 인구 이동성에 미친 영향 102

경제·산업이슈 111

Ⅰ. 거시경제변수가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양적완화정책을 중심으로 11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ART 1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

Ⅰ. 경제동향 ····· 6
1. 생산 ····· 6
2. 소비 ····· 8
3. 투자 ····· 10
4. 대외거래 ····· 15
5. 소비자물가 ····· 17
6. 금융시장 ····· 20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 26

Ⅱ. 산업·고용동향 ····· 29
1. 제조업 ····· 29
2. 서비스업 ····· 42
3. 에너지 및 원자재 ····· 47
4. 고용 ····· 51
5. 인구 ····· 57
6. 부동산 ····· 59

Ⅲ. 해외경제 동향 ····· 64
1. 미국 ····· 64
2. 중국 ····· 68
3. 유로지역 ····· 70
4. 일본 ····· 74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 76
[주요 경제정책] ····· 79

주요 거시·산업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2월	3월	4월
전산업생산	1.0	-1.2	1.4 (-1.8)	-3.7 (-3.0)	-0.9 (2.8)	-1.5 (1.6)	2.7 (1.7)	0.4 (2.1)	5.8 (0.8)	
광공업생산	0.4	-0.4	4.6 (-0.6)	-5.9 (-6.5)	0.2 (6.0)	0.0 (2.9)	4.5 (3.5)	0.9 (4.4)	4.7 (-0.8)	
서비스업생산	1.4	-2.0	-1.0 (-2.9)	-3.4 (-1.3)	-1.7 (2.0)	-2.0 (0.9)	2.2 (0.6)	0.7 (1.1)	7.8 (1.2)	
소매판매액	2.4	-0.2	-2.9 (-5.7)	2.0 (5.9)	1.6 (-1.1)	-1.2 (0.9)	6.3 (1.7)	8.3 (-0.8)	10.9 (2.3)	
설비투자지수	-5.7	6.0	8.1 (-1.0)	5.8 (2.7)	7.7 (2.2)	2.8 (0.8)	11.8 (6.8)	7.0 (-2.2)	9.3 (0.0)	
건설기성액	-2.3	-4.1	-0.8 (-0.7)	-5.5 (-2.9)	-4.2 (-2.8)	-5.3 (2.5)	-7.3 (-3.7)	-8.5 (6.6)	-5.7 (0.4)	
수출(통관)	-10.4	-5.5	-1.9	-20.3	-3.4	4.2	12.5	9.2	16.5	41.1
수입(통관)	-6.0	-7.1	-1.9	-15.8	-8.7	-1.7	12.0	14.1	18.8	33.9
경상수지 (억달러)	596.8	752.8	129.3	61.1	240.0	322.4	228.2	79.4	78.2	
실업률	3.8	4.0	4.2	4.4	3.6	3.7	5.0	4.9	4.3	4.0
취업자수 (천명)	301	-218	288	-407	-314	-441	-380	-473	314	652
소비자물가	0.4	0.5	1.2	-0.1	0.6	0.4	1.1	1.1	1.5	2.3
원/달러환율	1,166	1,180	1,195	1,220	1,188	1,116	1.115	1,112	1,131	1,118
국고채금리 (3년)	1.53	0.99	1.23	0.92	0.85	0.95	1.04	1.00	1.13	1.14

주: 1. ( )는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동향

경제분석국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유지되며 그간 부진했던 소비, 서비스생산, 고용이 개선

- **4월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강화로 대외수입수요가 확대되고 전년도 낮은 기저효과('20년 4월 -25.6%)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1.1% 큰 폭 증가**
  - 4월 수출액 512억달러는 역대 4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15대 주력 품목이 모두 증가
  - 수입 또한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33.9% 증가
- **4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5.2만명 증가하며 전월(31.4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
  -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3월(26.3만명)과 4월(50.7만명) 중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
- **3월 소매판매는 2월 하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완화 지속으로 외부활동이 활발해지며 준내구재판매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2.3% 증가**
  - 소비심리개선세가 지속되며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0.5)에 이어 기준선(100)을 2개월 연속 상회하며 102.2를 나타냄
- **3월 서비스업생산은 숙박및음식점업, 운수및창고 등 업종에서 개선세를 보이는 등 전월대비 1.2% 증가**

4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1%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2017년 8월(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13.4%) 오르고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집세와 외식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

4월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국고채금리와 주가는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주식배당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에 따른 달러화 약세에 따라 전월대비 13원 하락한 월평균 1,118원을 시현**
- **국고채(3년만기) 금리는 대내외 경제성장률 개선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01%p 소폭 상승한 1.14%를 기록**
- **주가지수(KOSPI)는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경기개선세 등으로 전월말(3,061)대비 87pt 상승한 3,148로 마감**

Ⅰ.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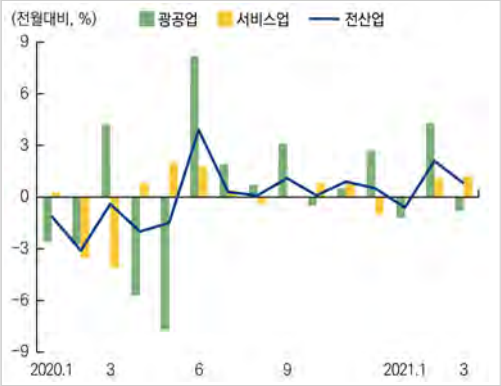
1. 생산

3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이 개선되면서 전월대비 증가

■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줄었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늘면서 전월대비 0.8% 증가(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4.3%)과 전기장비(4.3%)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4.8%), 비금속광물(-7.0%) 등에서 줄면서 전월대비 0.8% 감소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및보험(-3.1%)에서 줄었으나, 운수및창고(5.8%), 숙박및음식점업(8.1%)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2% 증가(전년동월대비 7.8% 증가)

[그림 1]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주요 서비스산업의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감소, 제조업 재고율은 재고 감소에 따라 전월에 비해 하락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2.4%p 하락한 75.0%를 나타냄**

- 제조업 평균가동률(%): ('21.1월)73.2→(2월)77.4→(3월)75.0

■ **제조업 출하지수는 가죽·가방및신발(-7.9%)과 비금속광물제품(-5.2%)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6% 하락하였으며, 재고지수는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10.0%), 가구(-7.9%)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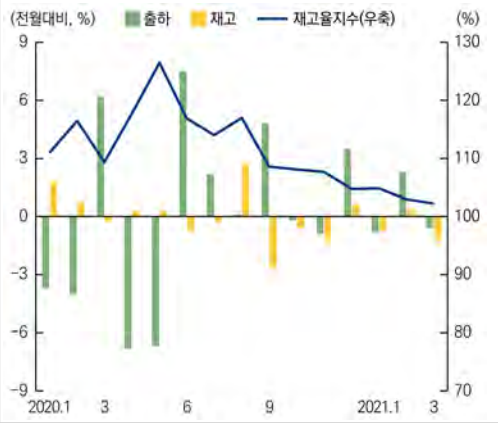
-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은 출하에 비해 재고의 감소폭이 더 크면서 전월(102.9%)에 비해 하락한 102.2%를 나타냄
- 재고/출하 비율(%): ('21.1월)104.9→(2월)102.9→(3월)102.2

※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지수) =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그림 3]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4] 제조업 출하 및 재고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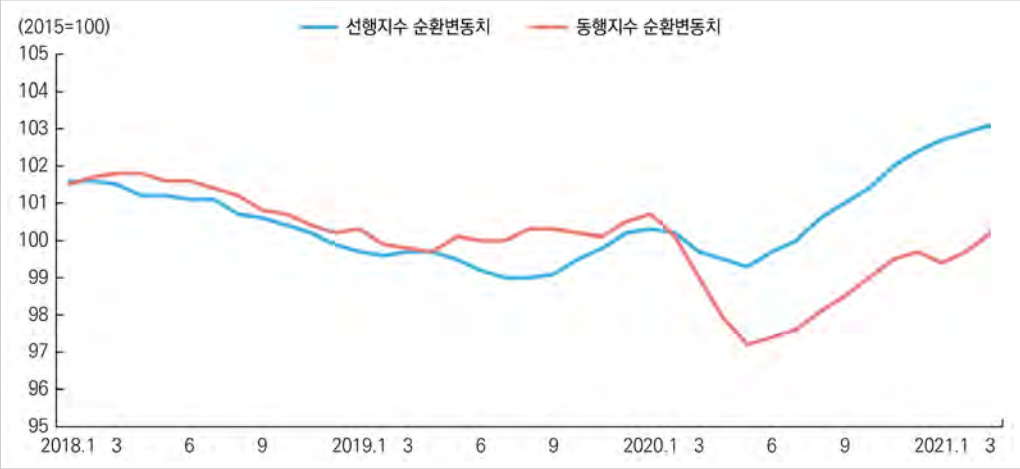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모두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이 감소했으나, 소매판매액지수와 수입액 등이 증가하여 전월(99.7)에 비해 0.5p 상승한 100.2를 기록**

2020년 2월(100.1) 이후 13개월 만에 기준치인 100을 상회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이 감소했으나, 경제심리지수, 코스피 등이 증가하여 전월(102.9)에 비해 0.2p 상승한 103.1을 나타냄**

[그림 5]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2.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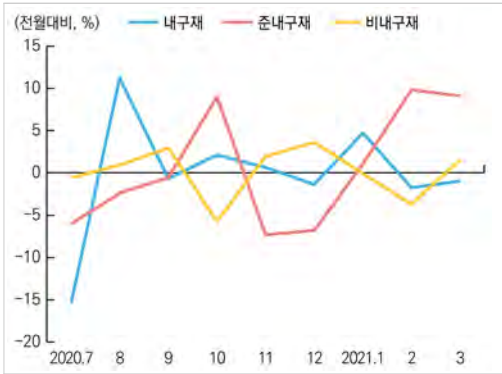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7개월만에 최대 폭 증가

- 3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3% 증가하여 전월 감소(-0.8%)에서 증가 전환
- 전년동기대비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매판매의 급격한 위축이 반영되면서 10.9% 증가

[그림 6]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7]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3월 중 준내구재 판매는 온화한 날씨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1]로 외부활동이 증가하여 의복(9.6%), 신발 및 가방(16.9%), 오락·취미·경기용품(4.7%)의 판매가 모두 늘면서 전월대비 9.1% 증가**

- 준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1월)1.1→(2월)9.7→(3월)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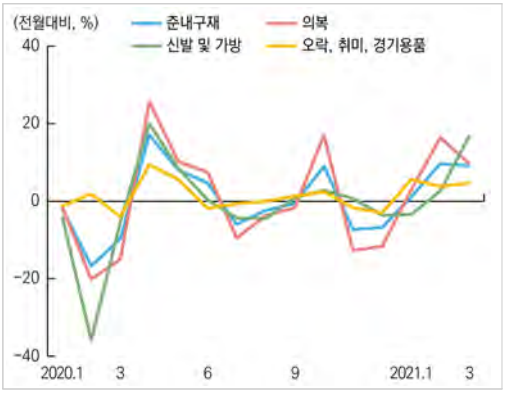
■ **내구재 판매는 신차효과가 지속되면서 승용차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통신기기 및 컴퓨터 판매가 줄면서 전월대비 1.0% 감소**

- 전년도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가전제품(전월대비 -5.6%)과 통신기기 및 컴퓨터(전월대비 -5.6%) 판매는 2개월 연속 감소
- 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1월)4.7→(2월)-1.8→(3월)-1.0

■ **비내구재 판매는 음식료품 판매가 소폭 증가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연료 판매가 늘면서 전월대비 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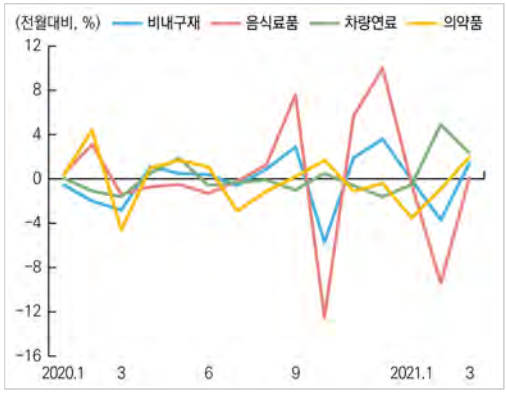
- 비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1월)-0.1→(2월)-3.7→(3월)1.5

[그림 8] 준내구재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9] 비내구재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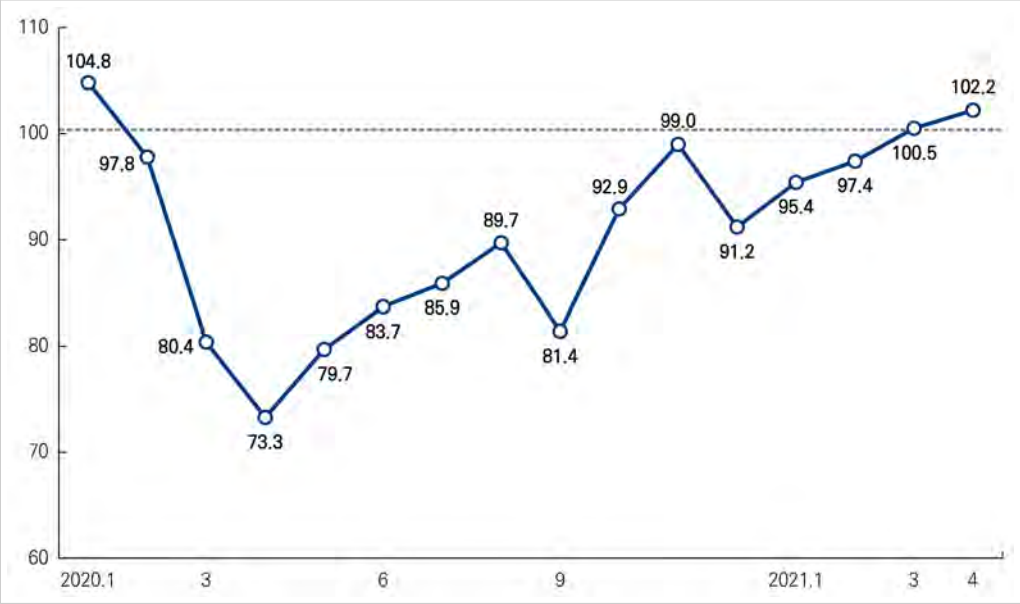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출 호조 및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전월보다 1.7p 상승한 102.2를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2020년 12월 7.8p 하락한 후 4개월 연속 상승
- 3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을 상회하였으며,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상승

1)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3.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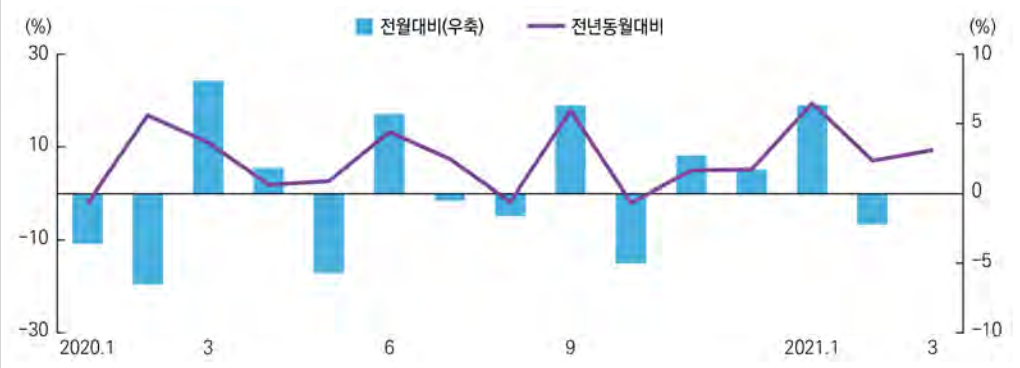
가.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기계류에서 소폭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 **3월 중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전월(10.4%)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0.5%)하였으나, 기계류에서 소폭 증가(0.1%)하며 전월대비 증감률은 0.0% 기록**

-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9%)에서 전월(-9.0%)보다 감소폭이 축소되고 기계류(13.5%)에서 전월(13.4%)과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하며 9.3% 증가

[그림 11]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투자는 정밀기기(-5.7%)와 기타기기(-4.7%)에서 전월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일반기계류(1.2%)와 전기 및 전자기기(2.4%)가 전월보다 증가하며 전월대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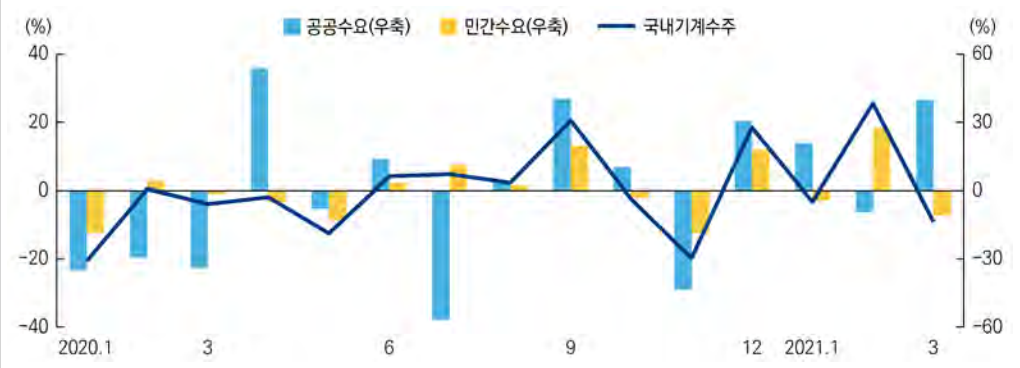
■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5.0%)에서 전월(3.7%)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타운송장비(-7.9%)가 전월(21.1%)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월대비 0.5% 감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내수출하지수는 전월대비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39.8%)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민간(-10.9%)부문의 수요 부진으로 전월(25.5%)의 증가에서 9.1% 감소 전환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3.9% 감소하며 전월(6.3%)의 증가에서 감소 전환

[그림 12]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유지**

- 3월 중 기계류 수입액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75.7%)에서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제조용장비(51.6%)에서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6.5% 증가
- 3월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제외한 기계류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하며 전월(5.9%)대비 증가폭이 확대

■ **1분기 수출호조와 함께 4월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관련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상승**

-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 ('21년 2월) 93 → (3월) 96 → (4월) 99(수출기업 104, 내수기업 97)

[그림 13]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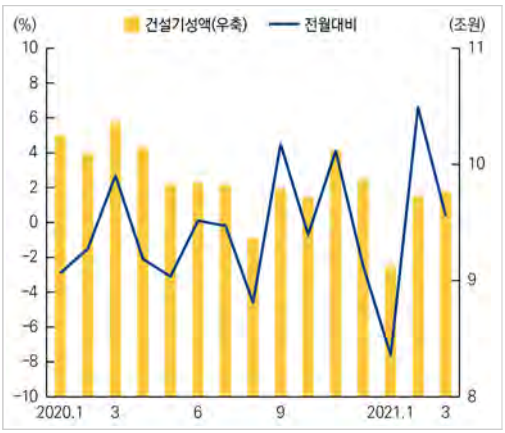
나.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토목부문 증가세가 지속되고 공공부문이 확대된 영향으로 전월대비 증가

■ **3월 중 건설기성액(불변, 계절조정)은 건축(-1.1%)에서 줄었으나 토목(4.2%)이 늘면서 전월대비 0.4% 증가(전년동월대비 5.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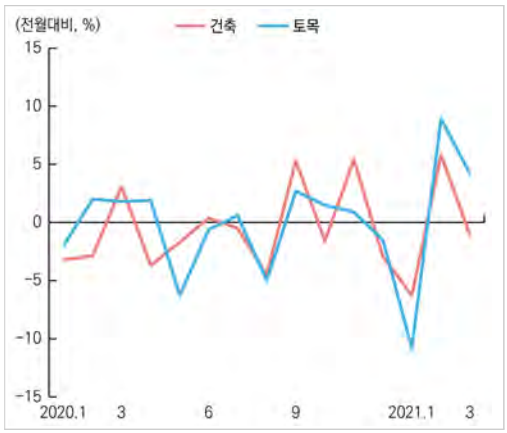
- 발주자별(경상, 계절조정)로는 민간부문(-3.1%)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공공부문(19.0%)이 크게 증가

[그림 14] 건설기성액과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5] 부문별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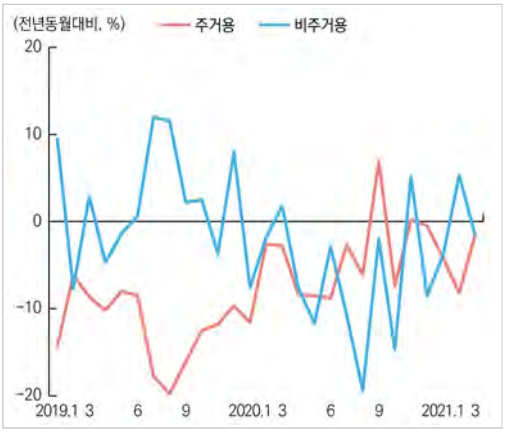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경상기준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했고, 세부공종별로 건축부문은 주거용(-1.5%)과 비주거용(-1.6%)이 모두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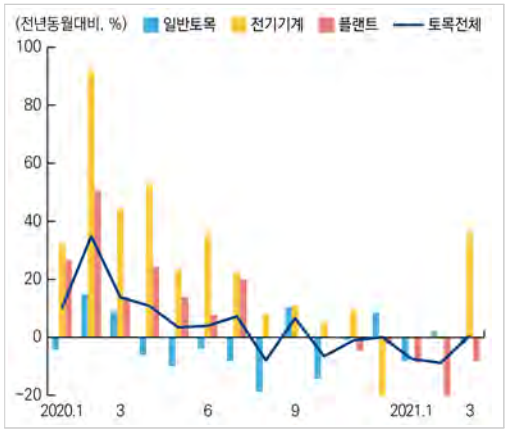
- 토목부문은 일반토목(-2.2%), 플랜트(-8.1%)에서 줄었으나 전기기계(35.6%)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그림 16] 건축부문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7] 토목부문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투자의 선행지표[2]인 건설수주액 및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 건축과 비주거용 건축이 모두 늘면서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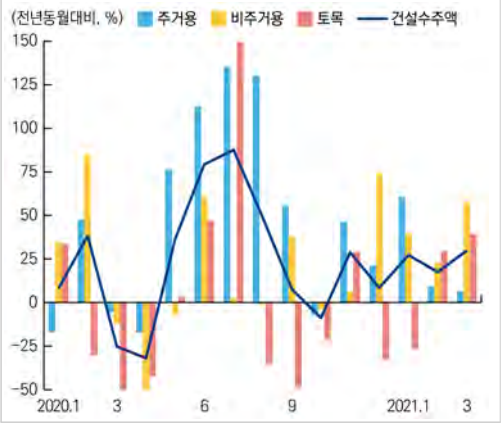
■ **3월 중 건설수주액(경상)은 건축(27.7%)과 토목(39.3%)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9.8% 증가 (5개월 연속 증가)**

- 세부 공종별로는 주거용 건축이 전년동월대비 6.4% 증가
- 비주거용 건축은 사무실및점포(11.4%)와 공장및창고(217.2%)에서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57.7% 증가
- 토목부문은 철도및궤도(60.5%), 기계설치(266.7%)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9.3% 증가

■ **3월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38.7%)과 비주거용(20.2%)에서 모두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공업용(-12.7%)은 감소하였으나 상업용(22.0%)에서 증가

[그림 18] 공종별 건설수주액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9] 건축허가면적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2) 건축허가, 건설수주, 건축착공 등의 통계는 건설공사의 과정 중 각각 허가, 계약, 착공 단계에서 집계·발표되는 통계로서, 건설투자(건설기성; 건설공사 중 착공~준공 단계에서 추계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4. 대외거래

가. 수출

수출은 저조했던 지난해의 기저효과와 주요국의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15대 주력품목이 모두 호조를 보이며 6개월 연속 증가세

■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1.1% 늘어난 511.9억 달러로 2011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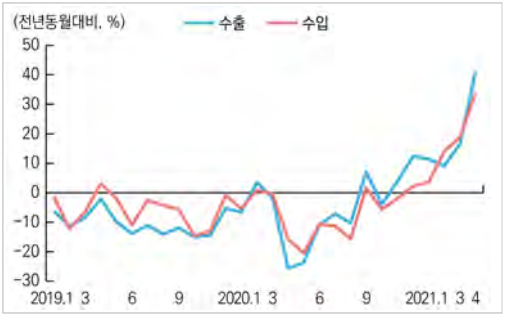
-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25.6%)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를 상회하는 회복세를 나타냄
-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수출액(21.3억 달러)도 전년동월대비 29.4% 늘어 7개월 연속 증가세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3.9%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

- 유가상승으로 원유수입이 급증(79.2%) 하였으며, 기업의 생산과 투자활동이 회복되면서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33.8%, 30.7% 증가

■ **무역수지는 3.9억 달러로 12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으며, 교역액은 1,020억 달러로 역대 3번째[3]로 1,000억 달러를 돌파**

[그림 20]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1]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9대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4대 시장(중국·미국·EU·아세안)으로의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 유지**

- 미국으로의 수출은 백신보급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자동차, 가전 등 완제품 수요가 늘면서 43.0% 증가(8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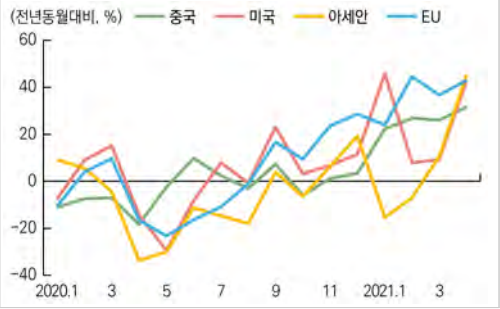
3) 2021년 3월(1,034억 달러), 2018년 10월(1,033억 달러)에 이어 3번째

- EU지역으로의 수출은 해운물류산업 호조로 유럽향 계약 선박의 인도가 이루어지면서 선박 수출이 증가하고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따른 차부품 수출 등이 증가하면서 43.0% 증가(8개월 연속 증가)
-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내 소비 회복 및 공장가동률 정상화 등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의 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31.7% 증가(6개월 연속 증가)
- 인도로의 수출은 인도정부의 화학산업 투자유치 확대,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등으로 석유화학과 철강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가전 수출이 늘면서 154.5% 증가
- 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수입차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일반기계 수출이 늘면서 71.9% 증가
-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의 선전으로 4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23.9%를 기록
- 중동으로의 수출 증가율도 컴퓨터, 섬유, 무선통신기기 수요 증가로 13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4.1%를 기록

[그림 22] 2021년 4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3]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규모 확대와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 축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폭이 확대

- **3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59.4억 달러)대비 크게 증가한 78.2억 달러 기록**
- **상품수지는 전년동월대비 수입이 19.3% 증가하고 수출이 18.5% 증가하며 전년동월(69.6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79.2억 달러를 기록**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가 전년동월 적자(-0.9억 달러)에서 흑자(6.9억 달러)로 전환한 영향으로 전년동월(-16.5억 달러)대비 적자폭(-9.0억 달러)이 축소**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 증가로 전년동월(8.5억 달러)대비 흑자폭이 늘어난 12.8억 달러 기록

[그림 24] 항목별 경상수지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2021년 1분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크게 확대

■ 2021년 1분기 경상수지 누적 흑자액은 전년동기(129.3억 달러)대비 76.5% 증가한 228.2억 달러 기록

- 2021년 1분기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기(156.3억 달러)대비 25.6% 증가한 196.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수지는 전년동기(-60.8억 달러)대비 적자폭이 크게 축소된 14.0억 달러 적자를 기록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낮은 물가의 기저효과, 농축산물 가격 강세,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2017년 8월(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4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며 전월(1.5%) 보다 상승폭 확대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에 힘입어 전월(0.6%)보다 높은 1.1%를 기록

[그림 25]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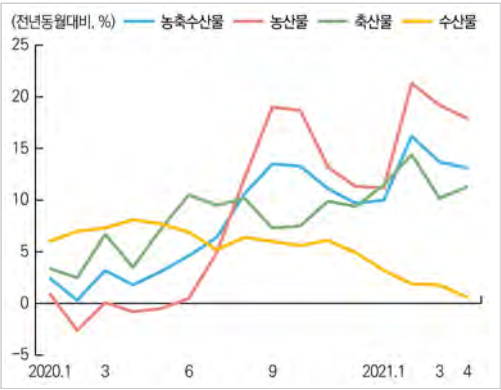
[그림 26]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13.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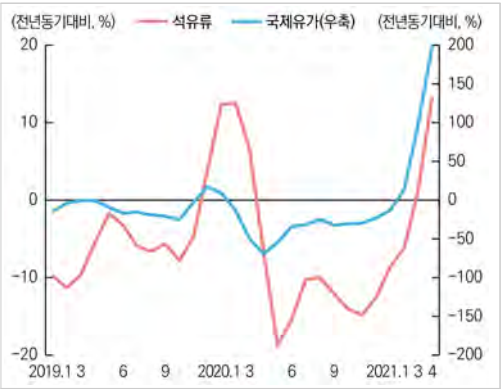
- 작황부진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채소류와 과실류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는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달걀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
- 4월 중 농산물 물가는 채소류와 과실류 물가가 각각 19.3%, 19.0% 오르면서 전년동월대비 17.9% 상승
- 4월 축산물 물가는 닭고기와 달걀 가격이 각각 8.3%와 36.9% 오르면서 전년동월대비 11.3% 상승
-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년동월대비 1.0%p를 기록

[그림 27]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Bloomberg

[그림 28]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Bloomberg

■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지난해 4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2.3% 상승**

- 국제유가가 전년동월대비 199.1% 오르면서[4] 석유제품 가격은 13.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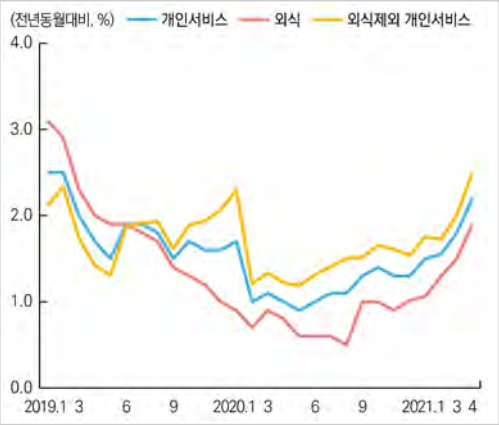
  * 국제유가[5](달러/배럴): ('20.4월)21.0→('21.4월)63.0

- 가공식품 물가는 3월 출고가 인상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 이에 따라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년동월대비 0.8%p를 기록(전월에 비해 0.6%p 상승)

■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전월세 등 집세 물가와 외식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보다 0.6%p 높은 1.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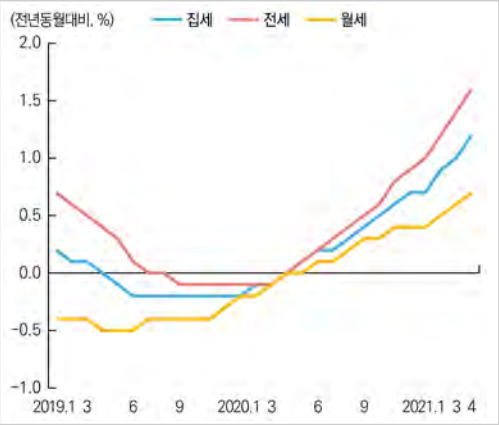
- 4월 전월세 등 집세 물가는 1.2% 상승하여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4월 중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수요 증대,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외식물가가 1.9% 상승하였고, 외식제외 소비자물가도 2.5% 오르면서 전월에 비해 상승폭 확대(3월 1.8% →4월 2.2%)
- 공공서비스 물가는 무상교육 추가시행 효과가 지속되고 있으나, 하수도료와 국제항공료의 오름폭이 커지면서 하락폭 축소(3월 -2.0% →4월 -1.0%)

[그림 29]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0] 집세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4) 4월 중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완화 유지,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등으로 3개 유종 평균 배럴당 63.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하는 모습

5) 두바이, 브렌트, WTI 3개 유종 평균(자료: Bloomberg)

6.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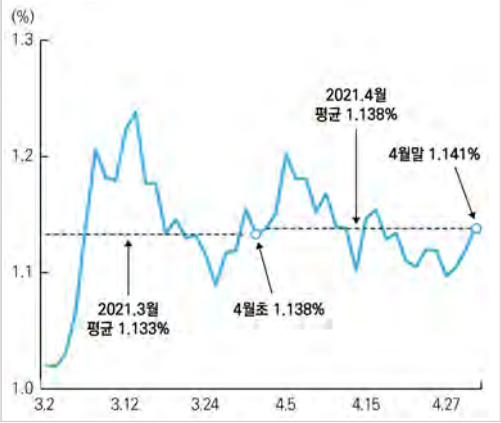
가. 금리

국고채금리는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성장률 개선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 **2021년 4월 중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월평균 1.14%(전월대비 +0.01%p)로 소폭 상승하고 10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2.0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 국내경제가 1/4분기 중 전분기대비 1.6% 성장하여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고, 미국경제도 동기간 중 6.4%(연율) 성장하는 등 국내외 경제가 완연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시장금리는 비교적 안정
- 이미 시장금리가 세계경제의 개선을 반영하여 10년 만기채의 경우 8개월 간 상승세를 보인 데에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 10년과 3년 만기채 간 스프레드도 축소되어 금리 안정을 반영
- 3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21.2월)1.00→(3월)1.13→(4월)→1.14
- 10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21.2월)1.85→(3월)2.04→(4월)→2.04
- 국고채스프레드(10년 만기-3년 만기,%p):('21.2월)0.850→(3월)0.907→(4월)→0.903

[그림 31]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2] 3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 간 스프레드 추이(월별)

자료: 한국은행,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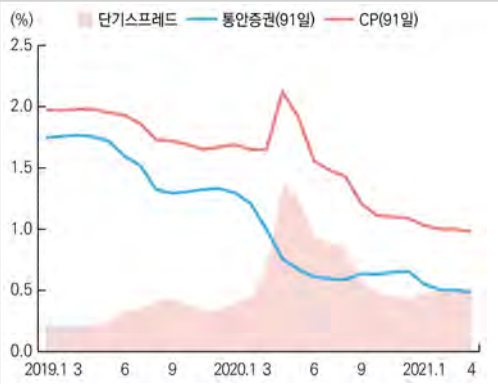
■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IT·가전업종 대기업의 실적 호조 및 가계대출 억제조치에 따른 민간자금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단기금리는 하락세를 지속**

- 한국은행은 상반기 중 5~7조원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한다는 방침(2.26일 발표)에 따라 4.28일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자금시장에 공급
- 통안증권금리(91일물, 월평균, %):('21.2월)0.51→(3월)0.50→(4월)0.49
- CP금리(91일물, 월평균, %):('21.2월)1.00→(3월)1.00→(4월)0.98

[그림 33]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증감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34] 단기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21년 4월 회사채 금리는 전월대비 하락한 가운데 2021년 3월 기업대출 금리는 상승

■ **2021년 4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 4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말 대비 11bp 하락한 1.98% 나타냈으며 회사채 3년물(BBB-) 금리도 11bp 하락한 8.35%를 기록
- 이에 4월 회사채(3년,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간 신용스프레드는 전월과 동일한 637bp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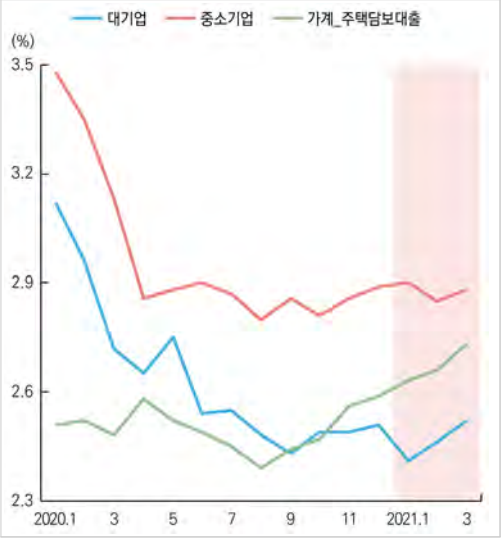
■ **2021년 3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중소기업 대비 크게 나타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금리차가 축소**

- 3월 기준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6bp 상승한 2.52%,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대비 3bp 상승한 2.88%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금리차가 전월 39bp에서 36bp로 축소
- 한편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9년 8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전월대비 7bp 상승한 2.73%를 기록

[그림 35]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36]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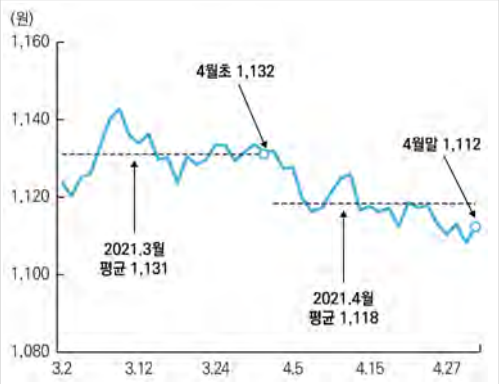
나. 환율

원/달러 환율은 삼성전자 등의 배당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미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하락

■ **2021년 4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18원으로 전월(1,131원)에 비해 13원(1.2%) 하락하여 4개월 만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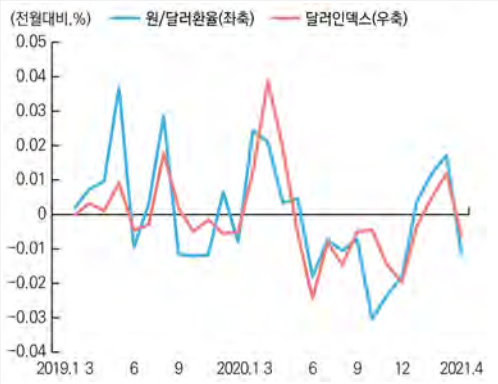
- 경기부양책(1.9조 달러)에 이어 인프라투자(2.3조 달러) 지출을 추진한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이 알려졌음에도 미국 시장금리가 소폭 상승(10년 만기 미국채금리 3월 1.61%→1.64%)에 그치자 미국 달러화가 3개월 만에 약세로 전환
- 미국 금리의 안정은 물가 안정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의 기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외 투자를 자극하여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 원/달러 환율(월평균):('21.2월)1,112→(3월)1,131→(4월)1,118
- 달러인덱스(월평균):('21.2월)112.3→(3월)113.6→(4월)112.9

[그림 37] 원/달러 환율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8]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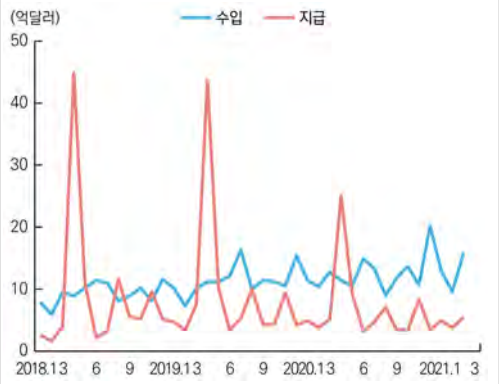


자료: Fed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투자는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8.9조원이 유입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수급은 양호**

- 삼성전자(16일, 약 13조원)을 비롯하여 국내기업의 계절적인 배당자금 유출이 있었으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6%로 시장기대를 넘는 호조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외국인국내증권순매수(조원): ('21.2월)5.7→(3월)5.6→(4월)8.9
- 경상수지(억달러): ('21.1월)70.6→(2월)79.4→(3월)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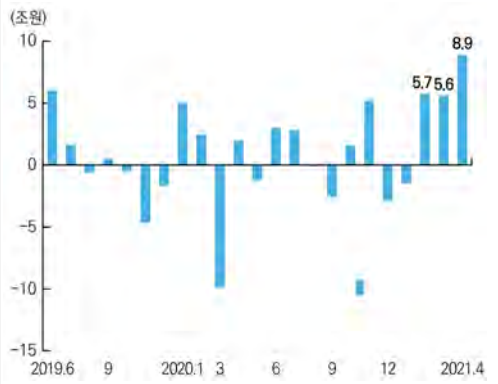
[그림 39] 증권투자소득의 수입과 지급



주: 투자소득수지(경상수지/본원소득수지의 하부 항목)의 이자 및 배당금 수입과 지급

자료: 한국은행

[그림 40]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추이



주: 주식순매수와 채권순투자의 합

자료: 금융감독원

다. 주가

2021년 4월 우리나라와 글로벌 주가는 확장적 통화정책, 경제 정상화 기대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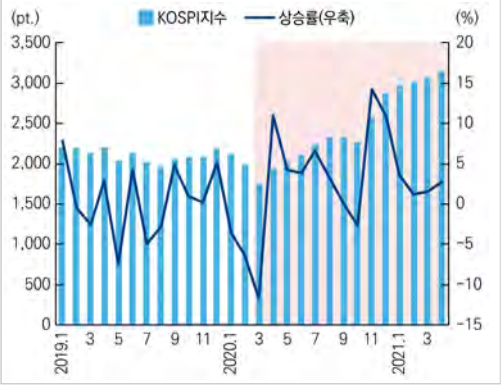
■ 2021년 4월 국내 주가는 개인투자자금 유입,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등으로 상승

- 4월말 KOSPI지수는 전월말(3,061) 대비 86pt 상승한 3,148을 기록
- 4월 주가 상승률은 2~3월의 1%대 상승에서 벗어나며 2.8% 기록

■ 개인 투자자는 2020년 1월 이후 2020년 11월을 제외하고 순매수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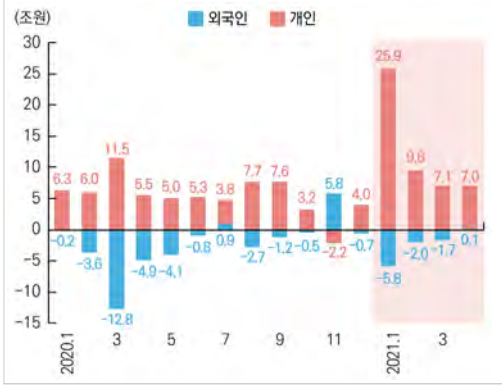
- 개인 투자자는 2020년 중 63.8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가운데 2021년 1~4월 중 49.6조원, 월평균 12.4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
-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2020년 중 24.8조원, 2021년 1~3월 중 9.6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나 2021년 4월 4개월만에 0.1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

[그림 41]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42]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4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경제재개, 재정부양에 따른 경기회복 가속화 기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 4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4.5% 신흥국 주가는 2.4% 상승
- 한편 4월말 기준 미국, 독일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2.7%, 0.8% 상승한 반면 일본 주가는 1.3% 하락

[그림 43]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44]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라. 신용위험

2021년 4월 우리나라 및 글로벌 신용위험 지표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하락

■ **2021년 4월 한국의 신용위험지표는 경제정상화 기대, 한국은행의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유지 등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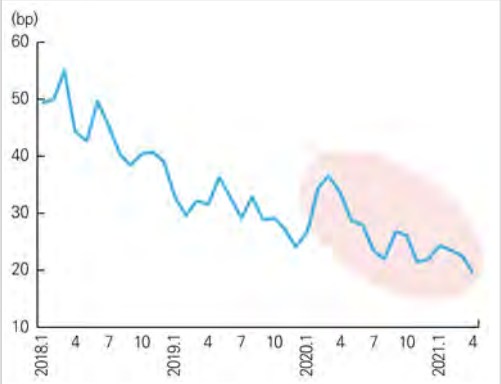
- 2021년 4월말 기준 한국의 CDS프리미엄[6]은 전월대비 2.8bp 하락한 19.7bp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7년 7월 이후 최저 수준

■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경제회복 기대 등으로 신흥국 채권가산금리[7]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가 하락**

- 2021년 4월말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전월대비 9.6bp 하락한 360.0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3.7bp 하락한 199.4bp를 기록

6)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7)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그림 45] 한국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6]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중앙정부 총수입은 법인세와 기금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임

■ 2021년 3월 총수입은 55.0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3조원 증가

■ 국세수입은 30.7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9조원 증가

- 법인세는 17.3조원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9조원 증가[8)]
- 소득세는 4.8조원으로, 2020년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대한 유예분 납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9)]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6조원 증가
- 기타세는 7.2조원으로, 2020년 정유업계 세정지원에 따른 교통세 유예분 납부와 증권거래대금 증가[10)]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3조원 증가

■ 세외수입은 2.0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1조원 증가

■ 기금수입은 22.4조원으로, 기여금수입 및 재산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2조원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은 14.9조원으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증가[11)]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5조원 증가

8) 코스피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5조원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
9) 주택매매거래량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3.3만호로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
10) 증권거래대금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131.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2.5% 증가
11)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은 3월 누계 기준으로 8.9조원임

[표 1] 중앙정부 총수입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3월	1~3월 누계	추경	3월	1~3월 누계	3월	1~3월 누계
총수입	470.7	478.8	41.8	119.5	483.0	55.0	152.1	13.3	32.6
국세수입	279.7	285.5	22.8	69.5	282.7	30.7	88.5	7.9	19.0
- 소득세	88.5	93.1	3.2	22.2	89.8	4.8	28.6	1.6	6.4
- 법인세	58.5	55.5	13.4	15.4	53.3	17.3	20.2	3.9	4.8
- 부가가치세	64.6	64.9	1.3	14.9	66.7	1.4	17.6	0.1	2.7
- 기타	68.1	72.0	4.9	17.0	72.9	7.2	22.1	2.3	5.1
세외수입	29.1	26.9	1.9	8.6	29.3	2.0	10.1	0.1	1.5
기금수입	161.9	166.2	17.1	41.4	171.0	22.4	53.5	5.2	12.1
-사회보장기여금1)	95.8	100.0	10.4	24.3	99.5	14.9	35.3	4.5	11.0
세입세출외	-	0.1	0.0	0.0	-	0.0	0.0	△0.0	△0.0

주: 1)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의 기여금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중앙정부 총지출은 코로나 긴급피해 지원과 고용·생활안정 사업 등의 집행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 2021년 3월 총지출은 72.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6조원 증가

- 예산은 42.3조원으로, 긴급고용지원금(+0.5조원), 저소득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지원 사업(+0.2조원)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0조원 증가
- 기금은 30.1조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6조원 증가

※ 참고로 2021년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7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만명(9.0%) 증가

[표 2] 중앙정부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3월	1~3월 누계	추경	3월	1~3월 누계	3월	1~3월 누계
총지출	554.7	549.9	60.8	164.8	572.9	72.4	182.2	11.6	17.4
예산	377.5	374.4	40.3	120.6	382.3	42.3	123.1	2.0	2.5
일반회계	323.5	320.8	32.8	100.7	321.6	33.6	102.3	0.8	1.5
특별회계	54.0	53.6	7.5	19.8	60.8	8.7	20.8	1.2	1.0
기금	177.3	175.2	20.5	44.2	190.6	30.1	59.1	9.6	14.9
사회보장성기금1)	61.2	59.1	5.0	14.3	62.9	6.0	16.8	1.0	2.5
세입세출외	-	0.4	0.0	0.0	-	0.0	0.0	△0.0	△0.0

주: 1)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산업·고용동향

3월 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3% 증가하였고 무선통신기기와 가전 생산도 각각 17.7%, 33.2% 크게 증가한 반면, 조선, 석유, 컴퓨터·주변장치 생산은 감소**

4월 주요 산업의 수출은 11대 산업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 **석유·화학·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11대 산업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46.3%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7개 산업이 감소하여 5.2% 감소**

3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로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의 완화로 도매 및 소매(8.8%), 숙박 및 음식점(19.5%) 등이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전년동월대비 7.8%)**

- 전월대비로도 도매 및 소매(1.6%), 운수(5.8%), 숙박 및 음식점(20.4%) 등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2% 증가

4월 석유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전월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농산물과 식품, 귀금속 및 금속광물 지수 등 원자재 가격은 모두 상승

■ **원유 가격은 전월대비 1.3% 하락하였고, 석탄, 가스 가격도 각각 2.8%, 19.9% 하락**

■ **농산물 및 식품 지수는 작황 부진 및 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각각 1.7%, 3.2% 상승했으며, 금속광물 지수는 코로나19 이후 생산지연에 따른 공급부족과 최근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13개월 연속 상승**

4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수도권(0.96% → 0.91%) 및 지방(0.53% → 0.52%) 모두 상승폭 축소되어 전국은 0.71% 상승**

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지와 지난해 4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호조와 제조업 생산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

■ **4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50.7만 명)과 건설업(14.1만 명) 등에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제조업(0.9만 명)에서는 지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Ⅱ. 산업·고용동향

1. 제조업

3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8% 감소

■ **반도체 산업의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와 가전 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과 석유, 컴퓨터·주변장치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3% 증가하였고 무선통신기기 부문과 가전 부문의 생산도 전년동월대비 각각 17.7%, 33.2% 크게 증가
- 반면, 조선와 석유, 컴퓨터·주변장치의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각각 17.4%와 9.3%, 5.0% 감소하면서 제조업 생산 증가 폭을 제한

■ **전월대비로는 가전 부문 생산이 주요 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화학 부문의 전월대비 생산 증가 폭이 축소되고 컴퓨터·주변장치 생산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크게 증가한 가전 부문은 전월대비로도 28.9% 증가
- 컴퓨터·주변장치 부문의 생산이 전월대비 12.0% 감소하고, 지난 2월 전월대비 생산이 각각 7.2%, 7.9% 증가하였던 반도체와 화학 부문의 전월대비 생산이 4.3%, 0.1% 증가에 그치고 자동차 부문 생산 또한 전월대비 4.8% 감소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			2021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01.0	98.8	113.7	108.7	99.8	119.1	-0.8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2	11.6	7.6	7.6	1.0	4.7	
반도체	37.5	44.5	42.1	20.0	19.9	25.3	4.3
자동차	-21.2	-13.6	3.8	17.9	21.9	-1.6	-4.8
화학	-3.7	6.7	0.4	0.2	-0.1	8.2	0.1
일반기계	-3.6	12.5	7.4	16.9	5.6	8.2	-3.0
철강	-8.9	6.7	-1.3	1.8	-6.5	-0.9	-1.9
조선	0.0	44.0	18.0	1.6	-30.4	-17.4	4.0
석유	-2.9	-2.4	3.1	-10.1	-6.0	-9.3	-2.6
섬유	-11.7	8.6	0.2	-0.4	-13.6	0.7	3.1
무선통신기기	0.5	4.4	-4.2	64.1	9.6	17.7	0.0
가전	-9.8	-6.7	3.1	19.2	8.9	33.2	28.9
컴퓨터 · 주변장치	-22.8	-1.7	-13.1	-0.7	-3.7	-5.0	-12.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2021년 4월 주요 11대 산업[1]의 수출은 석유·화학·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대 산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6.3%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

- 전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일반기계, 조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 등 7개 산업이 감소하여 5.2% 감소

[표 2]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년				2021년					
	1월	2월	3월	4월	1월	2월	3월	전월대비	4월	전월대비
11대산업	-7.7	1.3	-5.4	-31.7	9.6	8.1	16.1	19.8	46.3	-5.2
반도체	-3.4	9.3	-2.7	-14.9	21.6	13.2	8.6	13.5	30.2	-1.7
자동차	-19.7	-7.0	2.1	-41.0	26.4	26.9	14.4	23.3	81.3	-5.9
화학	-17.4	-10.9	-11.3	-34.2	8.6	23.1	48.6	24.2	82.6	-1.8
일반기계	-5.0	10.3	-4.2	-20.2	-4.9	-5.7	6.9	20.9	17.0	-9.4
철강	-17.3	-10.0	-6.6	-24.3	5.7	3.5	12.9	17.5	39.0	0.2
조선	59.0	9.1	-31.4	-60.9	23.3	3.7	63.9	57.4	14.3	-48.3
석유	-6.3	-8.7	-23.9	-62.3	-44.7	-12.7	18.0	14.1	96.4	6.0
섬유	-12.9	19.0	-9.2	-35.7	-8.0	-24.1	9.3	27.8	46.5	1.9
무선통신기기	-23.3	7.9	13.2	-33.5	57.9	10.2	6.0	8.9	79.7	13.2
가전	-18.4	2.5	-0.4	-32.5	18.7	9.8	17.9	24.4	69.3	-1.7
컴퓨터 · 주변장치	-9.0	9.4	14.1	-5.4	21.6	7.8	2.6	11.4	22.2	-6.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산업은 무선통신기기와 가전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생산 및 수출 모두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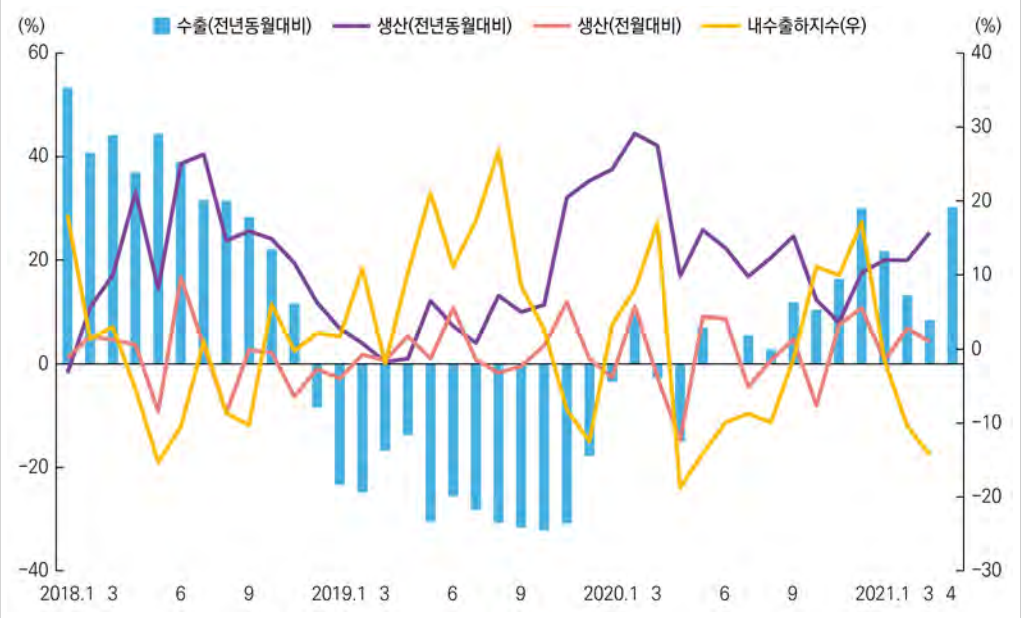
■ **모바일과 PC용 반도체 수요의 상승주기에 들어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3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3%, 전월대비 4.3%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20.0 → (2월)19.9 → (3월)25.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21.1월)0.7 → (2월)6.9 → (3월)4.3

■ **4월 중 수출 또한 모바일용 메모리, AP(Application Processor), 카메라 이미지 센서 등 관련 부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2018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21.6 → (2월)13.2 → (3월)8.6 → (4월)30.2

[그림 1] 반도체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산업의 3월 생산은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전월대비 다소 부진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4월 수출은 4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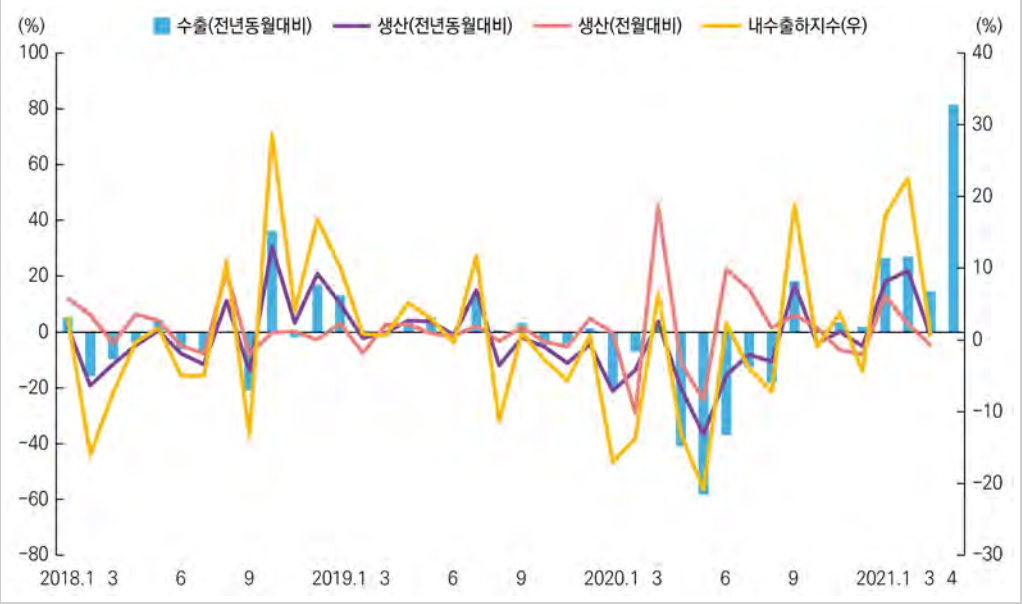
■ **3월 생산은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각각 1.6%와 4.8% 감소했는데, 전년동월대비 감소는 2020년 3월의 부품 공급 차질이 해소되면서 생산이 증가했던 것에 따른 역 기저효과 때문이며, 전월대비 감소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을 포함한 대외여건 변수에 따른 생산차질이 주요 요인**

-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감산과 일부 완성차의 수출 중단 및 내수부진 등이 주요 요인이나 내수출하는 신차효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17.9 → (2월)21.9 → (3월)-1.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12.6 → (2월)3.0 → (3월)-4.8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17.4 → (2월)22.5 → (3월)0.5

■ **4월 수출은 4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이며 수출액은 2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초과**

- 국내 완성차의 미국내 판매량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신규 출시된 친환경차와 SUV를 중심으로 고부가 차종에 대한 견조한 수요 증가가 수출을 견인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26.4 → (2월)26.9 → (3월)14.4 → (4월)81.3

[그림 2] 자동차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화학 산업은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증가하였고 4월 수출 또한 지난 3월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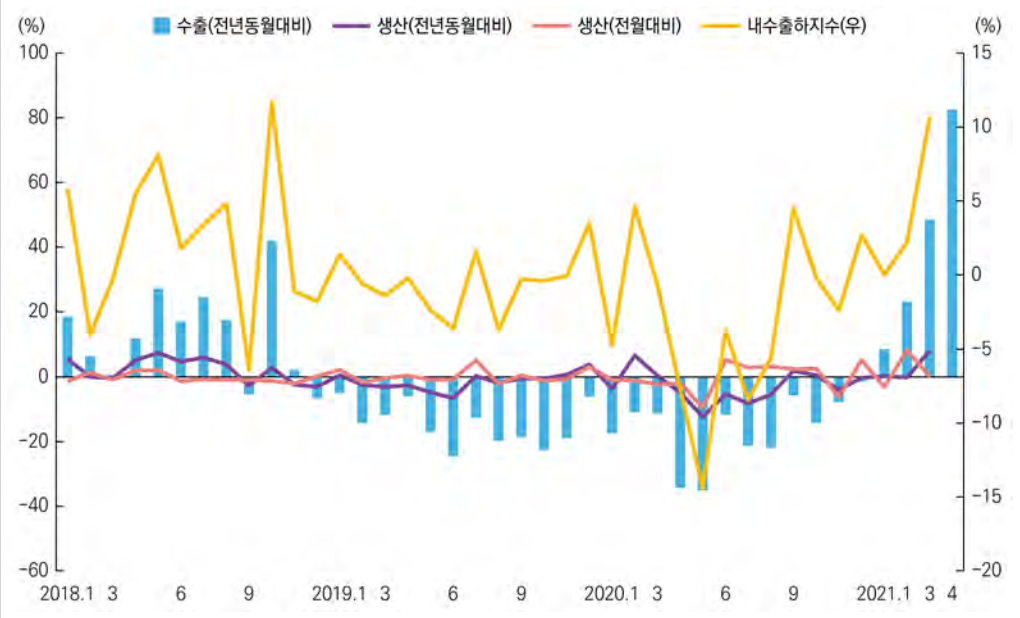
■ **3월 중 생산은 중간재 소비 증가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1% 증가에 그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0.2 → (2월)-0.5 → (3월)8.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3.1 → (2월)7.9 → (3월)0.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0.3 → (2월)2.3 → (3월)10.7

■ **해외 시장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간재 소비가 급증하면서 화학 산업 수출 역시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고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8.8 → (2월)22.9 → (3월)48.5 → (4월)82.6

[그림 3] 화학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산업의 3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4월 수출도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기계의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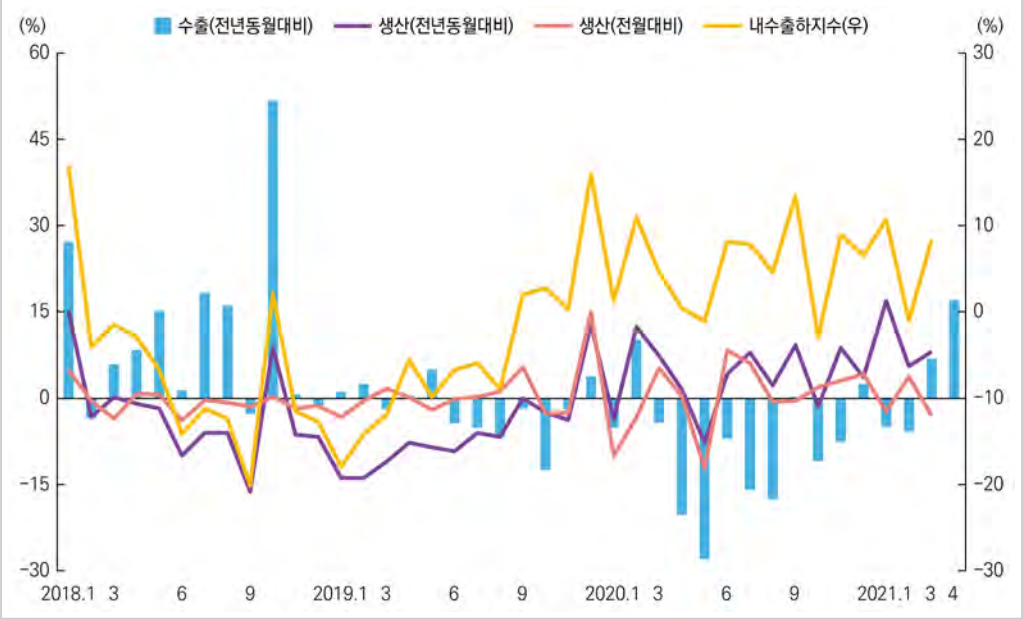
■ **3월 생산은 내수출하 증가와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하며, 2020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16.9 → (2월)5.6 → (3월)8.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2.3 → (2월)3.8 → (3월)-3.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10.7 → (2월)-1.0 → (3월)8.3

■ **4월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굴삭기 등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IT품목 생산 관련 광학기기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중국·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7.0%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4.9 → (2월)-5.7 → (3월)6.9 → (4월)17.0

[그림 4]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산업의 3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4월 수출은 수출단가의 큰 폭 상승과 주요국의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 경기 회복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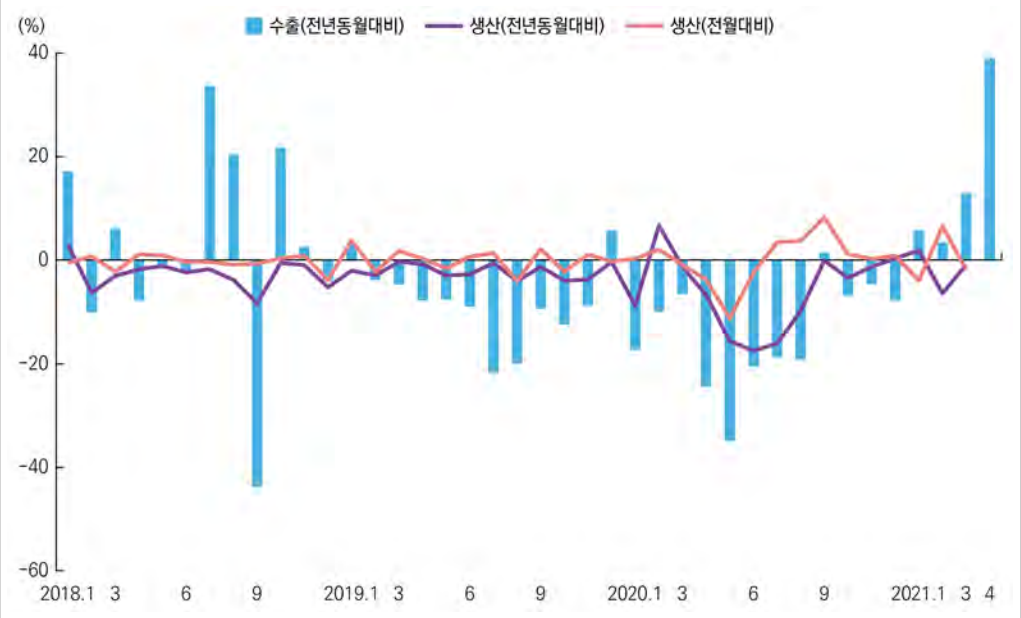
■ **3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1.9%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1.8 → (2월)-6.5 → (3월)-0.9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4.0 → (2월)6.5 → (3월)-1.9

■ **4월 수출은 철광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철강재 수출 단가도 전년동월대비 24.0% 증가하였고,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 경기도 회복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9.0%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

- 철강재 수출 단가(달러/톤): ('20.4월) 826 달러 → ('21.4월) 1,024 달러[2)]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5.7 → (2월)3.5 → (3월)12.9 → (4월)39.0

[그림 5] 철강 산업 생산·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잠정치임

조선 산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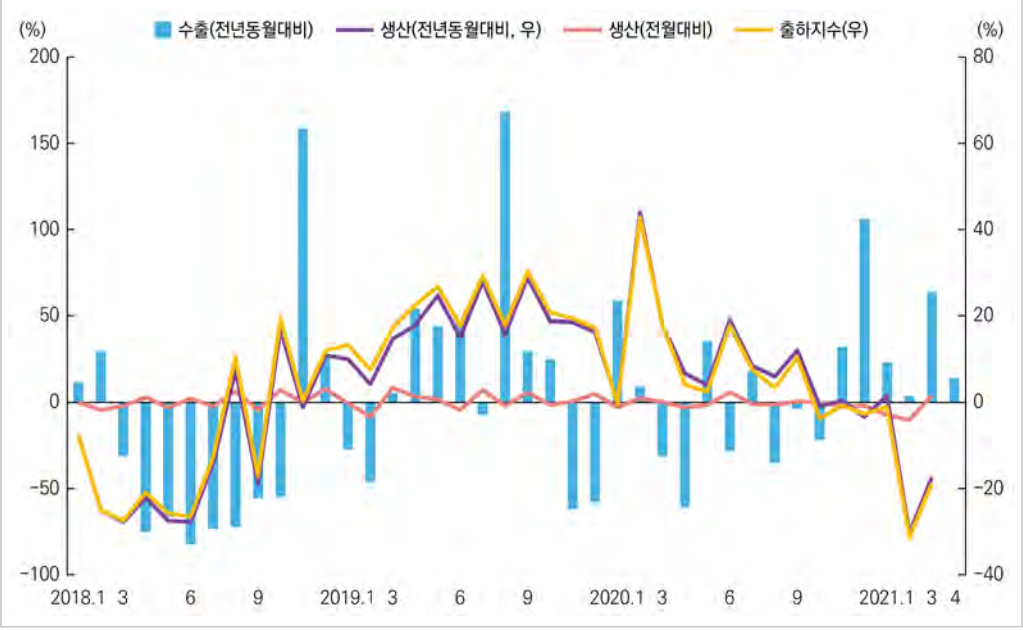
■ **3월 중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88.1% 증가한 286만 CGT로 세계 1위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생산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발주량이 부진하여 '20년 1월~3월 간 수주(55만 CGT)가 전년동기대비 71.3% 줄어든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7.4% 감소하였으며, 출하도 18.8%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1.6 → (2월)-30.4 → (3월)-17.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7.3 → (2월)-10.3→ (3월)4.0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1.0 → (2월)-31.3 → (3월)-18.8

■ **4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운반선, 대형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의 수출이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23.3 → (2월)3.7 → (3월)63.9 → (4월)14.3

[그림 6] 조선 산업 생산·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석유산업의 3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4월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큰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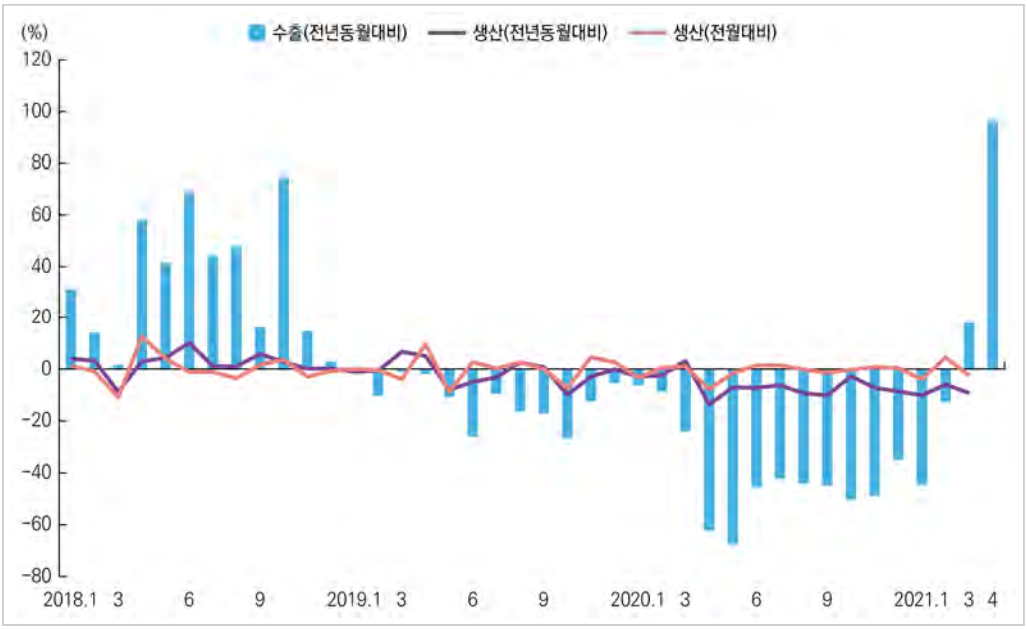
■ **3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로 9.3% 하락하였는데, 이는 2020년 3월의 경우 석유산업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아 생산량이 1.03억배럴으로 높았던 기저효과 때문**

- 전월대비로는 2.6% 감소하였는데, 이는 명절 효과에 따른 조업일수 변화를 반영한 때문으로 석유제품 국내생산량은 0.93억배럴로 전월의 0.88억배럴보다 다소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10.1 → (2월)-6.0 → (3월)-9.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3.9 → (2월)4.6 → (3월)-2.6

■ **4월 수출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며 수출액(28.8억 달러)은 1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월평균 수출액(33.9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함**

- 세계석유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전년동월의 배럴당 32.2달러에서 63.8달러로 상승하면서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상승하여 수출액이 전년동월의 14.7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44.7 → (2월)-12.7 → (3월)18.0 → (4월)96.4

[그림 7] 석유 산업 생산·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섬유 산업의 3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4월 수출도 주요국의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의류용 수요 회복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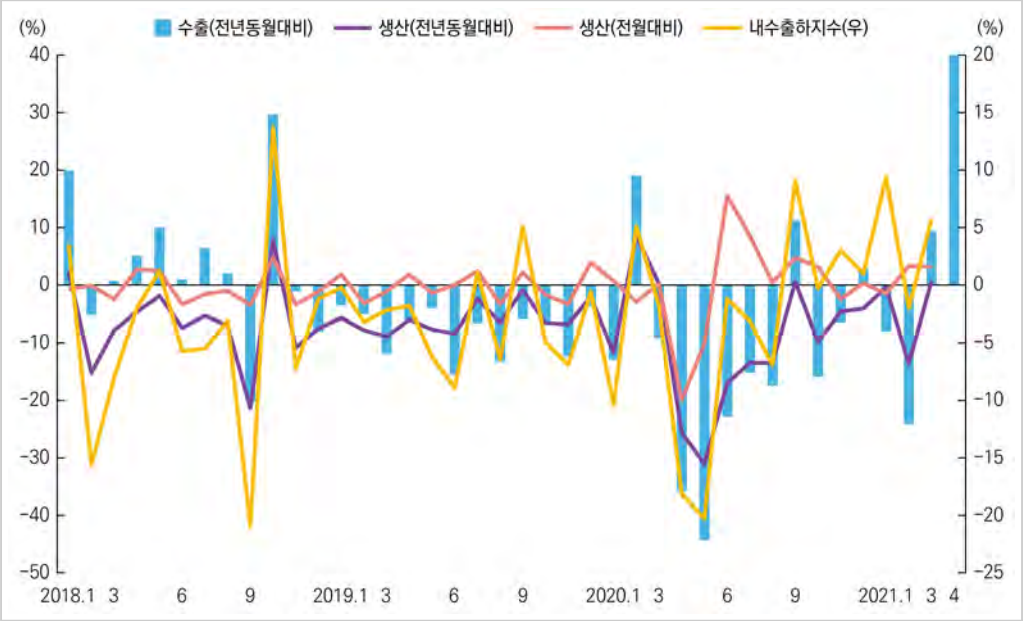
■ **3월 생산은 국내외 수요 증가로 재고 감소와 더불어 내수출하와 수출이 증가하면서, 2020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에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로 전환**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0.4 → (2월)-13.6 → (3월)0.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1.5 → (2월)3.3 → (3월)3.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9.4 → (2월)-2.0 → (3월)5.7

■ **4월 수출은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소비 심리개선으로 의류용 수요가 회복되고, 아세안·중국 등 주요 중간재 생산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8.0 → (2월)-24.1 → (3월)9.3 → (4월)46.5

[그림 8] 섬유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선통신기기 산업은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3월 생산과 4월 수출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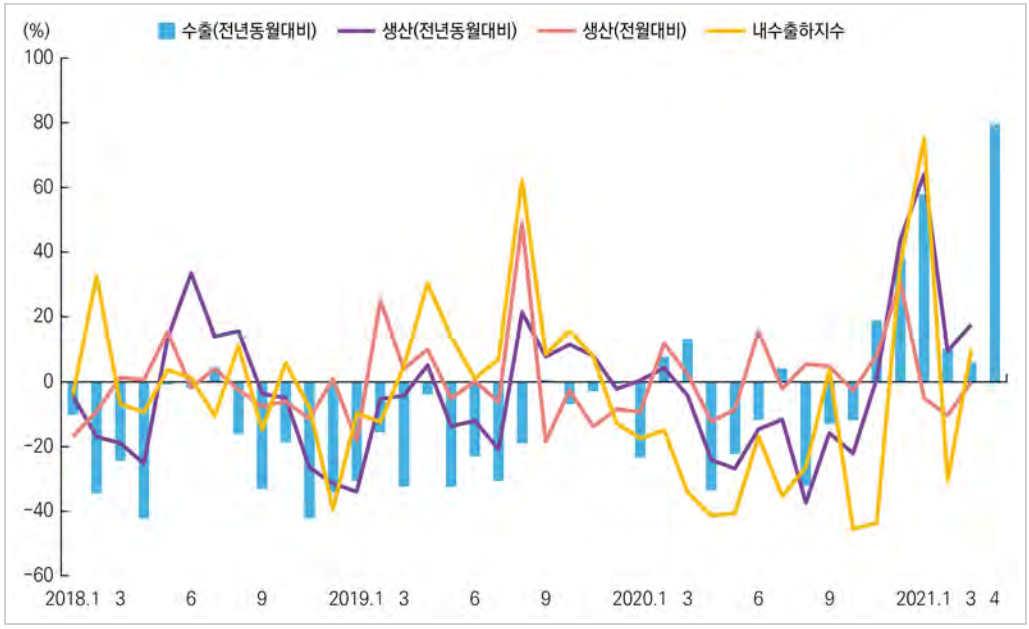
■ **3월 중 생산은 내수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정체 수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64.1 → (2월)9.6 → (3월)17.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5.0 → (2월)-10.3 → (3월)0.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75.3 → (2월)-30.7 → (3월)10.1

■ **4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6.6% 증가한 14.5억 달러로 성능이 뛰어난 중저가 모델의 수요가 늘고 카메라모듈 등의 부분품 수출 호조로 6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57.9 → (2월)10.2 → (3월)6.0 → (4월)79.7

[그림 9]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전 산업은 국내외 수요 증가로 3월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4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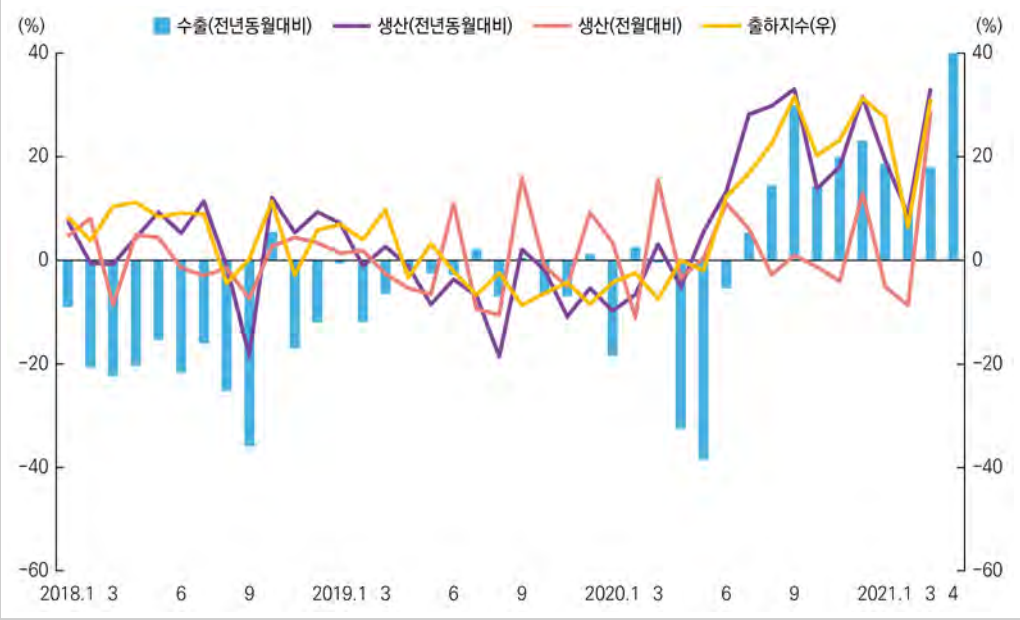
■ **3월 중 생산은 국내 가전제품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23.9% 증가하고, 수출이 호조를 기록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3.2%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28.9%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19.2 → (2월)8.9 → (3월)33.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5.2 → (2월)-8.8 → (3월)28.9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27.5 → (2월)6.4 → (3월)31.2

■ **4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9.3% 증가한 7.1억 달러로 대미 수출과 대EU 수출이 각각 53.6%, 101.0%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10개월 연속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18.7 → (2월)9.8 → (3월)17.9→ (4월)69.3

[그림 10] 가전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컴퓨터 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가 폭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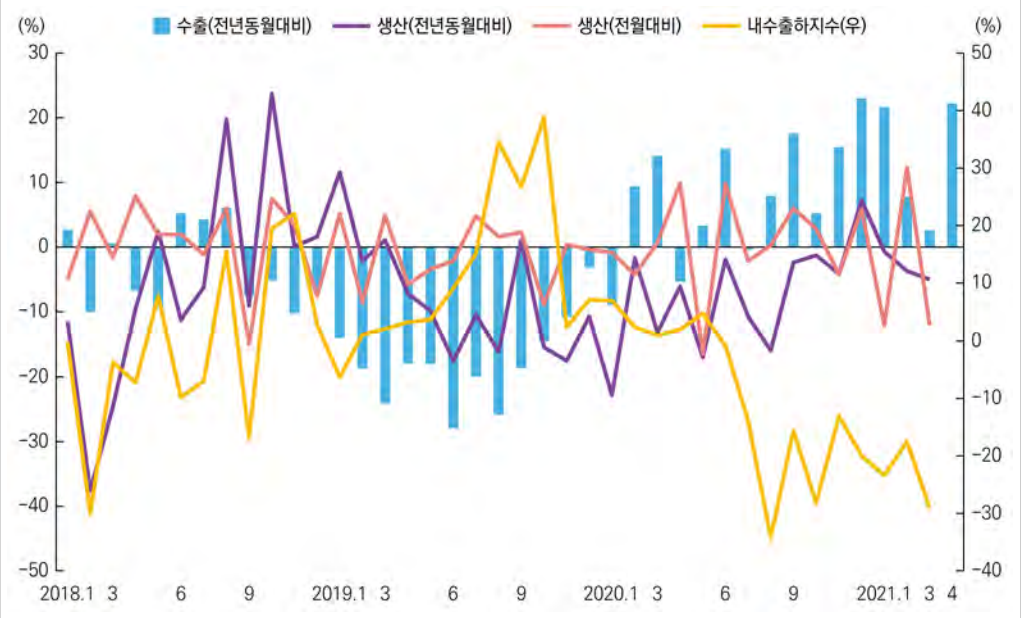
■ **3월 중 국내시장에서 PC 수요가 정체되면서 내수출하가 크게 감소(-29.1%)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생산은 5.0% 감소하고 전월대비로도 12.0%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0.7 → (2월)-3.7 → (3월)-5.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12.1 → (2월)12.3 → (3월)-12.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23.4 → (2월)-17.5 → (3월)-29.1

■ **반면 해외시장에서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데 힘입어 컴퓨터 주변장치의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2%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21.6 → (2월)7.8 → (3월)2.6 → (4월)22.2

[그림 11]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서비스업

3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로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의 완화로 외부활동이 늘면서 도매 및 소매(3.4% → 8.8%) 등의 증가폭이 커지고 숙박 및 음식점(-11.4% → 19.5%) 등이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함에 따라 2개월 연속으로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 -1.8 → (2월) 0.7 → (3월) 7.8
-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9.5%), 도매 및 소매(8.8%) 등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숙박 및 음식점(19.5%), 운수(14.4%), 예술·스포츠·여가(35.2%) 등이 증가로 전환

■ **전월대비로도 도매 및 소매(1.6%), 운수(5.8%), 숙박 및 음식점(20.4%) 등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2% 증가함에 따라 2개월 연속으로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 -0.1 → (2월) 1.1 → (3월) 1.2

[표 3]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0			2021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6.7	100.7	103.4	104.8	101.4	111.5	1.2
서비스업	0.9	1.3	-4.9	-1.8	0.7	7.8	
도매 및 소매	-2.0	-0.2	-6.5	-2.0	3.4	8.8	1.6
금융 및 보험	3.9	12.3	11.5	23.8	11.7	9.5	-3.1
교육	-1.7	-3.3	-9.8	-4.2	-0.6	5.9	0.0
보건 및 사회복지	6.9	4.2	1.2	-0.3	0.5	2.0	0.0
숙박 및 음식점	-2.2	-14.9	-32.6	-36.7	-11.4	19.5	8.1
운수	-2.9	-7.6	-16.7	-14.8	-3.8	14.4	5.8
출판·영상·방송	4.1	5.9	4.0	0.0	0.9	4.7	1.3
전문, 과학 및 기술	-0.2	4.5	2.8	1.1	-1.1	5.3	3.5
사업시설관리지원	0.3	-6.0	-9.0	-9.9	-4.0	0.2	0.7
협회·수리·기타개인	-4.0	-2.6	-21.6	-11.1	-8.1	16.4	3.9
부동산 및 임대	6.6	16.0	9.3	0.9	-7.8	-0.7	0.9
예술·스포츠·여가	2.4	-16.2	-47.3	-48.6	-22.0	35.2	7.6
하수, 폐기물 처리	-2.0	18.5	5.8	2.8	-11.0	5.1	7.3

주: *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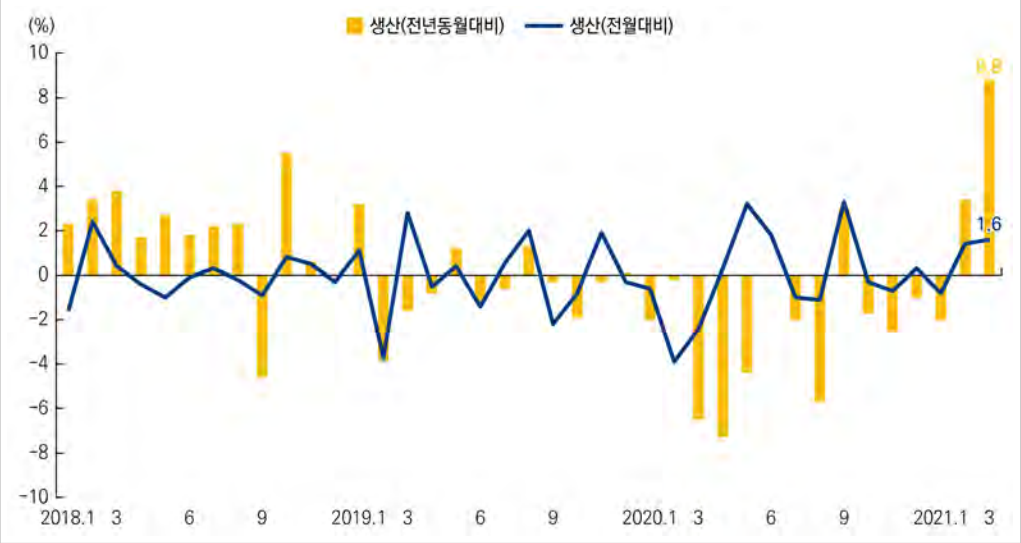
■ **3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이 20.9% 증가하고,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이 각각 5.7%, 11.2%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하며 2개월 연속으로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2.0 → (2월)3.4 → (3월)8.8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 생산은 개별소비세 30% 인하연장에 따른 소비확대(전년 월평균 대비 5.8% 증가한 140,523대 판매)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0.9% 증가
- 도매업 부문 생산은 산업용 농축산물 도매업[3]과 생활용품 도매업이 각각 11.9%, 9.9%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 소매업 부문 생산은 음·식료품 소매업 부문이 4.1% 감소하였으나, 백화점, 면세점 등의 종합 소매업과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의 정보통신 소매업 등이 각각 5.9%, 8.1% 증가함에 따라 11.2% 증가

■ **전월대비로는 음·식료품 소매업이 24.3% 감소하는 등 소매업 부문이 0.8%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이 7.7% 증가하고, 도매업 부문의 생산이 2.4% 증가함에 따라 2개월 연속으로 증가(1.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0.8 → (2월)1.4 → (3월)1.6

[그림 12]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가공하지 않은 농축산물 및 수렵물을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며, 곡물 도매업,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사료 도매업,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산동물 도매업 등이 포함

금융 및 보험업의 생산은 10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다소 낮아졌으며 전월대비로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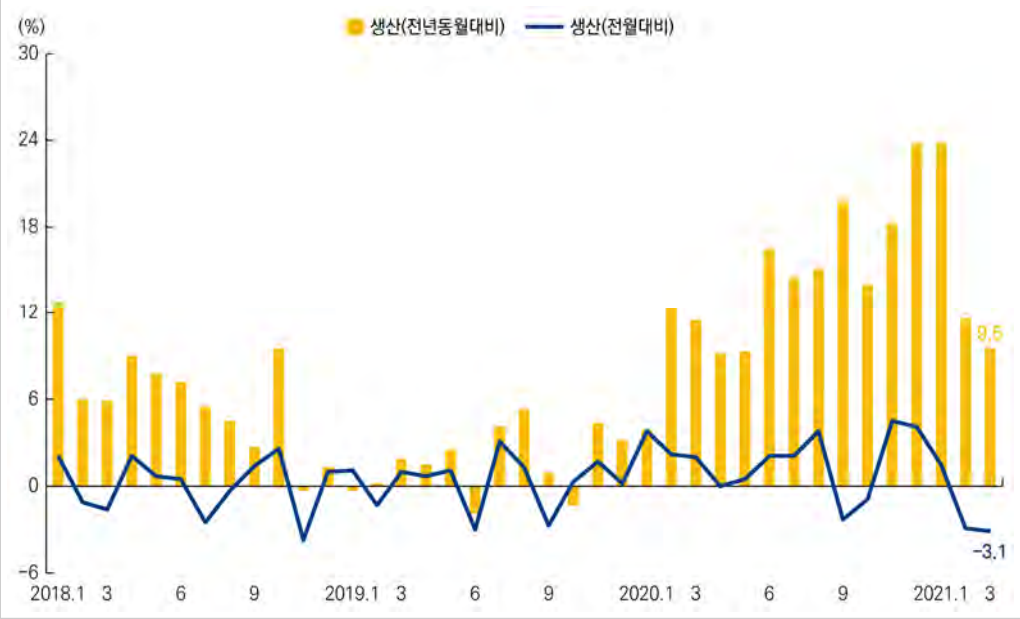
■ **3월 중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로는 9.5% 상승했으며, 금융업과 보험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7%와 4.0% 상승하였고, 특히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은 25.7%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상승을 견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 23.8→ (2월)11.6 → (3월)9.5

■ **전월대비로는 3.1% 하락하여 지난 9개월동안의 높은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업 부문은 전월대비 1.0% 상승했으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이 13.4%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 1.5→ (2월)-2.9 → (3월)-3.1

[그림 13]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월 교육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전월대비로는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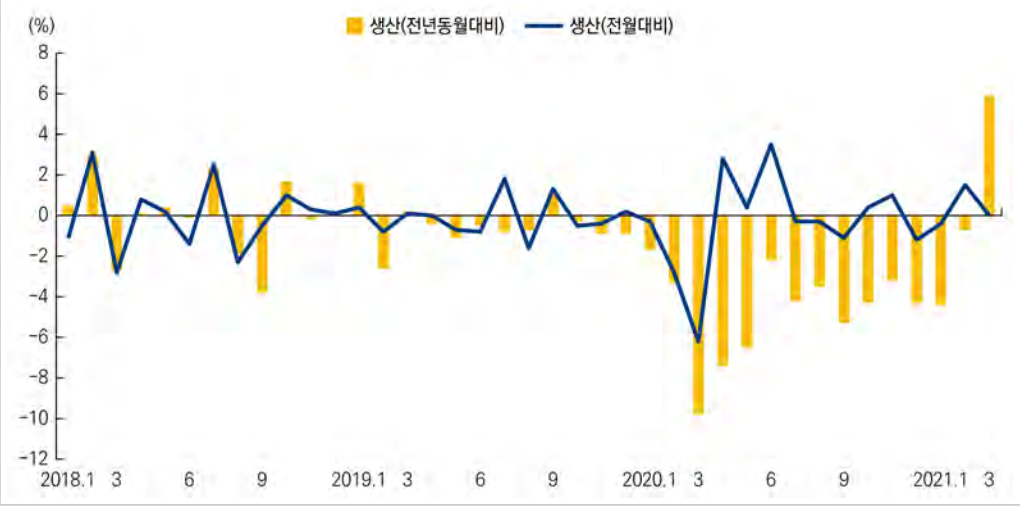
■ **3월 생산은 학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초등교육기관도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내로 유지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전월대비로는 중등교육기관의 증가에도 불구 초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정체**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4.4 → (2월)-0.7 → (3월)5.9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0.4 → (2월)1.5 → (3월)0.0

[그림 14] 교육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건 및 사회복지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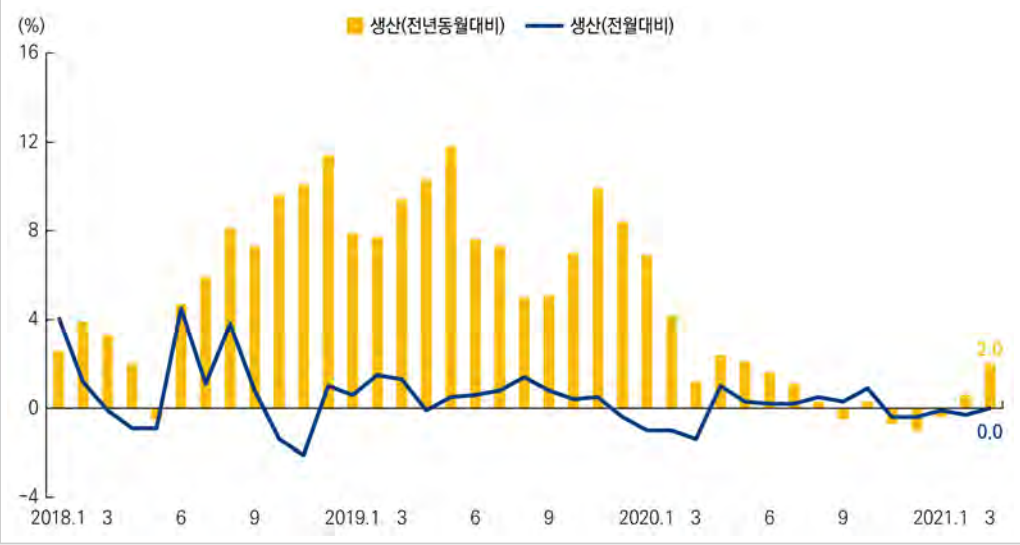
■ **2020년 3월에 산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던 것의 기저효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증가**

- 생산지수(불변, 2015=100.0): ('20.3월) 127.8 → ('21.3월)130.4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0.4 → (2월)0.6 → (3월)2.0

■ **전월대비로는 의원부문 생산이 1.4% 감소하고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부문 생산이 0.5% 감소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업 전체의 생산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0): ('21.1월)133.9 → (2월)133.5 → (3월)133.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0.1 → (2월)-0.3 → (3월)0.0

[그림 15] 보건 및 사회복지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숙박 및 음식점업은 기저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생산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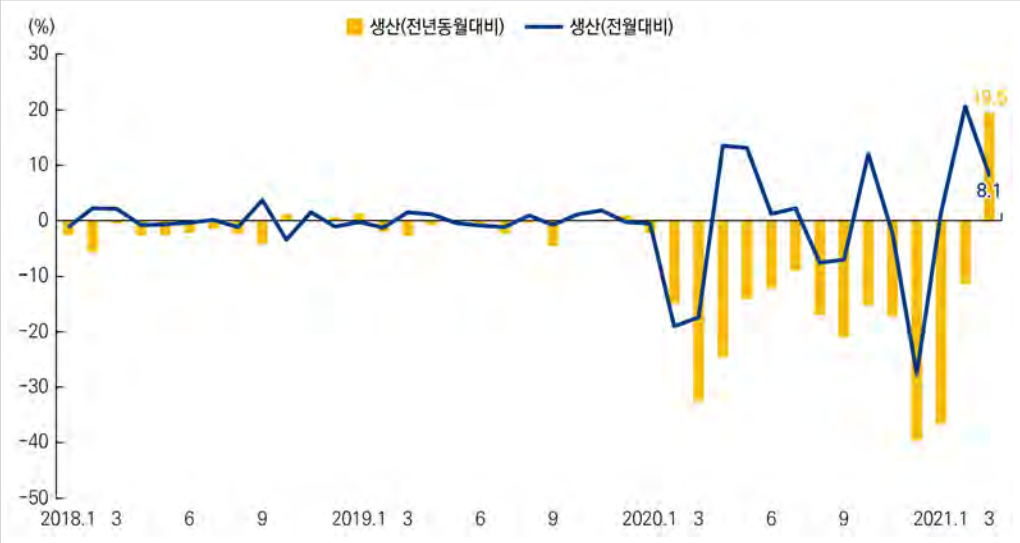
■ **3월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5%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

- 숙박 부문은 최근 거리두기 완화와 국내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63.8% 증가했으며, 음식점 및 주점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월)-36.7 → (2월)-11.4 → (3월)19.5

■ **전월대비로는 8.1%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숙박업 부문의 상승률은 3.5%로 음식점업 및 주점업 부문(8.7%) 대비 미흡**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월)1.3 → (2월)20.6 → (3월)8.1

[그림 16]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4월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은 3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전월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높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하락폭은 크지 않음

■ **4월 원유 가격은 전월대비 1.3% 하락하였으나 중국을 중심으로 비OECD국가의 석유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6개월 연속 가격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추정**

- 석유제품 중 항공유와 화물운송 연료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률 확대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화물 운송량이 증가하면서 원유수요도 증가할 전망
- 국제원유가격(달러/배럴): ('21.2월)60.5→(3월)63.8→(4월)63.0

■ **4월 석탄 가격은 톤당 92.2달러로 7개월 연속 상승 이후 하락반전하여 전월대비 2.8%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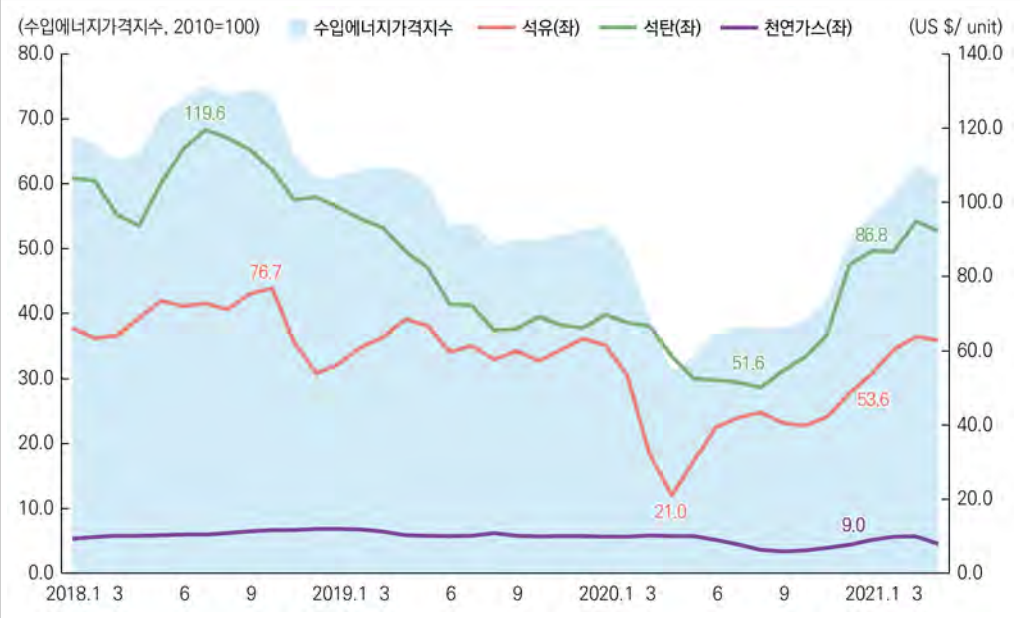
- 최근의 가격 상승세에 따른 가격부담과 난방용 수요 감소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추정
- 석탄가격(달러/톤): ('21.2월)86.7→(3월)94.9→(4월)92.2

■ **4월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8.0달러로 전월대비 19.9% 하락**

- 동계 난방용 현물 가스 수요가 감소에 따라 국제 현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중장기 가스 수요는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확대에 따라 지속 상승할 전망
- 가스가격(달러/mmbtu): ('21.2월)9.9→(3월)9.9→(4월)8.0

※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질량 1파운드의 물의 온도를 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그림 17] 국제 에너지 가격과 수입에너지가격지수 추이



주: 1.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고려하여 석유가격 45.5%, 석탄 33.3%, 천연가스 21.2%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2.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우측)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4월 농산물과 식품, 귀금속 및 금속광물 지수는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금속광물지수는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 **4월 농산물 및 식품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1.7%, 3.2%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각각 29.0%, 37.4% 상승**

- 농산물과 식품지수는 2013년 이후 최고치이며,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이 재고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상승세가 이어짐

- 옥수수는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 등의 작황 부진 우려와 수요 상승으로, 설탕은 브라질 사탕수수 수확 지연과 프랑스 냉해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육류는 동아시아 지역의 수요증가로 각각 가격이 상승
- 농산물지수: ('21.2월)103.8→(3월)103.0→(4월)104.9
- 식품지수: ('21.2월)115.2→(3월)114.0→(4월)1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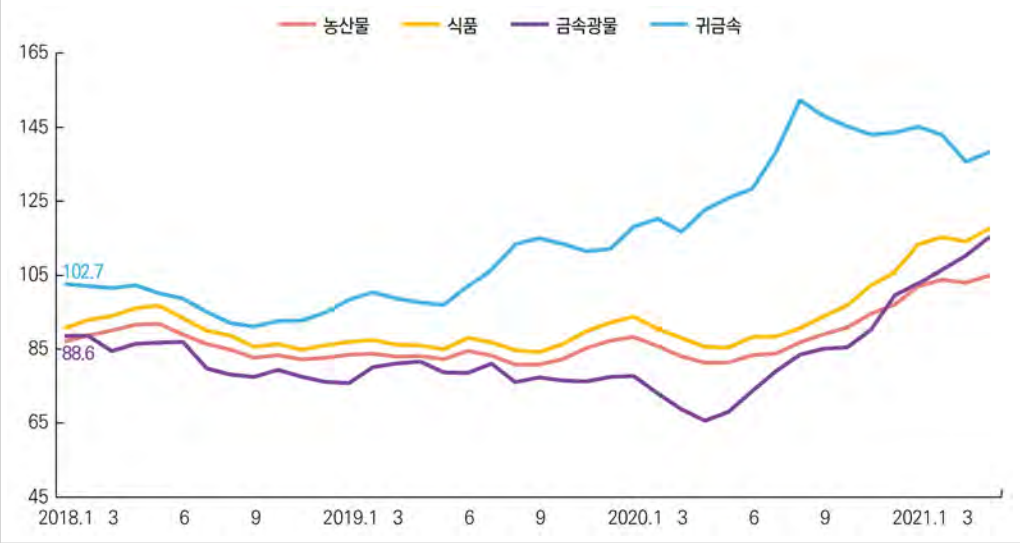
■ **4월 금속광물 지수는 코로나19 이후 생산지연에 따른 공급부족과 최근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13개월 연속 상승**

- 알루미늄은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관련 수요증가도 가격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
- 구리는 전기전자부터 건설까지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 원자재로 전세계 산업동향의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코로나19 이후 톤당 4,300달러까지 내려갔던 가격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로 인해 지속 상승하여 2011년 2월 이후 10년만에 톤당 만달러를 초과하는 상승세를 이어감
- 금속광물지수: ('21.2월)106.4→(3월)110.2→(4월)115.3

■ **4월 귀금속 지수는 138.4로 전월대비 2.0% 상승했으며, 금과 은, 백금이 모두 상승**

- 미국 달러 약세에 따라 안전자산 대체재인 귀금속 가격이 상승
- 귀금속지수: ('21.2월)142.9→(3월)135.6→(4월)138.4

[그림 18]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주: 가격지수는 각 품목의 2010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하여 환산
자료: 세계은행

나. 국내 에너지 수요

2021년 2월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동월대비는 다소 증가했으나, 명절효과로 인해 전월대비로는 감소

■ **2월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969만TOE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는데, 수송부문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정·상업부문과 공공부문 난방수요가 다소 증가했기 때문**

- 가정·상업부문과 공공부문, 산업부문의 에너지수요는 각각 5.2%와 2.8%, 0.6% 증가했으나, 수송부문은 3.7% 감소

■ **전월대비로는 명절효과로 인해 8.5% 감소했는데,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량이 감소**

- 에너지소비 비중이 큰 도시가스와 석탄의 소비량 감소가 각각 18.1%와 13.0%로 높아 총 최종에너지 소비량 감소에 기여

※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 및 상업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전력)가 여기에 해당

[표 4]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TOE, %)

	2018	2019	2020		2021p			
				2월	1월	2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합계	233,368	231,353	222,031	19,489	21,521	19,690	1.0	-8.5
(전년동월대비)	1.2	-0.9	-4.0	-2.2	0.9	1.0		
석탄	32,480	32,057	30,579	2,356	2,727	2,374	0.8	-13.0
석유	116,831	116,125	109,484	9,004	9,350	9,003	0	-3.7
액화천연가스	2,038	2,909	3,602	284	265	234	-17.3	-11.4
도시가스	24,979	23,943	23,122	2,899	3,752	3,074	6	-18.1
전력	45,249	44,763	43,797	3,827	4,193	3,886	1.5	-7.3
열	2,682	2,646	2,658	394	468	409	3.9	-12.5
신재생 및 기타	9,110	8,910	8,789	726	766	708	-2.4	-7.5

주: 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와 도시가스의 합
자료: 에너지통계월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2021년 3월 전력수요는 난방수요 감소에 따라 전월대비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다소 증가

■ **3월 가정과 서비스부문의 전력수요는 난방수요 감소로 전월대비 각각 14.0%, 14.3% 감소했으나, 산업부문 전력수요는 4.6% 증가**

- 산업부문 중 전력수요가 증가한 업종은 출판·인쇄(14.3%), 의복·모피(13.6%), 가구 및 기타(10.5%), 사무기기(9.7%), 기타기계장비(7.4%), 가죽·신발(6.9%) 등

■ **전년동월대비로는 공공부문과 산업부문이 각각 9.0%, 1.1% 상승함에 따라 0.5% 증가하였으나, 가정부문과 서비스부문은 소폭 감소**

[표 5]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18	2019	2020	2021p			
				3월	2월	3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계	526,149	520,499	509,270	42,871	45,188	43,074	-4.7	0.5
전년동기대비	3.6	-1.1	-2.2	-0.5	1.5	0.5		
가정부문	70,687	70,455	74,073	5,873	6,686	5,753	-14.0	-2.0
공공부문	24,569	24,458	23,623	1,934	2,330	2,108	-9.5	9.0
서비스부문	147,189	145,816	142,881	11,934	13,822	11,838	-14.3	-0.8
산업부문	283,704	283,705	268,692	23,130	22,350	23,375	4.6	1.1

주 :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1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전력통계속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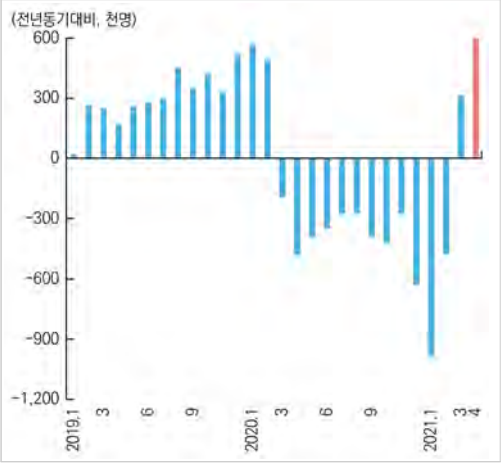
4. 고용

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지와 지난해 4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호조와 제조업 생산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 **4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

- 4월 중 전체 취업자 수(2,721.4만명)는 전년동월대비 65.2만 명(2.5%) 증가하며 전월(31.4만 명, 1.2%)보다 증가폭이 확대
-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22.4만 명), 운수창고업(10.7만 명) 등의 서비스업과 건설업(14.1만 명) 등에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제조업(0.9만 명)에서는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15세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보여주는 경제활동참가율(63.0%)은 주요 연령계층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32.4만명 감소

[그림 19] 전체 취업자 수 증감



[그림 20] 경제활동참가율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자료: 통계청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하여 전월(59.8%, 0.3%p)보다 상승폭 확대**

- 청년층(2.6%p)과 60세 이상(1.5%p)에서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30대(0.2%p)와 40대(0.6%p)에서도 14개월만에 상승 전환
- 계절조정 고용률은 60.4%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여 전월(60.3%, 0.2%p 상승)에 이어 4개월 연속 상승세가 유지되는 모습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6.2%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며 12개월 만에 하락 전환**

- 청년층(0.7%p), 30대(0.1%p)에서 상승하였으나, 40대(-0.2%p), 50대(-0.9%p), 60세이상(-0.5%p)에서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 전월대비 0.2%p 하락하며 전월에 이허 3개월 연속 하락
- 실업자는 114.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명(-2.1%) 감소하여 12개월 만에 감소 전환되는 모습

[그림 21]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제조업은 14개월만에 증가 전환되었으며, 건설업은 3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

■ 건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2월에 증가 전환된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11월)7.7→(12월)2.3→('21.1월)-2.0→(2월)2.8→(3월)9.2→(4월)14.1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14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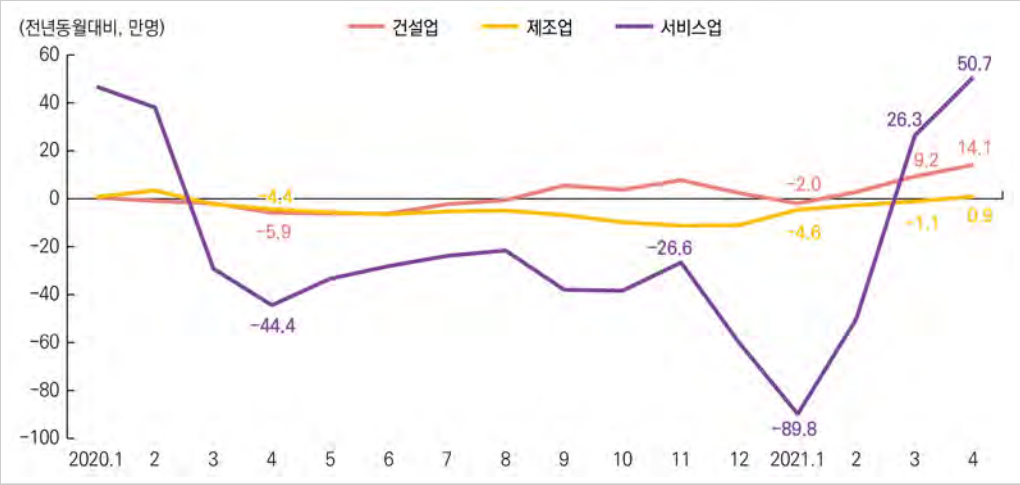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11월)-11.3→(12월)-11.0→('21.1월)-4.6→(2월)-2.7→(3월)-1.1→(4월)0.9

■ 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 이후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개선되며 50.7만 명 증가를 기록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11월)-27.0→(12월)-60.3→('21.1월)-89.8→(2월)-50.2→(3월)26.3→(4월)50.7
- 최근 3개월의 개선에는 2020년의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있지만, 2021년 4월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월과 비교하여도 6.3만 명 증가한 수치라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
- 비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7.9만 명 증가하였고, 대면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2.8만 명 증가를 기록하며 14개월만에 증가 전환되었으나 2019년 4월 대비로는 34.8만 명 감소하여 대면서비스업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1.3월 -2.8만 명→4월 6.1만 명), 보건복지업(17.1만 명→22.4만 명), 운수창고업(7.2만 명→10.7만 명), 교육서비스업(3.2만 명→6.6만 명) 등에서의 개선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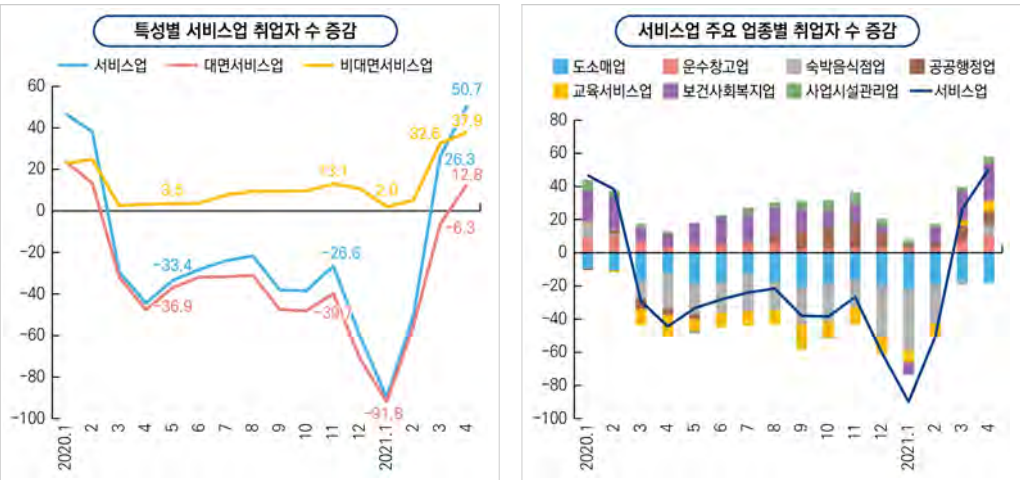
[그림 2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주: '20년 4월과 '21년 4월의 증감을 합하여 '19년 4월 대비 증감을 도출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3]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만명)



주: 1.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2. '20년 4월과 '21년 4월의 증감을 합하여 '19년 4월 대비 증감을 도출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개선

■ **청년층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는 지난 3월에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4월에는 증가폭이 확대되며 17.9만 명을 기록**

- 청년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11월)-24.3→(12월)-30.1→('21.1월)-31.4→(2월)-14.2→(3월)14.8→(4월)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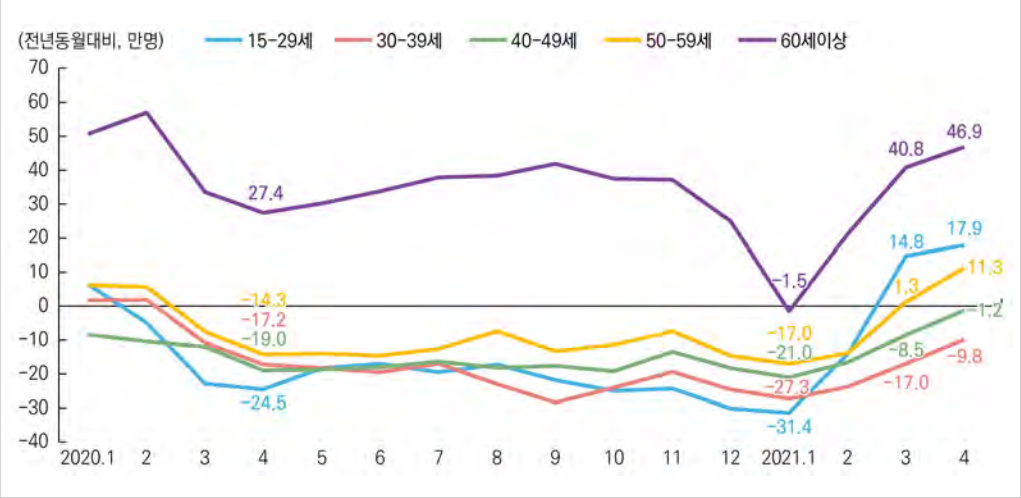
■ **30~50대 취업자 수는 2021년 1월의 저점(전년동월대비 -65.3만 명) 이후 3개월 연속 개선되며 39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기록**

- 30~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11월)-40.3→(12월)-57.6→('21.1월)-65.3→(2월)-54.3→(3월)-24.2→(4월)0.3
- 30~50대 취업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8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나 2020년 4월의 기저효과와 고용상황이 개선되며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6.9만 명 증가하였는데, 특히 65세 이상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짐**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11월)37.3→(12월)24.9→('21.1월)-1.5→(2월)21.2→(3월)40.8→(4월)46.9
- 60세 이상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가분 46.9만 명 중 약 72%인 33.7만 명이 65세 이상에서의 증가라는 점에서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24]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시일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상황 개선 및 전년동월의 기저효과로 3개월 연속 크게 개선되었고, 상용직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도 4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

■ **상용직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1.1만 명 증가를 기록하여 2020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

-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11월)3.8→(12월)0.5→('21.1월)3.6→(2월)8.2→(3월)20.8→(4월)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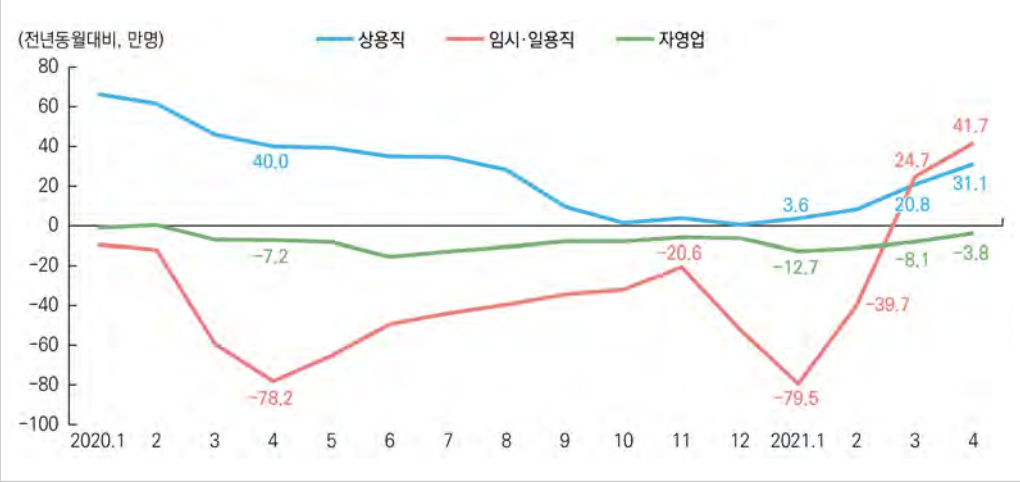
■ **임시일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2020년 3월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4월에는 증가폭이 확대되어 41.7만 명 증가를 기록**

-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11월)-20.6→(12월)-52.1→('21.1월)-79.5→(2월)-39.7→(3월)24.7→(4월)41.7
- 최근 임시일용직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의 증가세에는 2020년의 기저효과와,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용 개선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4)]

■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8만 명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 감소폭이 축소**

-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11월)-5.9→(12월)-6.3→('21.1월)-12.7→(2월)-11.1→(3월)-8.1→(4월)-3.8

[그림 25]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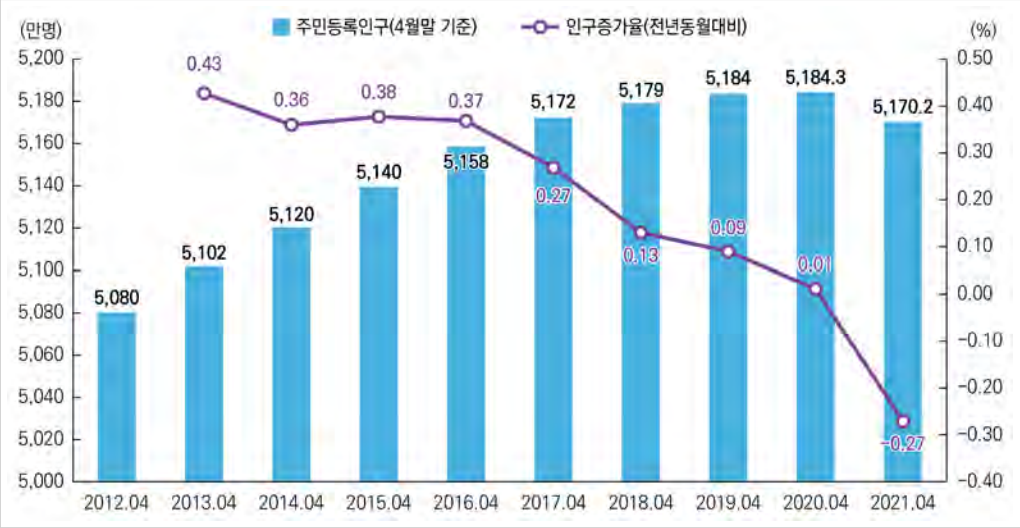
4) 2020년 기준, 임시일용직 취업자 581.1만 명 중 439.8만 명(75.7%)이 서비스업에 종사

5. 인구

2021년 4월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명(-0.27%) 감소

■ 각 연도 4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3년 0.43%, 2015년 0.38%, 2020년 0.02%, 2021년 -0.27%로 하락

[그림 26]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4~2021.4)



주: 각 연도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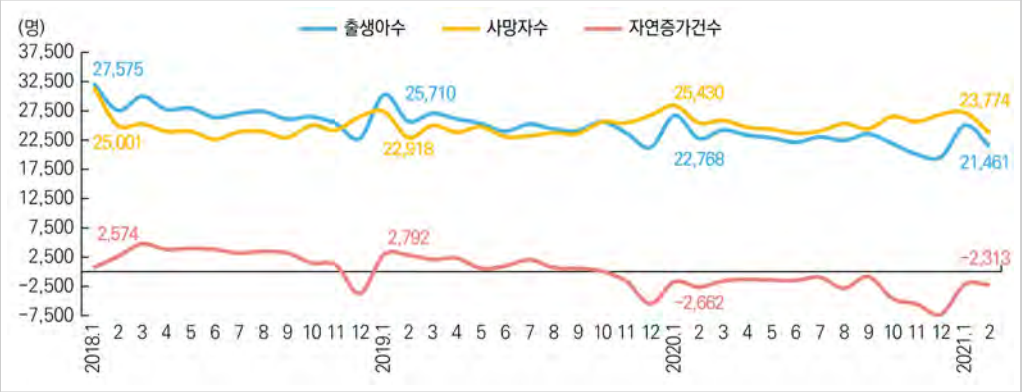
월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16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2월 출생아 수는 21,461명, 전년동월대비 1,307명(-5.7%) 감소

■ 2021년 2월 사망자 수는 23,774명, 전년동월대비 1,656명(-6.5%) 감소

■ 2021년 2월의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2,313명 많으며 2019년 11월 이후 16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27]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8.1~2021.2)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생아 수 변동의 선행지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혼인건수와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전년 동월대비 감소추세에 있음

■ **2021년 2월 혼인건수는 14,97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131건(-21.6%) 감소,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건 감소**

- 2020.2~2021.1 기간동안 전체 혼인건수는 20만 9,970건으로 2019.2~2020.1 기간대비 13.2% 감소

■ **2021년 하반기 이후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 2020년 7월~2020년 12월 까지의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이 평년 대비(추세) 특히 감소**

[그림 28]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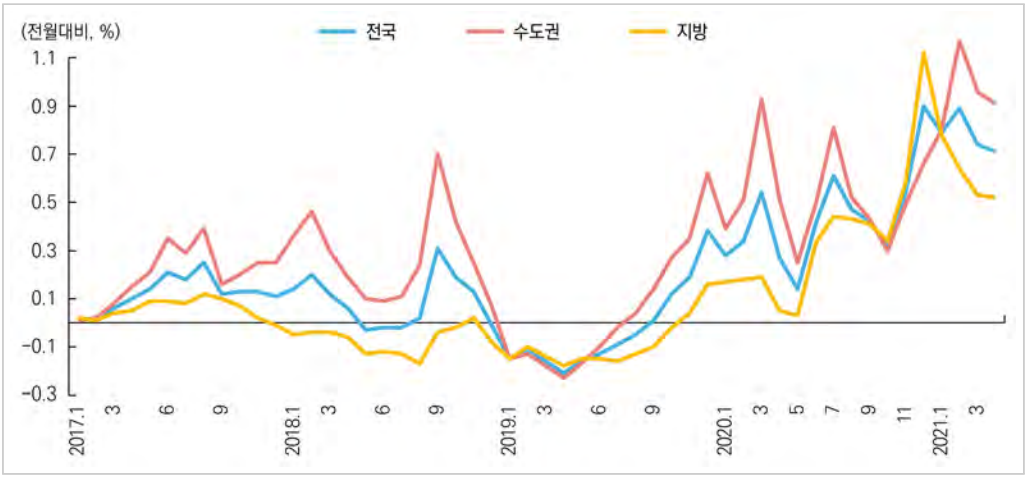
6. 부동산

2021년 4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71%, 수도권 0.91%, 지방은 0.52%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축소**

- 수도권은 세부담 강화와 2.4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
- 지방은 대전 1.03%, 대구 0.82%, 충남 0.63%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29]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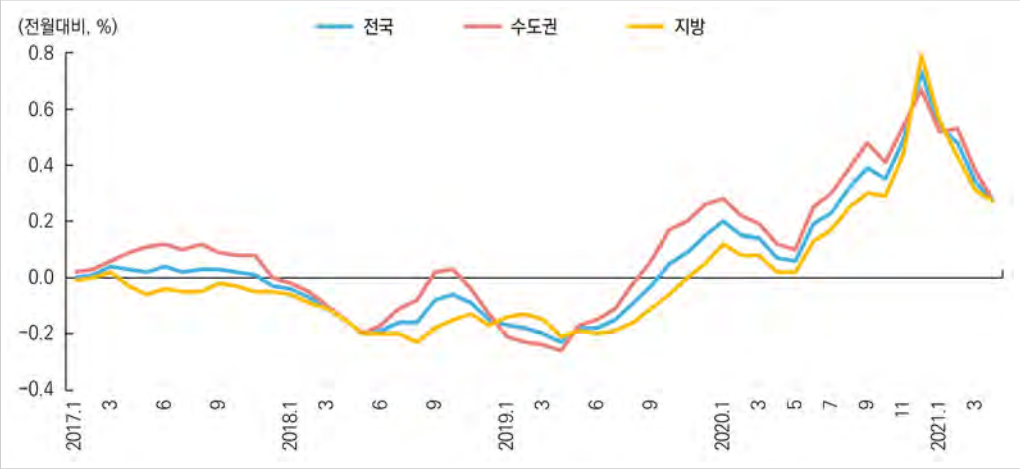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 **전국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0.27%로 전월(0.34%)에 비해 상승폭 축소**

- 수도권은 서울의 정주여건 양호한 중저가 단지와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서울 근교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
- 지방은 대전 0.73%, 대구 0.44%, 울산 0.43%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30]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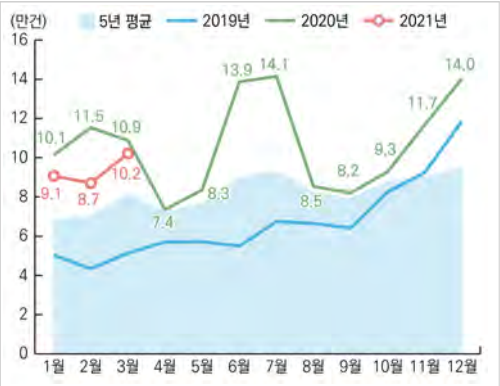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1년 3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

■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17.3% 증가,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한 10만 2,109건**

- 수도권(4.9만건)은 전월대비 4.1% 증가, 전년동월대비 24.1% 감소
- 지방(5.3만건)은 전월대비 33.2% 증가, 전년동월대비 20.9% 증가

[그림 31]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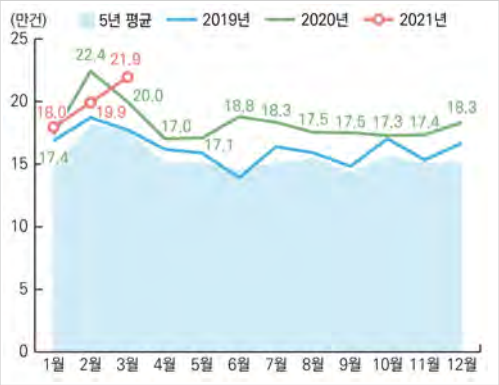
[그림 32] 연도별 3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9,457건으로 전월대비 10.2% 증가, 전년동월대비 9.9%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6%로 전월대비 0.2%p 증가, 전년동월대비 1.9%p 증가

[그림 33]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그림 34]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주요 경제정책]

■ **4.29(목) 정부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규제의 선제적 해소를 위한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

- 정부는 우선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개발·보급을 확대하여 민간중심의 보급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서비스분야에서는 4대 유망 서비스(물류, 돌봄, 의료, 웨어러블)와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로봇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
  - 주요 제조업(자동차·기계·전자·섬유·식음료 등) 대상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추가개발하고 6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제조로봇혁신지원단' 출범

  * 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식품연구원, 섬유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 개별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제조로봇 330대를 보급하고 로봇제조기업 또는 활용기업 대상 렌탈 서비스 및 금리우대 지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 사회 문제해결 중심으로 4대 서비스 분야 신규 기술개발에 107억원 투자

[2021년 신규 주요 기술개발 과제]

분야	주요내용	'21년예산
돌봄	감염환자 격리이송을 위한 사람추종형 반자율 침상 로봇 개발	8억원
	감염격리병동 내 간호보조 및 환자 모니터링 로봇 시스템 개발	9억원
	격리치료시설용 돌봄 로봇 개발	10억원
의료	상지1) 자가 재활이 가능한 경량 착용형 재활로봇 개발	11억원
물류	화물 상차2)작업을 위한 로봇 기반 상차 시스템 기술개발	9억원
	한국형 물류창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모바일 물류 핸들링 로봇 기술개발	30억원
통합	로봇 활용 서비스 BM구현을 위한 현장 적용형 로봇 시스템 개발	30억원

주: 1) 상지란 넓게는 상반신 전체를, 좁게는 어깨와 손목사이의 팔 부위를 의미
2) 상차란 분류된 화물을 배송하기 위해 차량 등에 적재하는 과정을 의미

- 또한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 개발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여 33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개혁할 예정

■ **4.29(목) 정부는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

- 20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빠른 증가세로 전환
  - 가계신용 증가율(%): 11.6('16), 8.1('17), 5.9('18), 4.1('19), 7.9('20)
  - 2020년 중 가계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2021년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 필요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19.4Q→20.4Q):
    95.2→102.8(한국), 74.7→78.8(미국), 84.0→91.4(영국), 60.9→68.0(프랑스)
- 정부는 ①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②차주 상환능력심사(DSR)* 전면도입, ③비은행권·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 ④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확대 검토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

*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①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 대)으로 복원

②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주: 1) 총 대출액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나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하고,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

③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

* 비주담대(토지·오피스텔·상가)에 대한 LTV 규제 도입방안
- 적용범위: 상호금융권(현재) → 금융권 전체(개선)
- 규제방식: 금융권 내규·행정지도(현재) → 감독규정 반영(개선)
- 적용한도: 최대 LTV 70%

④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

*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산출

III.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최근 미국 경제는 백신보급 확대와 적극적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모두 빠른 회복 흐름을 지속

■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4월 중 일시적으로 신규확진자수가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5월들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수(7일 이동평균, 만명): (3.16일)5.5→(4.7일)6.6→(4.16일)7.0→(4.30일)5.1→(5.9일)4.1
- 백신접종율은 5.10일 기준(미국 질병관리센터) 전체 인구대비 46%(1억5,282만 명)

■ **3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의 이상 한파 등에 따른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되었고,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반도체, 비철금속 등 일부 원료 및 부품에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며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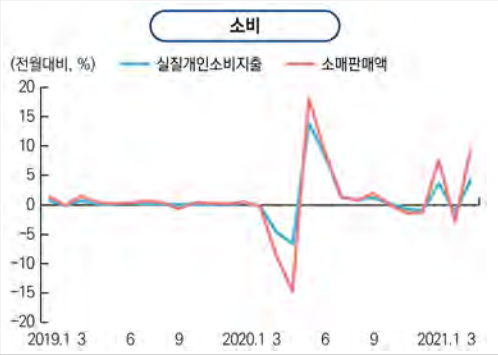
- 전산업생산(전월비, %): ('21.1월)0.9→(2월)-2.6→(3월)1.4
- 제조업생산(전월비, %): ('21.1월)1.3→(2월)-3.7→(3월)2.7
-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구매자지수(기준치=50)는 4월 중 60.7로 전월(64.7)에 비해 하락하였고, 비제조업구매자지수도 62.7로 전월(63.7)에 비해 소폭으로 하락

■ **3월 중 실질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코로나19 상황개선에 따른 소비활동 증가, 재난지원급 지급* 등에 따른 소득 효과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실질개인소비지출은 3월 중 전월대비 4.5% 증가하며 전월(-1.2%)의 감소에서 큰 폭으로 증가 전환되었고,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9.7% 증가하며 호조를 보임
-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소득 및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4월 중 121.7로 상승하며 전월(109.0)에 이어 4개월 연속 상승

* 지난 3.11일 통과된 1.9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호법안에 따라 재난지원금(인당 $1,400)과 실업수당(주당 $300) 지급

[그림 1] 미국의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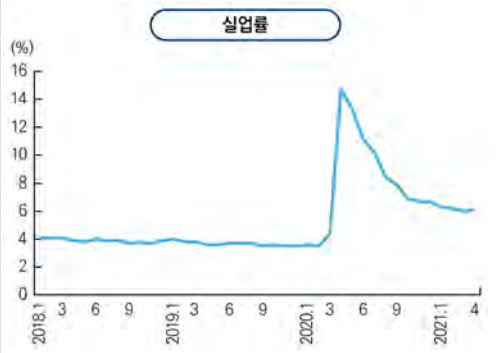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4월 중 노동시장은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업종의 생산차질 등으로 제조업에서 줄며 비농가취업자수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

- 4월 중 실업률은 6.1%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비농가취업자수는 제조업(-1.8만명)에서 줄며 전월(77.0만 명)보다 증가폭이 축소
- 실업률(%): ('21.2월)6.2→(3월)6.0→(4월)6.1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1.2월)53.6→(3월)77.0→(4월)26.6

[그림 2] 미국의 실업률과 비농가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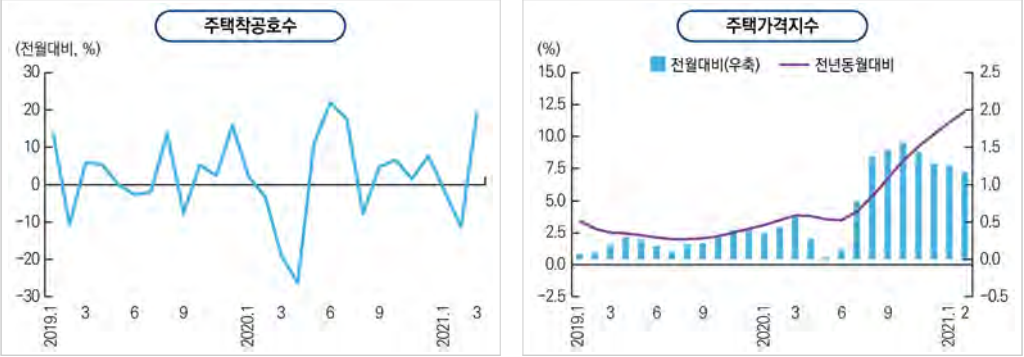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주택시장은 3월 중 주택착공호수가 전월의 이상 한파 영향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월 중 주택가격은 전월에 이어 견실한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

- 3월 중 주택착공호수는 전월 이상 한파 영향(전월대비 -11.3%)에서 벗어나 전월대비 19.4% 증가
- 2월 중 주택가격(S&P/Case-Shiller지수기준)은 낮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지속 등에 따른 주택경기호조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2%(전년동월대비 11.9%)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견실한 상승세가 지속

[그림 3] 미국의 주택착공호수 및 주택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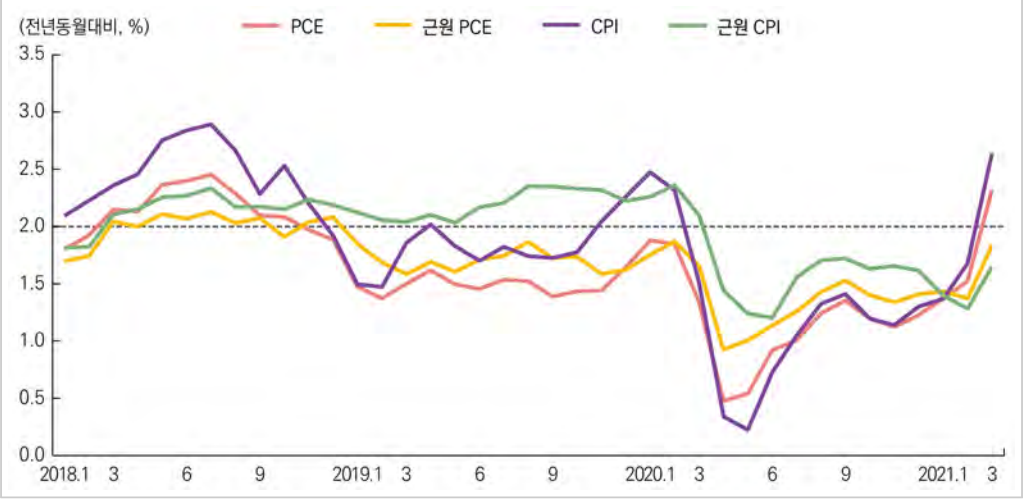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3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과 PCE물가상승률은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빠른 소비회복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4월 중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3%를 상회**

- 3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여 전월(1.7%)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확대 되었고, PCE물가는 재화(2.4%)와 서비스(2.3%)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2.3% 상승
- 근원물가는 근원소비자물가와 근원PCE물가가 각각 1.6%, 1.8% 상승하여 전월(각각 1.4%, 1.3%)에 비해 상승폭 확대되었으나 연준의 장기목표 수준인 2.0%를 하회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1.2월)3.3→(3월)3.1→(4월)3.4

[그림 4]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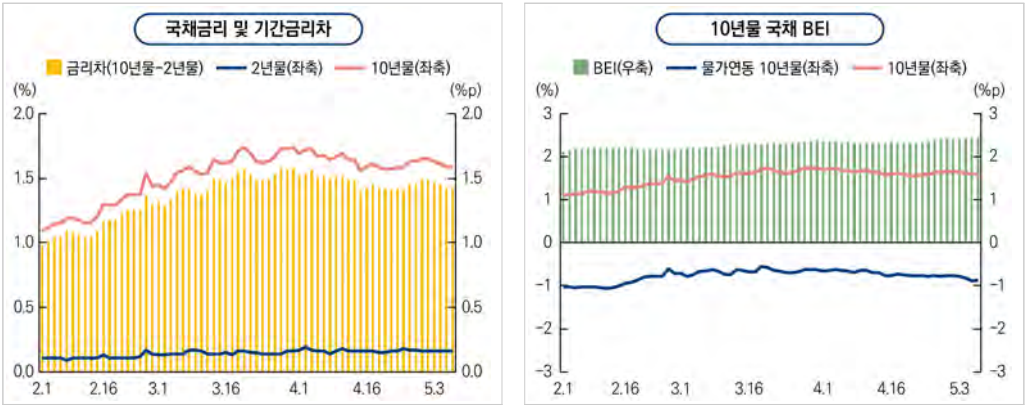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시장금리는 4월 중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확인과 코로나19 불확실성 재부각 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침**

- 장기금리(10년물 기준)는 4월 들어 월초 1.73% 상승하였으나, 중순 이후 인도 등 일부 신흥개도국과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고 미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확인되며 횡보하여 월평균 1.64%(전월대비 0.03%p 상승)를 기록
- 2년물 금리는 전월(0.15%)대비 0.01%p 상승하여 0.16%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10년물과의 기간금리차는 1.48%p로 전월보다 0.02%p 확대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21.2월)1.14→(3월)1.46→(4월)1.48
- 금융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BEI(break-even inflation rate)는 3월 중순까지 월평균 2.28% 수준이었으나, 4월 중에는 2.35%로 소폭 상승

[그림 5] 미국 기간금리차 및 10년물 국채 BEI[1]의 일별 추이



주: 1) BEI(break-even inflation rate) = 10년 일반국채금리 - 물가연동채권 10년물 금리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미국의 2021년 1/4분기 실질GDP(속보치)]

■ **미국의 2021년 1/4분기 실질GDP는 팬데믹 상황 개선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6.4%(전기비 연율 기준) 성장**

- 개인소비는 백신보급 등의 영향으로 민간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며 상품소비(23.6%)과 서비스소비(4.6%) 모두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10.7% 증가
- 민간투자는 비주택투자(9.9%)와 주택투자(10.8%)에서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빠른 경기회복에 따라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5.0% 감소
  - 재고투자의 실질GDP 성장률 기여도는 -2.6%p

- 대외거래는 수출은 1.1% 감소 전환되고 수입은 5.7% 증가하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1.5%p)에 이어 마이너스 기록(-0.9%p)
- 정부지출은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집행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 전환
  -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 -0.1%p에서 1.1%p로 증가

[주요 지출부문별 실질GDP 성장률]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성장률1)		2.2	-3.5	-5.0	-31.4	33.4	4.3	6.4
지출 항목별 성장률	개인소비	2.4	-3.9	-6.9	-33.2	41.0	2.3	10.7
	민간투자	1.7	-5.3	-9.0	-46.6	86.3	27.8	-5.0
	(비주택투자)	2.9	-4.0	-6.7	-27.2	22.9	13.1	9.9
	(주택투자)	-1.7	5.9	19.0	-35.6	63.0	36.6	10.8
	수출	-0.1	-13.0	-9.5	-64.4	59.6	22.3	-1.1
	수입	1.1	-9.3	-15.0	-54.1	93.1	29.8	5.7
	정부지출	2.3	1.1	1.3	2.5	-4.8	-0.8	6.3

자료: BEA

2. 중국

중국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속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21년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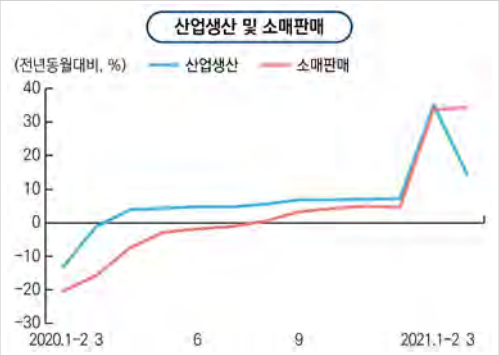
- 2021년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전년동기(-6.8%) 마이너스 성장률의 기저효과로 18.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부문별로는 숙박 및 식당(43.7%), 운송·창고·우편(32.1%), 제조업(26.8%), 도소매업(26.6%) 등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0.6%를 기록하며 전기(3.2%)대비 증가폭이 감소

■ **3월 산업생산은 제조업(15.2%)과 전기·가스·수도업(13.9%)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

■ **3월 소매판매는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외식업(91.6%)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4.2% 증가**

■ **3월 고정자산투자는 건설투자(32.1%)와 설비투자(15.0%)가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5.6% 증가**

[그림 6] 중국 실물지표 추이



자료: CEIC

자료: CEIC

■ **3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3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 외 품목의 물가가 0.7%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0.2%)의 감소에서 0.4% 증가 전환
- 3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중국 경기 회복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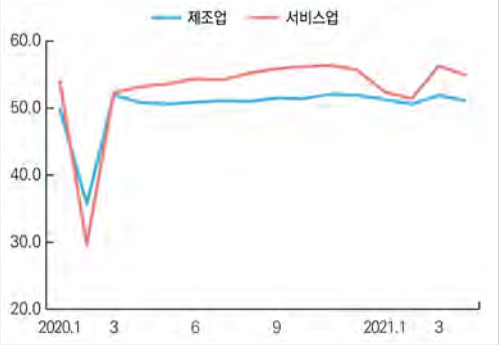
■ **4월 종합 PMI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컨테이너 운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하락**

- 4월 종합 PMI는 제조업(51.1)과 서비스업(54.9) 모두 전월보다 하락하며 53.8 기록
- 종합 PMI: ('21년 2월) 51.6 → (3월) 55.3 → (4월) 53.8

[그림 7]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8]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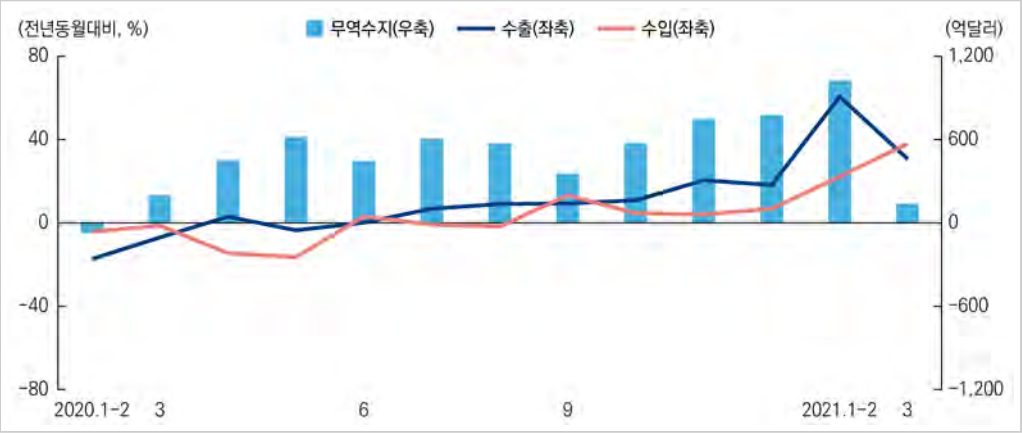
■ **3월 중국의 실업률(도시지역)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누적 신규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중국의 실업률(도시지역)은 5.3%로 전월(5.5%)대비 0.2%p, 전년동월(5.9%)대비 0.6%p 하락
- 3월 중국의 누적 신규취업자수(도시지역)는 29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

■ **3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국내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흑자를 기록**

- 3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0.6%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전년동월(199.7억 달러)보다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된 138.0억 달러 기록

[그림 9]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실물지표는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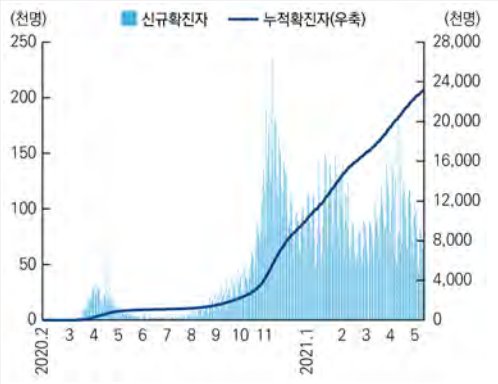
■ **유로지역의 2021년 1/4분기 GDP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봉쇄조치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2분기 연속 감소**

- 유로지역 GDP 성장률(전기대비, %): ('20.2/4)-11.6→(3/4)12.5→(4/4)-0.7→('21.1/4)-0.6
- 유로지역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0.2/4)-14.6→(3/4)-4.1→(4/4)-4.9→('21.1/4)-1.8
- 유로지역 국가별 1/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 %): 독일(-1.7), 스페인(-0.5), 이탈리아(-0.4), 프랑스(0.4)

[그림 10] 유로지역 GDP성장률 추이

자료: Eurostat

[그림 11] 유로지역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자료: Our World in Data, Oxford

■ **2월 중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0% 감소하여 전월의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함**

- 부문별로는 내구재(-1.1%), 자본재(-1.9%), 에너지(-1.2%), 중간재(-0.7%) 생산이 모두 감소
- 산업생산(전월대비, %): ('20.12월)-0.1→('21.1월)0.8→(2월)-1.0
- 국가별 산업생산(전월대비, %): 프랑스(-4.8), 독일(-1.8), 이탈리아(0.2), 스페인(0.0)

■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조치 연장 및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증가**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1.1월)-5.1→(2월)4.2→(3월)2.7
- 차량연료 판매는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과 비음식료품 판매(차량연료 제외)는 각각 1.0%, 4.6% 증가

* 독일은 2021년 3월말까지 기존 봉쇄조치를 연장, 프랑스는 3월부터 지역별 이동제한 조치 확대 실시, 이탈리아는 4월 6일까지 제한조치 연장

[그림 12]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3]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 **4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6% 상승**

-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4월 큰 폭 하락(-9.7%)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10.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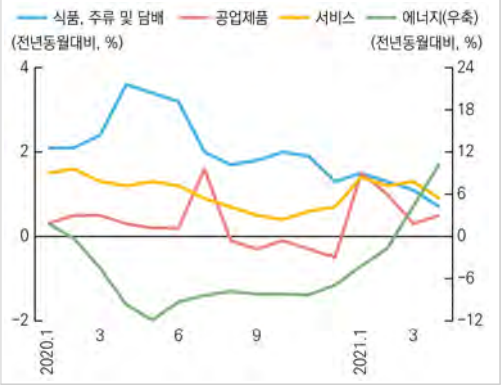
  * 브렌트 유가(달러/배럴): ('20.4월)23.3→('21.4월)64.8

- 반면, 식료품과 서비스물가는 각각 0.7%, 0.9%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세 둔화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서비스 물가가 둔화되면서 전월(0.9%)보다 낮은 0.8%를 나타냄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5] 유로지역 부문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유로지역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8월 중 정점(8.7%, 18.9%)을 기록한 후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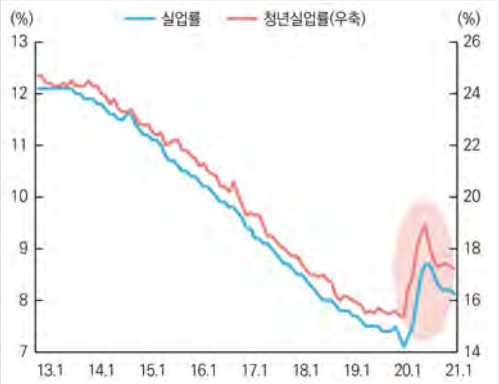
- 3월 중 유로지역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8.1%, 17.2%를 기록

■ **4월 소비자신뢰지수[1]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전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전월대비 2.7p 상승한 -8.1을 기록하여 2개월 연속 기준선(-11.1)을 상회**

- 주요국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대비 상승폭: 포르투갈(7.8p), 스페인(5.8p), 프랑스(2.3p), 이탈리아(1.4p), 독일(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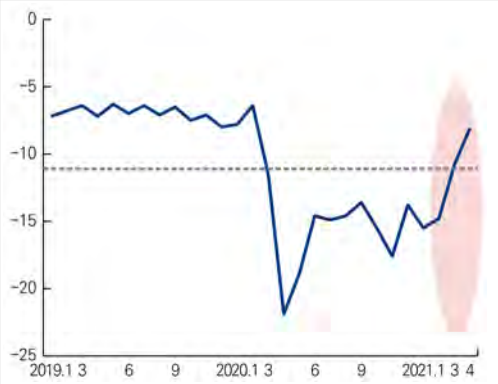
1)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으로 답변한 소비자의 비중 차이에 따라 산출됨.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등락폭이나 장기평균치와의 차이 등으로 판단

[그림 16]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7]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0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EU 집행위

■ **4월 중 유로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모두 상승하면서 종합 PMI는 전월에 비해 0.6p 상승한 53.8을 기록**

- 제조업 PMI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하며 63.3을 기록

  * 전월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독일의 제조업 PMI가 0.2p 하락하였으나, 오스트리아(64.7), 이탈리아(60.7) 등의 제조업 PMI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스페인(57.7)에서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 서비스업 PMI도 4개월 연속 상승하며 8개월만에 기준선(50)을 상회한 50.5를 기록

[그림 18]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9]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4. 일본

일본경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월에 비해 줄면서 생산과 소비, 수출에서 호조를 나타냈으나, 3월 이후 재확산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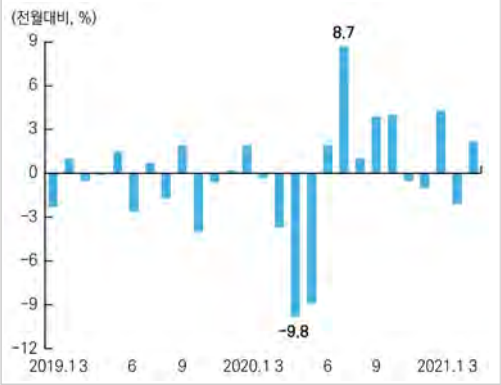
■ **3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공업(7.5%), 무기·유기화학공업(6.5%)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2.2% 증가**

- 출하(0.8%)와 재고(1.0%)가 모두 증가하였고 재고율은 0.8% 하락

■ **3월 중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6.1%, 5.8% 증가**

- 수출 품목 중 일반기계(18.7%), 전기기기(12.7%), 수송용기기(11.9%) 등에서 증가
- 수입은 화학제품(15.8%), 일반기계(15.5%) 등에서 증가
- 수출액은 7.3조엔으로 201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은 6.7조엔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 수준으로 회복
- 무역수지(억엔): ('21.1월)-3,253→(2월)2,158→(3월)6,621

[그림 20] 일본 광공업 생산증감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21]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재무성

■ **3월 중 소매판매액은 직물·의복(13.2%), 자동차(4.2%)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2% 증가**

- 한편, 3월 중 가계실질소비지출(주거비 및 자동차구입비 제외)은 교통·통신(16.8%), 교양오락(21.9%)에서 늘어 전월대비 5.6% 증가

■ **3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기요금(-7.1%), 자동차등관련비용(-0.6%)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 근원물가(신선식품과 에너지 제외)는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그림 22] 일본 가계실질소비지출과 소매판매 추이

자료: 총무성

[그림 23]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총무성

■ **3월 비농업취업자 수는 숙박·음식서비스(-40만명), 제조업(-14만명)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50만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2.6%로 전월(2.9%)에 비해 소폭 하락**

- 비농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45→(2월)-40→(3월)-50

■ **4월 중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49.9)에 비해 상승한 51.0을 나타냈으며 기준치인 50을 상회**

-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전월에 비해 상승하여 각각 53.6, 49.5을 나타냄
- 3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여명('21.5.9: 6,578명)에 이르는 등 재확산세가 심화
- 한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4월 25일 도쿄와 간사이 3개 지역(오사카, 교토, 효고)에 '3차 긴급사태[2)]'를 선포하였고, 이후 5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범위를 후쿠오카현, 아이치현 등 인근 지역으로 확대

[그림 24] 일본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총무성, 경제산업성

[그림 25]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2) '3차 긴급사태'의 주요 내용은 주류 제공업소 휴업(음식점 등 주류 판매 금지), 생필품 판매부문 외 백화점 등 휴업, 외출자제요청, 재택근무 70% 목표 등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 **2021년 5월 전세계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총량적으로는 전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가속화**

- 5월 19일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6,490만명이고, 일일 확진자 수는 약 67만명
  - 4월에 일일 약 8~90만명 수준을 보였던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명대로 줄어들었고,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드는 추세
  - 대륙별 백만명당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은 "남미 〉 유럽 〉 아시아 〉 북미 〉 오세아니아 〉 아프리카" 지역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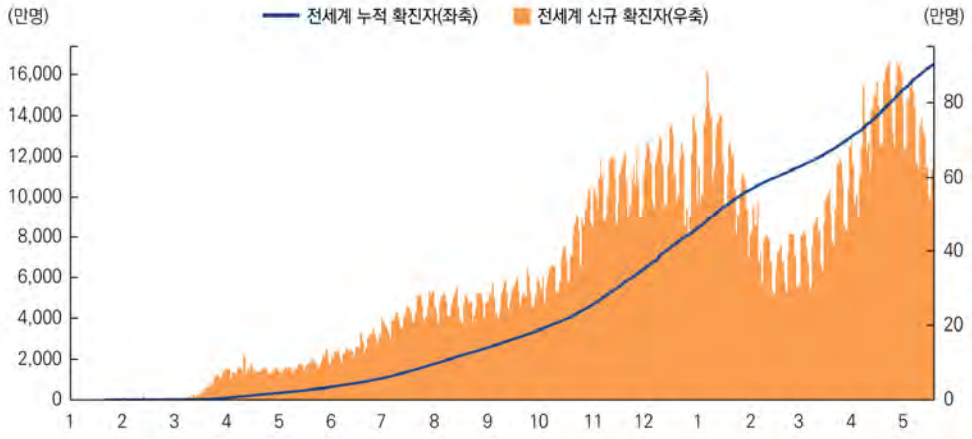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및 일일 확진자 현황(5.19. 현재)〉

(단위: 명)

구분	전세계	유럽	북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확진 (일일)	164,902,902	46,578,446	38,505,834	47,897,742	27,156,160	4,716,496	47,503
	671,092	89,586	44,661	364,239	162,198	9,971	437
백만명당 확진 (일일)	21,156	62,214	65,036	10,323	63,042	3,518	1,113
	86	120	75	79	377	7	10
사망 (일일)	3,417,682	1,057,692	866,791	624,928	739,930	127,244	1,082
	13,344	2,020	927	5,489	4,548	355	5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5.19.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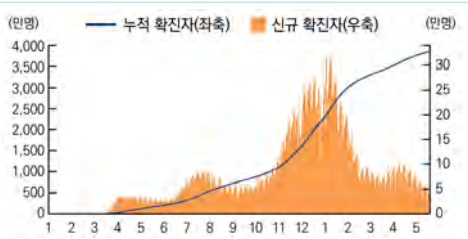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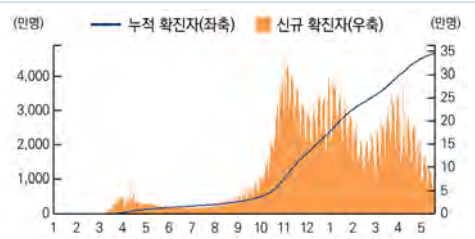
■ **대륙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유럽과 북미 지역의 확산세는 전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은 전월에 비해 확산세가 가속화**

- **(북미)** 북미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
- **(유럽)** 유럽은 5월 들어 빠른 속도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음
- **(아시아)** 인도에서의 확산에 의하여 백만명당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월의 2~30명 수준에서 벗어나 4월말부터 7~90명대 수준으로 높아짐
- **(남미)** 2월 이후 계속 가속되던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5월 초에 잠시 진정되었으나, 5월 중순부터 확산이 다시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작년 7~8월의 2차 확산이 진정된 이후 금년 5월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어 안정적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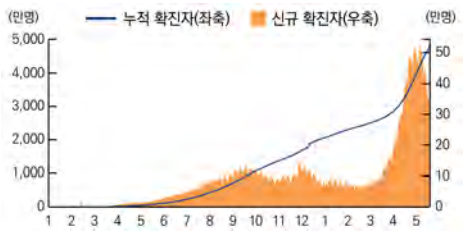
[북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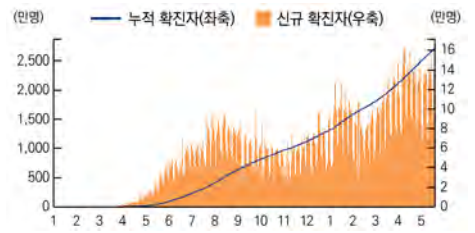
〈유럽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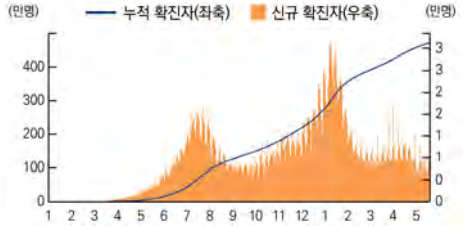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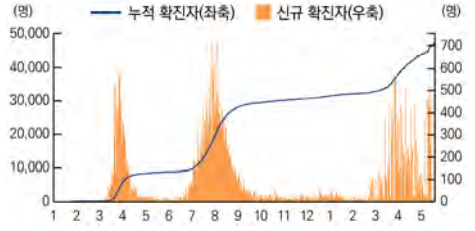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현황(5.19. 기준)]

순위	국가	누적 확진자 (명)	신규 확진자 (명)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 (명)	누적 사망자 (명)	사망률 (%)
1	미국	33,026,624	29,293	99,777.5	587,874	1.8
2	인도	25,772,440	276,110	18,675.6	287,122	1.1
3	브라질	15,812,055	79,219	74,388.9	441,691	2.8
4	프랑스	5,978,650	19,057	88,488.4	108,342	1.8
5	터키	5,151,038	11,553	61,075.3	45,419	0.9
6	러시아	4,908,794	7,799	33,637.0	115,003	2.3
7	영국	4,468,366	2,146	65,821.6	127,956	2.9
8	이탈리아	4,172,525	5,500	69,010.9	124,646	3.0
9	독일	3,627,777	11,881	43,299.2	86,908	2.4
10	스페인	3,625,928	6,080	77,552.0	79,568	2.2
11	아르헨티나	3,411,160	39,652	75,475.2	72,265	2.1
12	콜롬비아	3,161,126	16,579	62,125.5	82,743	2.6
13	폴란드	2,859,261	2,337	75,548.7	72,250	2.5
14	이란	2,792,204	12,789	33,243.3	77,765	2.8
15	멕시코	2,387,512	2,000	18,517.5	220,850	9.3
16	우크라이나	2,222,115	5,259	50,810.1	50,658	2.3
17	페루	1,903,615	10,281	57,734.6	67,034	3.5
18	인도네시아	1,753,101	4,871	6,409.3	48,669	2.8
19	체코	1,655,414	1,195	154,581.8	29,948	1.8
20	네덜란드	1,637,940	4,584	95,591.0	17,758	1.1
21	남아공	1,621,362	3,522	27,337.7	55,507	3.4
22	캐나다	1,350,897	4,814	35,792.8	25,050	1.9
23	칠레	1,300,629	4,767	68,038.0	27,997	2.2
24	필리핀	1,159,071	4,683	10,577.3	19,507	1.7
25	이라크	1,151,557	4,609	28,629.7	16,069	1.4
26	루마니아	1,073,679	707	55,811.2	29,716	2.8
27	스웨덴	1,051,762	4,619	104,142.4	14,349	1.4
28	벨기에	1,038,514	3,800	89,607.3	24,768	2.4
29	파키스탄	890,391	4,207	4,030.9	19,987	2.2
30	포르투갈	843,278	511	82,701.0	17,013	2.0
31	이스라엘	839,221	54	96,957.7	6,395	0.8
32	헝가리	799,588	633	82,770.1	29,329	3.7
33	방글라데시	783,737	1,608	4,758.9	12,248	1.6
34	요르단	726,432	(미집계)	71,196.9	9,295	1.3
35	세르비아	708,328	609	104,095.5	6,725	0.9
36	일본	699,931	5,854	5,534.1	11,900	1.7
37	스위스	684,954	1,554	79,143.2	10,756	1.6
38	오스트리아	639,054	899	70,955.5	10,508	1.6
39	아랍에미리트	550,029	1,348	55,612.4	1,639	0.3
40	레바논	537,043	489	78,682.5	7,651	1.4
84	대한민국	134,117	646	2,615.9	1,916	1.4

주: 국가별 순위는 누적 확진자 수 기준

[주요 경제정책]

■ **4.29(목) 정부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규제의 선제적 해소를 위한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

- 정부는 우선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개발·보급을 확대하여 민간중심의 보급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서비스분야에서는 4대 유망 서비스(물류, 돌봄, 의료, 웨어러블)와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로봇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
  - 주요 제조업(자동차·기계·전자·섬유·식음료 등) 대상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추가개발하고 6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제조로봇혁신지원단' 출범

  * 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식품연구원, 섬유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 개별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제조로봇 330대를 보급하고 로봇제조기업 또는 활용기업 대상 렌탈 서비스 및 금리우대 지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 사회 문제해결 중심으로 4대 서비스 분야 신규 기술개발에 107억원 투자

[2021년 신규 주요 기술개발 과제]

분야	주요내용	'21년예산
돌봄	감염환자 격리이송을 위한 사람추종형 반자율 침상 로봇 개발	8억원
	감염격리병동 내 간호보조 및 환자 모니터링 로봇 시스템 개발	9억원
	격리치료시설용 돌봄 로봇 개발	10억원
의료	상지1) 자가 재활이 가능한 경량 착용형 재활로봇 개발	11억원
물류	화물 상차2)작업을 위한 로봇 기반 상차 시스템 기술개발	9억원
	한국형 물류창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모바일 물류 핸들링 로봇 기술개발	30억원
통합	로봇 활용 서비스 BM구현을 위한 현장 적용형 로봇 시스템 개발	30억원

주: 1) 상지란 넓게는 상반신 전체를, 좁게는 어깨와 손목사이의 팔 부위를 의미
2) 상차란 분류된 화물을 배송하기 위해 차량 등에 적재하는 과정을 의미

- 또한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 개발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여 33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개혁할 예정

■ **4.29(목) 정부는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 20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빠른 증가세로 전환
  - 가계신용 증가율(%): 11.6('16), 8.1('17), 5.9('18), 4.1('19), 7.9('20)

- 2020년 중 가계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2021년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19.4Q→20.4Q):
  95.2→102.8(한국), 74.7→78.8(미국), 84.0→91.4(영국), 60.9→68.0(프랑스)

• 정부는 ①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②차주 상환능력심사(DSR)* 전면도입, ③비은행권·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 ④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확대 검토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

*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①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 대)으로 복원

②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주: 1) 총 대출액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나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하고,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

③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

* 비주담대(토지·오피스텔·상가)에 대한 LTV 규제 도입방안

- 적용범위: 상호금융권(현재) → 금융권 전체(개선)
- 규제방식: 금융권 내규·행정지도(현재) → 감독규정 반영(개선)
- 적용한도: 최대 LTV 70%

④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

*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산출

PART 2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현안

Ⅰ.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추이와 시사점 ····· 82

Ⅱ. 최근 민간소비의 특징과 전망 ····· 88

Ⅲ. 중점전략기술의 기술수준 국제 비교와 시사점 ····· 95

Ⅳ. 코로나19의 확산이 인구 이동성에 미친 영향 ····· 102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추이와 시사점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조은영** 경제분석관(6788-4680)

1.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코로나19 정책대응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주요국의 유동성(M3) 증가율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전년동기대비 27.0%), 영국(12.3%), 유로지역(11.6%), 일본(8.1%), 캐나다(12.0%), 한국(8.4%)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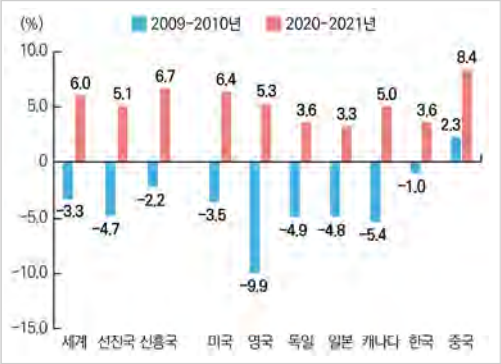
■ **IMF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은 2021년 6.0%로 전년 대비 9.3%p 상승할 전망**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3.6%로 전년 대비 4.6%p 상승할 전망

■ **2021년 경제성장률의 변동폭[1]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보면,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변동폭이 크게 나타남**

- 영국(8.4배), 캐나다(4.9배), 미국(4.4배)의 경우 경기변동폭이 큰 반면, 한국(1.6배), 중국(0.8배)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변동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1년 4월)

[그림 2] 경제성장률의 변동폭 비교

주: 경제성장률 변동폭은 경제성장률 차이를 평균경제성장률로 나눈 값
자료: IMF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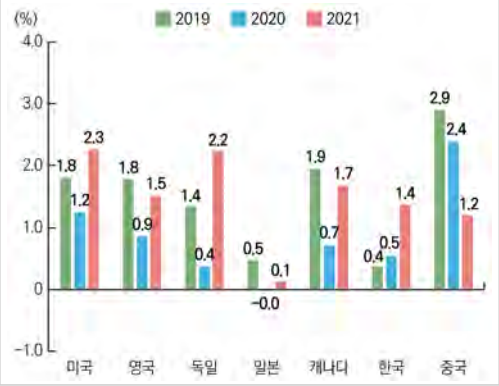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를 참조하여 작성함.

1) 기간별 평균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고려하여 2020~2021년 경제성장률 변동폭은 2020년과 2021년 경제성장률 차이를 2011~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로 나누어 산출. 2009~2010년의 경제성장률 변동폭은 2009년과 2010년 경제성장률 차이를 1999~2007년 평균 경제성장률로 나누어 산출.

■ **뿐만 아니라 원유 및 원자재,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IMF는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미국 2.3%(전년대비 1.2%p), 영국 1.5% (0.6%p), 독일 2.2%(1.8%p), 캐나다 1.7%(1.0%p), 한국 1.4%(0.9%p)로 전망

[그림 3]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IMF Economic Outlook(2021년 4월)

[그림 4]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편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21년 4월 28일 미 연준은 최근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현 정책금리(0.00~0.25%)를 유지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이어갈 계획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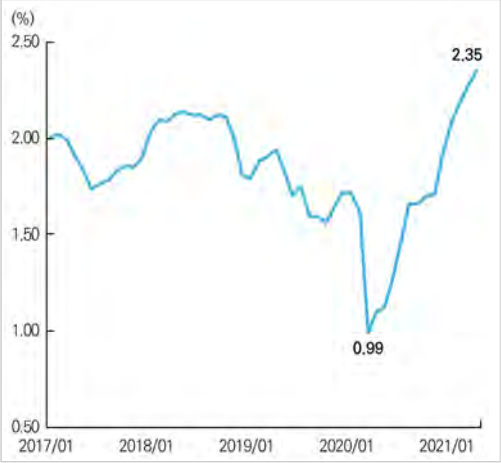
-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breakeven inflation rate, BEI)[2]은 2020년 3월 0.99%에서 2021년 4월 2.35%로 1.36%p 증가

■ **유로지역의 정책금리가 0.0%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2월 1.3%에서 5월 2.3%로 1.0%p 상승**

■ **한국의 기준금리가 0.5%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6월 1.6%에서 2021년 4월 2.1%로 0.5%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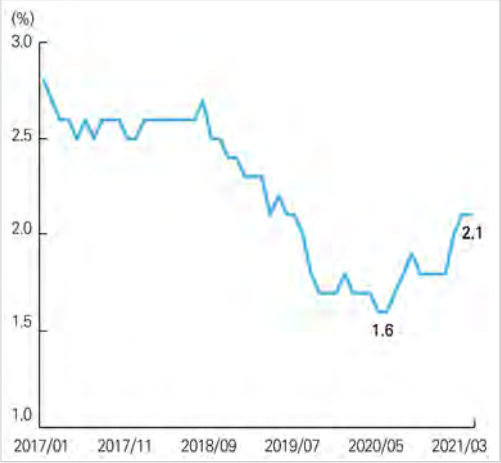
2) 미국의 일반 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간 수익률 차이를 의미하며, 연방준비제도와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임

[그림 5]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자료: FRED

[그림 6] 한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명목 임금과 상품 및 서비스의 명목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물가상승을 재유발하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wage-price spiral)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명목물가 상승이 명목임금 상승을 상회할 경우 실질임금을 하락시켜 실질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명목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상승시켜 설비투자 위축을 유발할 수 있음
- 국내 물가상승이 해외에 비해 높을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주식·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와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

■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예금이나 채권 보다 주식,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실질기준금리는 2019년 4월 -0.4%에서 2021년 3월 -1.6%로 1.2%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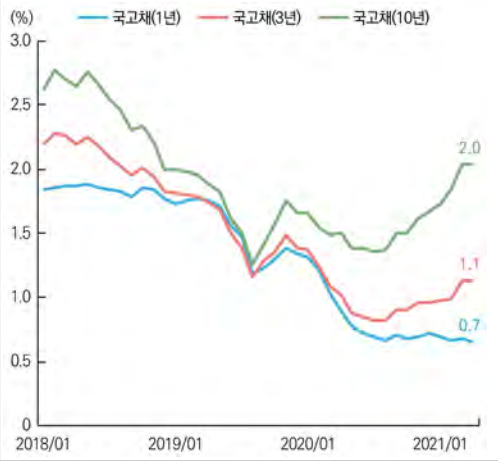
■ **한편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채권의 기대수익률을 하락시켜 채권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실질 차입 비용을 떨어뜨려 채권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채권가격을 하락(이자율을 상승)시킴**

- 국고채(10년물) 금리는 2019년 3월 1.3%에서 2021년 4월 2.0%로 0.7%p 상승

[그림 7] 실질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8]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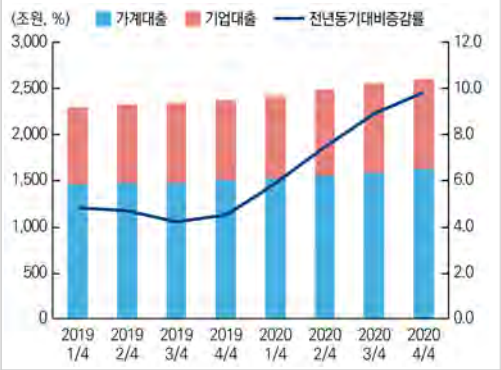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리상승은 대출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 **저금리 상황 속에서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잔액은 2020년 기준 약 2,606조원(GDP 대비 137.3%)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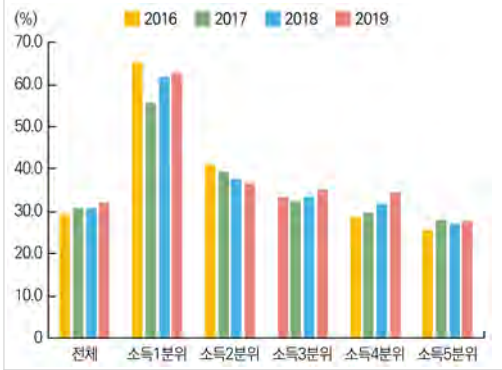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채보유가구(전체 가구의 약 64%)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상환 비중이 평균 30%를 초과하고 소득 1분위의 경우 60%를 상회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취약차주가구를 중심으로 이자상환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그림 9]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0] 소득분위별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상환 비중 추이



주: 부채보유 비중은 1분위 7%, 2분위 12%, 3분위 14%, 4분위 15%, 5분위 16%에 해당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 **201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장금리와 설비투자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국고채(1년물) -0.66, 회사채(장외3년, AA등급) -0.41, 국고채(10년물) -0.18 순으로 설비투자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한편 금리상승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하방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최근 저금리 등으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보임**

- KOSPI는 기준금리가 0.5%로 유지되는 2020년 5월 이후 월평균 4.2%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저금리(2.0%)를 유지했던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평균 증가율(3.0%)을 상회
- 주택가격지수는 기준금리가 0.5%로 유지되는 2020년 5월 이후 월평균 0.6%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저금리(2.0%)를 유지했던 기간의 월평균 증가율(0.2%)을 상회

■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와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준금리가 2010년 6월 2.0%에서 2011년 6월 3.25%로 인상된 가운데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로 주가(KOSPI)는 2011년 4월 2,192에서 2011년 9월 1,770으로 약 20% 하락
- 주택가격지수의 전월대비증감률은 수급불일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으로 2011년 4월 1.1%에서 2012년 7월 -0.3%로 하락[3)4)]

3) 박상우, "주택시장 변동과 정부의 역할," 「주택금융월보」 제99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12.10, 4~19쪽.
4) 주택가격 상승의 정점이었던 2006년 거래량은 수도권만 약 70만 건이었으나 2012년 약27만 건으로 감소. 그 당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과천(△23.2), 분당(△18.3), 용인(△17.3), 송파(△11.3), 강남(△9.3) 등에서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약 두 자리의 감소세를 보임

[그림 11] 기준금리와 주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기준금리와 주택가격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3. 시사점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음

■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실현될 경우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이는 경제주체들의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며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한편,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가격조정의 급변동을 초래할 가능성**

물가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조치가 필요

■ **올해 경기반등이 나타나는 경우 점진적인 자산매입 축소와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음**

- 캐나다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고용시장의 회복, 최근 빠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자산매입 축소(tapering)를 2021년 4월 말부터 실시하고 기준금리의 인상시기도 2023년에서 2022년 하반기로 앞당길 계획

■ **이럴 경우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금리인상 시 예상되는 가계와 기업의 부실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가계와 기업은 부채비율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

Ⅱ. 최근 민간소비의 특징과 전망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오현희** 경제분석관(6788-4657)

1. 민간소비 부진 완화

20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1.2%)보다 0.4%p 상승한 1.6%를 기록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전환으로 내수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지며 실질GDP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

- 실질 GDP성장률에 대한 설비투자 기여도가 전분기 -0.2%p에서 0.6%p로, 민간소비 기여도는 전분기 -0.7%p에서 0.5%p로 상승 전환

특히 민간소비는 지난해 큰 폭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

■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1.1%(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며 지난해 4/4분기 부진(-1.5%)에서 벗어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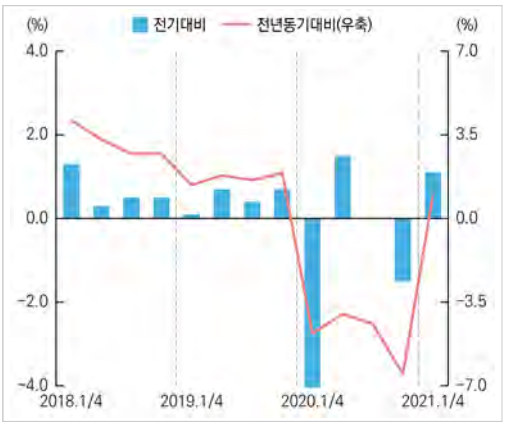
- 2020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대비 4.9% 감소

■ **국내 소매업체에서 거래된 판매액을 조사해 민간의 소비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지수도 증가 전환**

- 1/4분기 소매판매지수는 전기대비 1.7%(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여 2020년 0.2% 감소에서 증가 전환
- 유형별로는 준내구재 판매 증가율이 전기대비 3.0%로 가장 높았으며, 내구재(2.3%), 비내구재(0.9%)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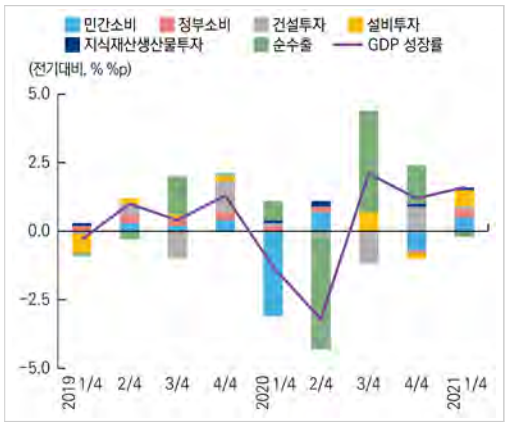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조사, 산업활동동향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그림 1]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지출부문별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대면활동 관련 소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던 준내구재와 대면서비스 소비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

■ **준내구재 판매는 온화한 날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에 힘입어 의복, 신발 및 가방 등 외출 관련 상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2월과 3월 중 각각 전월대비 9.8%, 9.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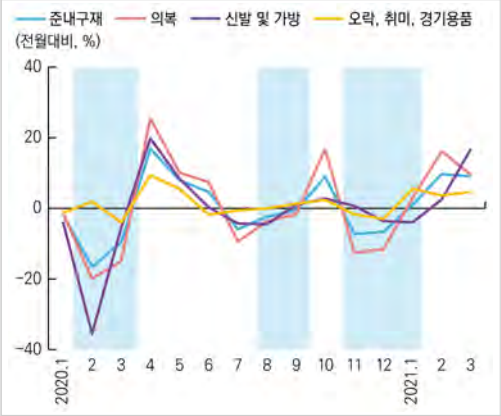
- 의복,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출이 제한되었던 코로나19 확산시기에 감소[1)]

■ **대면서비스 생산도 2월과 3월 각각 전월대비 4.3%, 2.9% 증가하였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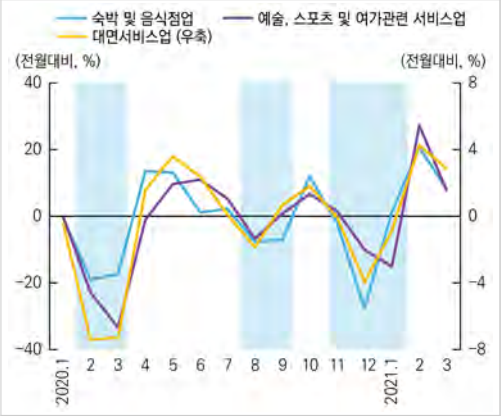
- 대면서비스업도 준내구재와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영업제한 조치 등이 시행되는 시점에 감소
- 2021년 3월 중 대면서비스 생산 증가율(전월대비, %): 숙박 및 음식점업(8.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6), 운수 및 창고업(5.8)

1)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과 3월 각각 전월대비 16.7%, 9.7% 감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 대해 2.5단계를 시행한 8월과 9월 각각 2.4%, 0.6% 감소,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11월과 12월 각각 7.3%, 6.8% 감소

[그림 3] 준내구재 판매 추이



[그림 4] 대면서비스 생산 추이



주: 1) 음영부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시기로 2020년 2~3월, 8~9월, 2020년 11월~2021년 1월
2)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합산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소비자의 대면소비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2]에 대한 신용카드 승인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

- 3월 중 관련 업종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실적은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한 61조 5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 58조 7,800억원) 수준을 상회

특히 최근의 의류, 잡화 등 준내구재 판매 확대로 백화점을 통한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

■ **봄철 할인행사, 외출 확대 등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백화점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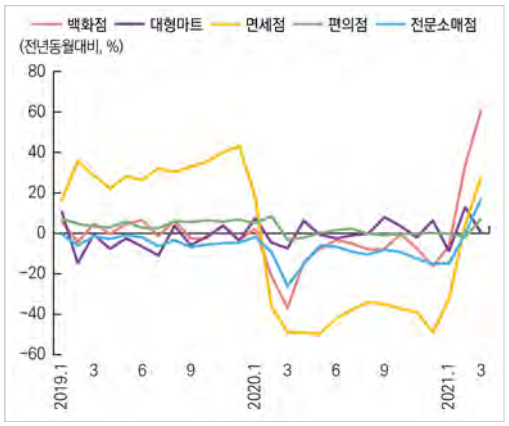
- 2021년 3월 중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이 중 백화점이 77.6% 증가하며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신장을 이끄는 모습[3]
- 2월과 3월 중 백화점의 소매판매액지수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33.5%, 61.0% 증가하여 199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세

■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회복세를 보임**

- 백화점의 2019년 12월(코로나19 확산 이전, 100 기준) 대비 2021년 3월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07.3으로 오프라인 업체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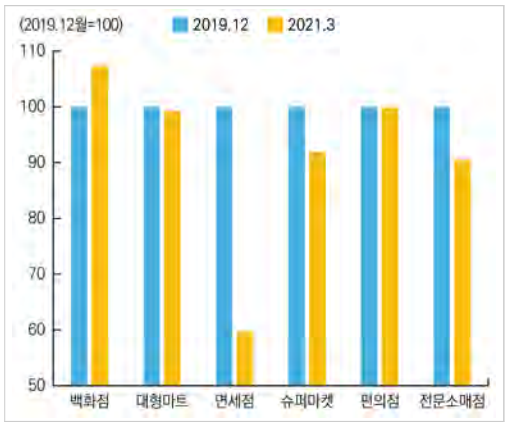
2)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료: 여신금융협회)
3) "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1.4

[그림 5] 업태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6] 업태별 코로나19 전후 소매판매 비교



주: 계절조정 기준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상품군은 패션, 잡화, 명품 등 기호품 및 사치품으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욕구가 회복되는 모습**

- 2021년 3월 품목별 매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아동·스포츠(109.8), 해외유명브랜드(89.0), 여성캐주얼(84.5), 남성의류(78.2), 식품(54.9)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대면소비 및 해외소비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가계의 저축증가도 백신접종 개시 및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이연된 소비를 증가시킨 요인
- 가계 흑자율 추이(%): ('19.1/4분기)25.0→(3/4분기)27.7→('20.1/4분기)32.9→(2/4분기)32.3→(3/4분기)30.9→(4/4분기)30.4

■ **3월 중 백화점 매출 증가는 구매단가의 상승보다는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들이 차츰 오프라인 소비활동을 재개하는 모습**

- 3월 중 백화점의 1인당 구매단가는 10만 8,876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하였으나, 구매건수는 67.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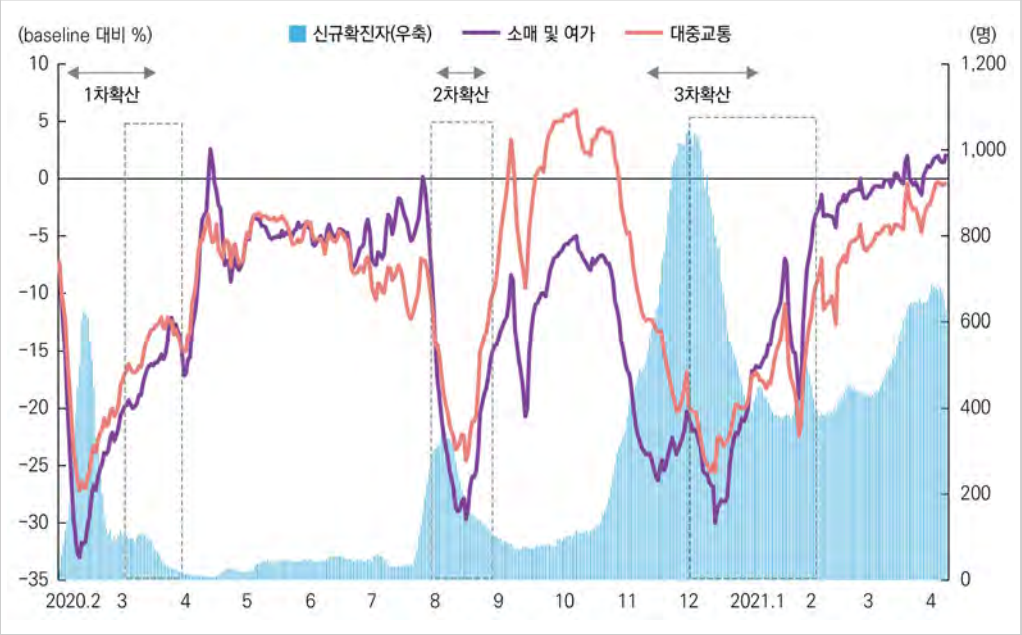
2월 중순부터 거리두기 단계 완화, 영업제한 완화 조치 등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대면활동과 관련된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를 나타내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나 장기간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이동량이 증가**

■ **구글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의 소매 및 여가(retail and recreation) 이동량은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

- 전염병 확산기간 중 소매 및 여가, 대중교통 관련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1차 확산과 2차 확산 이후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2차 확산과 3차 확산이 시작되는 양상
-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확산은 1~2차에 비해 장기화되는 양상으로 방역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2월부터 시작된 백신접종 개시에 따른 기대감 등이 높아지면서 이동량이 증가하는 모습

[그림 7] 구글 이동성 지수 추이



주: 1) Baseline은 2020년 1월 3일~2월 6일 기준
2) 신규확진자, 이동성지수 모두 7일 이동평균
3) 1차 확산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2~3월, 2차 확산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 대해 2.5단계를 시행한 8~9월, 3차 확산은 11월 19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차 유행이 꺾인 것으로 판단한 2021년 1월 10일까지
4) 점선은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 대해 2.5단계를 시행한 기간,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12월 8일부터 2단계로 완화한 2021년 2월 15일까지

자료: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Index, Our World in Data, 국회예산정책처

3. 재화소비 중심의 민간소비 개선 전망

2021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약되었던 소비가 점차 회복되면서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 백신접종 개시에 따른 기대감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이연되었던 소비가 서서히 재개되는 모습**

- 2월 중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4]되고 이동량이 늘어나는 등 소비회복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
- 최근의 백화점 방문객 증가와 사치품 및 기호품 판매 확대는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반영

■ **백신접종 등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면 2021년 하반기 중 소비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

- 국내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 및 소득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재화소비는 의복, 잡화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지난해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된 데 비해 외부활동 감소로 판매가 위축되었던 준내구재 소비 회복이 2021년 민간소비를 주도할 전망**

- 2020년 중 내구재 소비는 정책적 요인[5]과 비대면 활성화에 따른 수요증대 등에 힘입어 11.5%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10.2% 감소

다만, 여전히 부진한 대면서비스 소비의 회복 여부에 따라 민간소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재화소비는 내구재판매 등을 중심으로 2020년 2/4분기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모습이나, 서비스소비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

-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시 생산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을 지속
- 2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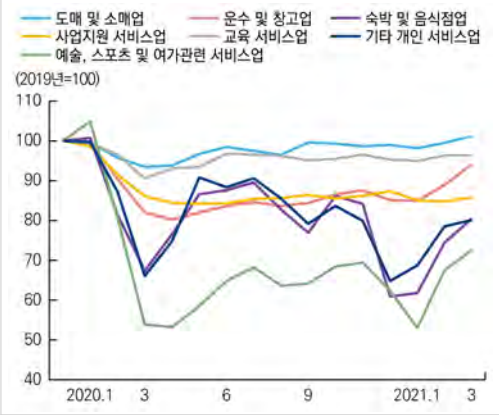
4)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2020년 12월 7.8p 하락한 후 4개월 연속 상승하여 4월 중 102.2를 기록
5)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정책

■ 대면서비스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영업제한 강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국내 신규 확진자수 둔화 및 백신보급 확대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8] 재화 및 서비스 소비지출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9] 주요 대면서비스 업종[6]의 생산지수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6) 기타개인서비스업은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그 외 기타개인서비스업(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 그 외 분류 안 된 개인 서비스업)이며, 사업지원서비스업은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경비·경호 및 보안시스템,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III. 중점전략기술의 기술수준 국제 비교와 시사점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허가형** 경제분석관(6788-4678)

1. R&D투자와 국가 중점전략기술

세계적인 기술경쟁하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대국의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R&D투자가 필요

■ **2018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R&D투자 비중은 4.81%로 세계1위이지만[1], R&D투자 총액은 779억$로 세계 5위**

- 2018년 기준 미국의 국가 총 R&D투자액(공공+민간)은 우리나라의 7.5배이며 중국은 3.8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R&D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중점전략기술 설정이 중요하며, 민간의 자율·창의 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

- R&D투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 GDP상승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

[표 1]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미국	EU	(주요국)	중국	일본	한국
총 연구개발비 규모	581,553	396,130*	(독) 123,609 (프) 61,136 (영) 49,460	297,431	162,278	77,900

주: 2018년 기준 EU 회원국 총 연구개발비 합(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몰타 제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2021

정부는 전략투자를 통해 5대 주력 산업분야의 22대 전략기술을 육성하여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증가를 목표로 설정

■ **5대 주력 산업분야 중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 중 10대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여 실용화 가능한 기술에 집중**

※ 본 보고서는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시계열 국제비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8개년 동안의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와 OECD 통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1) 2019년 우리나라의 R&D 총액은 764억 달러였으며, GDP대비 R&D 비중은 4.64%로 이스라엘(4.94%)에 이어 2위로 다소 낮아짐

[표 2] 10대 유망 신산업

전략투자분야	자율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디지털헬스케어
유망신산업	①자율주행 패키징	②MaaS 서비스	③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④고청정LNG선박	⑤모바일 헬스케어

전략투자분야	맞춤형 진단·치료	스마트홈	서비스 로봇	수소생산	차세대반도체
유망신산업	⑥개인맞춤형 정밀의료	⑦인공지능 홈 서비스	⑧인간공존형 물류로봇	⑨청정수소생산	⑩AI 반도체 산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산업기술 미래포럼」, 2021.4

2. 주요 산업의 기술수준 평가

중장기 R&D투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을 주요국의 수준과 비교

■ **정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년마다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시행**

- 11대 분야는 ① 건설·교통, ② 재난안전, ③ 우주·항공·해양, ④ 국방, ⑤ 기계·제조, ⑥ 소재·나노, ⑦ 농림수산·식품, ⑧ 생명·보건의료, ⑨ 에너지·자원, ⑩ 환경·기상 ⑪ ICT·SW

■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 미국, EU, 일본, 중국 대비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를 평가**

- 전문가(1,200명) 대상 2라운드 델파이조사※와 논문·특허 활동을 이용

※ 델파이조사 : 델파이조사는 1차 설문 조사 후 동일 문항에 대하여 2차 설문 조사(1차 평가 결과 및 의견 공유)를 실시하여 최종 값 도출하는 심층 설문 조사방법론

2020년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80.1%이며, 2018년 대비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줄어들었으나, 중국 대비 기술우위 차이도 축소

■ **2018년 대비 기술수준은 미국대비 3.2%p, 기술격차는 0.5년 단축**

■ **하지만, 중국(80.0)이 대부분 분야에서 우리나라(80.1)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여 근소한 우위에 그침**

- 미국 대비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수준은 각각 80.1%와 80.0%이며 기술격차는 3.3년으로 동일

[표 3]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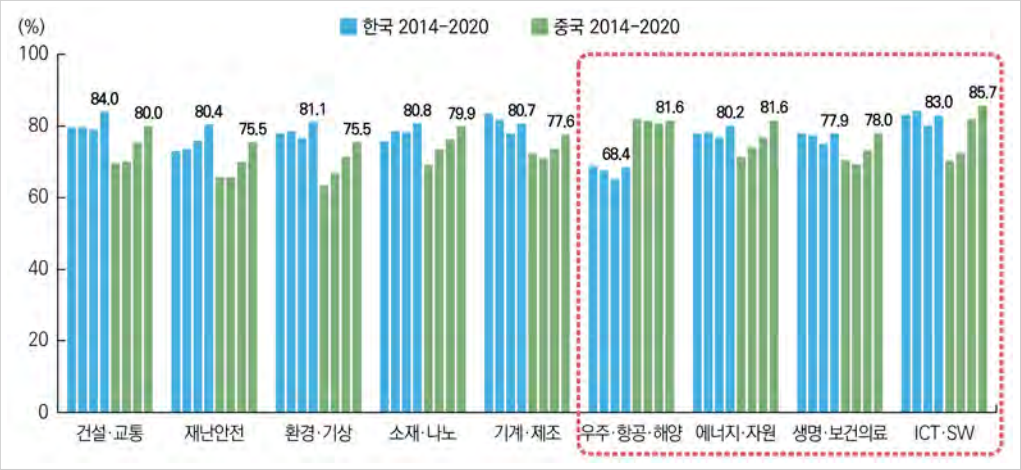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0	0.7	0.7	0.0	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수준평가」, 2021.3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을 중국, 일본, EU, 미국과 비교 시, 5개 분야는 최하위이며, 6개 분야는 차하위

- **11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84.0%)이나, 미국과 EU 뿐 아니라 일본(89.1%)에도 미치지 못함**
-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ICT·SW분야 기술수준도 중국에 추월당함**
- **우주·항공·해양과 국방분야에서 중국 대비 기술열위도 유지됨**
- **2014년 이후 분야별 기술수준을 중국과 비교한 결과 ICT·SW분야/에너지·자원/생명·보건의료/소재·나노/환경·기상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성장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ICT·SW분야는 2018년에 중국에 비교열위로 추월당했고, 생명·보건의료/에너지·자원 분야는 2020년에 추월당함

[그림 1] 한국과 중국의 분야별 기술수준 비교(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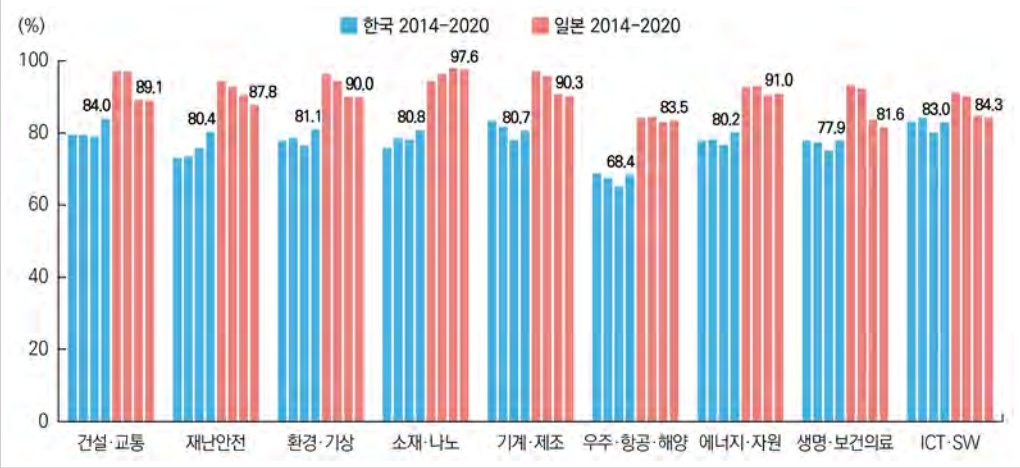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수준평가결과 2014, 2016, 2018, 2020

■ **일본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소재·나노 분야를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낮아졌으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기술우위를 유지**

- 일본의 소재·나노분야는 꾸준히 높은 기술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분야별 기술수준 비교(2014~202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수준평가결과 2014, 2016, 2018, 2020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보면, 2018년 대비 기술수준이 상승한 항목은 83개이며 하락한 항목은 17개

■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하여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96%)'이며, 기술수준이 90% 이상인 항목은 7개**

■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기술(55.5%)'이며, 기술수준이 70% 이하인 항목은 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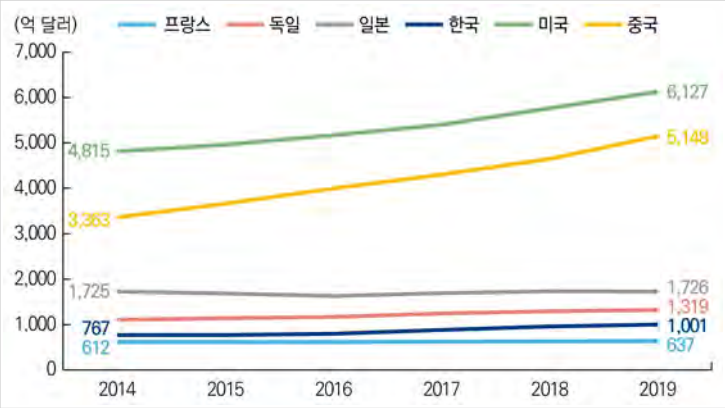
3. 기술수준과 R&D투자 규모의 비교

OECD통계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비를 비교한 결과 중국의 연구개발투자비 증가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정부와 민간부문 전체의 연구개발투자비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6.1배이며, 2014년 이후 증가율은 53.1%로 연구개발 투자비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우리나라를 크게 상회**

- 2014~2019년 우리나라의 R&D 투자비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GDP 증가율을 상회하지만, 연구개발투자비 규모가 큰 중국과 미국의 증가율이 각각 8.9%와 4.9%로 높은 수준으로 총 투자규모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3] 연구개발투자비 증가율



R&D투자비 증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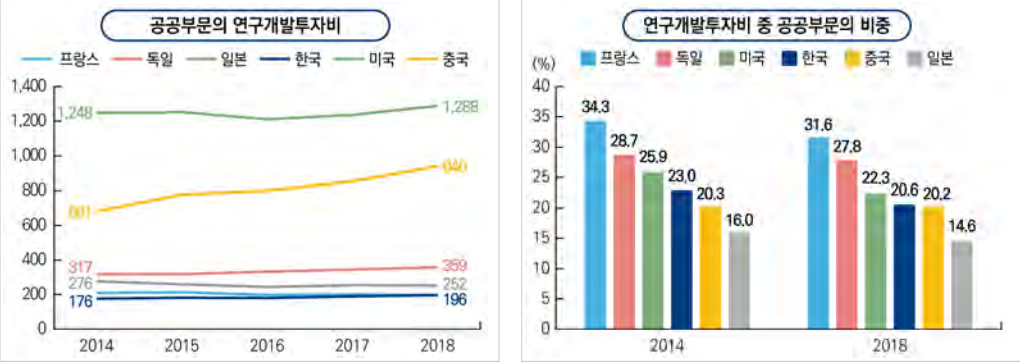
Year	R&D투자비증가율
중국	8.9
한국	5.5
미국	4.9
독일	3.7
프랑스	0.8
일본	0.0

자료: OECD statistics (접속일 : 2021.5.11.)

■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비는 2014~2018년 동안 중국은 38%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11.4% 증가**

- 2018년 총 연구개발투자비 중 공공부문의 비중을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프랑스가 31.6%로 가장 높으며 독일 27.8%, 미국 22.3%, 한국 20.6% 순

[그림 4]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비와 총 투자비 중 비중



자료: OECD statistics,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by sector of performance and source of funds, (접속일 : 2021.5.11.)

2014년 이후 국가R&D와 국가전략기술R&D 재정지출은 국가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R&D지출의 비중은 감소세로 나타남

■ **2019년 결산기준 국가R&D는 총지출의 4.2%로 2014년의 5.1% 대비 0.8%p 하락**

- 2014~2019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87%이나, 국가R&D 지출 증가율은 2.86%

■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2014년 2.7%에서 2019년 2.3%로 0.4%p 하락**

- 2014~2019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82%

[표 4] 총재정지출과 국가R&D 및 국가전략기술 재정지출액 비교

(단위 :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2014-2019)
총지출	347,900	372,000	384,900	406,600	434,100	485,100	6.87%
국가R&D	17,800	18,900	19,100	19,500	19,700	20,500	2.86%
(비중)	5.10%	5.10%	5.00%	4.80%	4.50%	4.20%	
국가전략기술 (120개)	9,504	10,307	10,291	10,922	9,900	10,923	2.82%
(비중)	2.70%	2.80%	2.70%	2.70%	2.30%	2.30%	

주 : 재정지출액은 결산기준이며, 2014~2017년의 120개 기술은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을, 2018~2019년의 120개 기술은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학기술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선정 평가 체계 분석」, 2020, p.38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비교하여 제한된 투자 재원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국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조성이 유리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연구개발 규모에 한계가 있으므로 선두기술의 우위를 지키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기술을 확보하는 기술개발의 우선순위와 투자전략이 필요**

〈참고자료〉 2020년 기술수준평가 결과

〈주요국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 변화〉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 수)	기술수준(%)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건설·교통(11)	79.0	84.0	75.4	80.0	89.3	89.1	96.5	97.8	100.0	100.0
재난안전(4)	75.9	80.4	70.0	75.5	90.5	87.8	92.5	92.6	100.0	100.0
우주·항공·해양(7)	65.1	68.4	80.6	81.6	83.1	83.5	93.2	93.3	100.0	100.0
국방(3)	72.5	75.0	80.0	81.7	76.3	77.0	88.3	88.3	100.0	100.0
기계·제조(13)	78.0	80.7	73.7	77.6	90.8	90.3	100.0	100.0	98.6	98.9
소재·나노(5)	78.3	80.8	76.2	79.9	98.0	97.6	91.7	91.9	100.0	100.0
농림수산·식품(9)	79.8	81.4	75.3	78.6	88.9	88.4	99.3	99.7	100.0	100.0
생명·보건의료(21)	75.2	77.9	73.2	78.0	83.8	81.6	91.0	92.2	100.0	100.0
에너지·자원(18)	76.8	80.2	76.8	81.6	90.6	91.0	96.7	98.2	100.0	100.0
환경·기상(12)	76.6	81.1	71.4	75.5	90.1	90.0	98.7	99.2	100.0	100.0
ICT·SW(17)	80.2	83.0	82.0	85.7	84.9	84.3	89.8	90.9	100.0	100.0
전체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주: 기술수준 70% 이하인 경우 노란색, 기술수준 90% 이상인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수준평가결과, 2021.3

Ⅳ. 코로나19의 확산이 인구 이동성에 미친 영향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경수** 경제분석관(6788-4750)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구 이동량 추이[1)]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일평균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49주차('21.1.11.~1.16)에 최저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55주차('21.2.22.~2.27)부터는 전년 동기보다 이동량이 더 많아졌음[2)]

-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41주차 이후 급격히 감소,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49주차에는 2,507만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소치를 기록**

- **코로나19 발생 50주차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2021.2.15.~)와 기온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구 이동량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코로나19 발생 64주차(2021.4.19~4.25) 일평균 인구 이동량은 3,362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 전주차(2021.4.12.~4.18) 대비로는 2.8% 증가**
  - 전년 동기간(2020.4.20~4.26) 국내 코로나19 지역 집단 발생(이동량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되어 있음
  - 전년동기대비 인구 이동량 증가율: 60주차('21.3.22~3.28) 14.4%→61주차('21.3.29~4.4)11.1%→62주차('21.4.5~4.11)13.2%→63주차('21.4.12~4.18) 8.0%

※ Apple의 이동성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인구 이동성(자동차이동 및 도보이동)의 관계를 분석

1)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인구이동량의 추이를 분석한 통계청의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 이동현황(22주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2) 통계청은 SKT 통신사 모바일 가입자 약 2,200만 명의 이동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중과 주말의 인구이동량을 추정하고 발표하고 있음. 본인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타 시군구를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건수로 집계하며, 집계된 이동건수를 전체 인구에 대한 SKT 가입자의 지역/성/연령 비율(가중치)을 적용하여 전체 이동량으로 추정하였음.

[그림 1] 2021년 코로나19 발생 주차별 일평균 인구이동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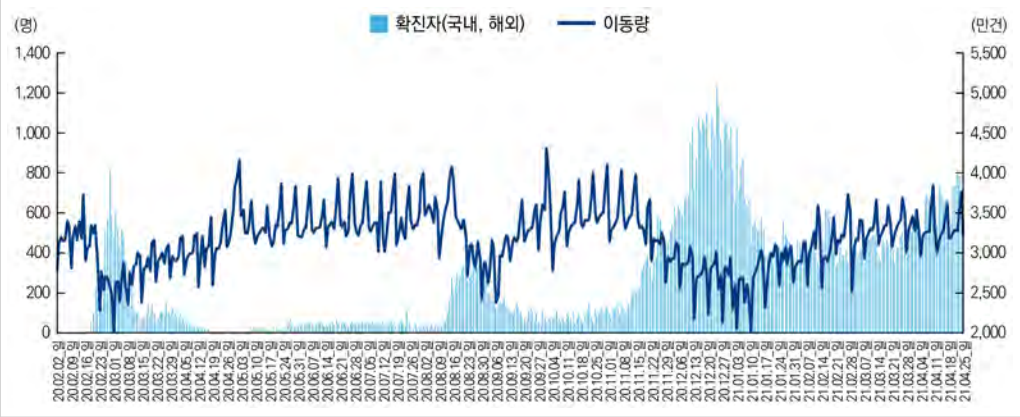
주: 1. 일평균 인구이동량은 1주일간 총 이동량을 7일로 나눈 값임
2.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시기는 2020.1.9.~1.22이며, 2020.2.3~2.9을 코로나19 발생이후 첫 번째로 주차로 설정하며 이후 경과시간을 주차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이동 현황(64주차)」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인구 이동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남

■ **1차 대유행기(2020.2.16~3.8), 2차 대유행기(2020.8.9.~9.13), 3차 대유행기(2020.11.15.~2021.1.24.) 시기에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와 일평균 인구 이동량이 각각 분기별 최대치와 최소치를 기록하였음**

[그림 2]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vs 인구 이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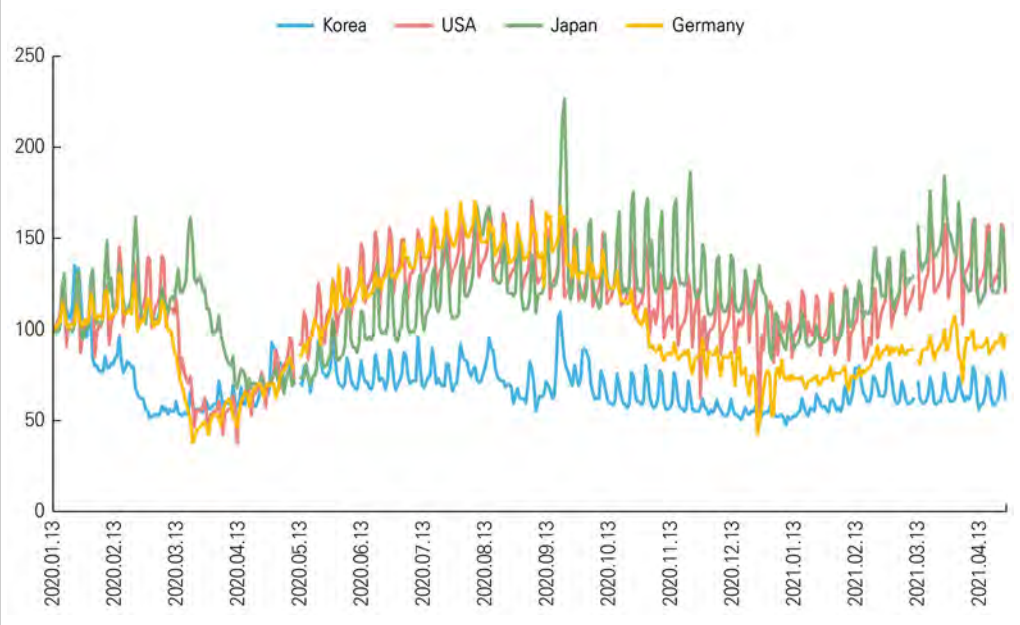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이동 현황(64주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구 이동성 혹은 이동량의 변동폭이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크지 않았음

■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1차 대유행 이후 인구 이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2020년 하반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인구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3] 주요국 Apple 인구이동성 지수 추이(자동차 이동)



주: 2020년 1월 13일의 자동차이동(driving)을 100으로 놓고, 이후의 자동차이동의 변동성을 지수화
자료: Apple 이동성 트렌드 보고서(https://covid19.apple.com/mobility)

■ 반면 우리나라는 1차 대유행 이후, 인구 이동량이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은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작았고, 2020년 하반기 대유행 시기 인구 이동량의 감소폭도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 작았음

■ 최근의 인구 이동량의 증가폭도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코로나19의 확산이 인구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국내외 선행연구는 대체로 코로나19의 확산과 인구 이동성 간에는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음**

- 신윤정 외(2020)[3]는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인구 이동성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
- Caselli et.al(2020)[4]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이동통신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이 젊은층과 여성의 이동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실제로 인구 이동량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났는지를 분석**

2. 코로나19의 확산이 인구 이동성에 미친 영향

1) 분석개요 및 자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인구 이동성(mo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유한시차모형(finite distributed lag model)을 통해 분석

■ **현재 시점의 인구 이동성이 과거의 확진자 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모형화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이 인구 이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

■ **2020.2.15~2021.4.25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인구 이동성에 대한 일별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변동이 인구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한시차모형을 통해서 분석**

- 확진자 수 증가는 코로나19의 확산(혹은 감염병 확산)을 의미, 언론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공표된다는 점에서 시차를 두고 인구의 이동성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됨
- 일별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을 활용
- 인구 이동성 자료는 'Apple Inc'의 이동성 트렌드 보고서의 승용차이동(driving)과 도보이동(walking)의 이동성지수를 활용[5]

3) 신윤정·임지영·전광희·계봉오(2020),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20-10)
4) Caselli et.al(2020), 「Mobility under the COVID-19 Pandemic: Asymmetric Effects across Gender and Age」, IMF working paper.
5) Apple은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동성 추세 리포트(Mobility Trend Report)를 발표하고 있음. 동 리포트에서는 국가·지역, 소지역 및 도시에서 애플지도(Apple Maps)로 요청되는 승용차이동(driving)과 도보이동(walking)의 경로 안내 횟수를 이동성으로 계산하고 기준시점(2020.1.13) 대비 특정시점의 이동성을 지수화하여 이를 이동성 지수로 발표하였음.

■ **시차모형은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의 과거값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y_t = \alpha + \sum_{s=0}^{T} \beta_s x_{t-s} + u_t$**로 모형화할 수 있음**

- y_t는 이동성 지표로서 Apple의 인구 이동성 지수를 사용
- x_t는 t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x_{t-s}는 s기 이전 확진자 수를 의미
- α는 절편, u_t는 오차항을 의미

■ **유한시차모형의 분석은 첫째, 인구 이동성의 최적 시차를 결정하며, 둘째, 각 시차별 회귀분석을 통해 과거값이 현재값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분석함**

- 최적 시차를 결정하기 위해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검정을 실시
- AIC검정을 통해 결정된 시차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시차별 계수값을 추정

■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2020년 12월이 월별 기준으로 인구 이동성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 12월의 평균 자동차 이동성지수는 55.4, 도보 이동성지수는 44.1로 각각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낮았음

[표 1] 주요 변수들의 월별 기술통계

연도	월	확진자 수			자동차 이동성지수			도보 이동성지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2020	2	108.2	0	813	69.5	51.1	83.3	61.7	38.1	79.8
	3	214.1	64	600	56.0	52.5	65.8	40.8	35.6	49.5
	4	32.6	4	101	64.5	55.0	93.0	45.6	35.4	61.1
	5	22.7	2	79	77.8	65.5	94.9	50.6	38.6	62.8
	6	44.4	17	67	73.6	66.8	88.9	48.2	40.5	61.3
	7	48.6	18	113	75.8	66.2	96.1	50.2	39.2	71.9
	8	182.0	20	441	74.6	59.3	95.2	47.1	37.6	59.7
	9	128.8	38	267	74.9	55.2	109.2	53.7	32.1	86.6
	10	87.1	47	155	66.7	57.0	87.5	56.9	48.2	76.5
	11	256.3	75	581	60.6	53.0	77.3	55.3	43.3	80.5
	12	855.7	451	1240	55.4	50.4	61.6	44.1	38.9	51.5
2021	1	563.6	346	1027	55.5	47.5	64.2	46.8	40.3	57.5
	2	409.5	288	621	67.0	54.9	81.7	59.2	48.4	79.2
	3	432.7	344	506	63.4	58.7	76.0	58.7	51.5	71.8
	4	627.2	473	797	65.7	56.1	79.4	57.6	45.4	72.4

주: 이동성지수는 기준일(2020년 1월 31일)의 이동량을 100으로 설정하고 비교일의 이동량을 지수화한 것이며, 평균은 일별 자료에 대한 월평균을 의미함.

자료: Apple 이동성 트렌드 보고서(https://covid19.apple.com/mobility),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분석결과

첫째, 확진자 수와 인구 이동성에 대한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검정결과 확진자 수와 인구 이동성은 4일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AIC검정을 통해 확진자 수와 인구 이동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결정**
- **확진자 수와 자동차이동, 확진자 수와 도보이동 모두 4일의 시차가 최적 시차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확진자 수와 이동성에 대한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검정결과

	lag(시차)	우도비 (Likelihood Ratio)	df(자유도)	p	AIC
확진자 수-자동차이동 (driving)	0		4		21.392
	1	1320	4	0.000	17.7975
	2	41.797	4	0.000	17.705
	3	35.449	4	0.000	17.6298
	4	16.79*	4	0.002	17.6057*
확진자 수-도보이동 (walking)	0		4	0.000	21.4683
	1	1313.7	4	0.000	17.8911
	2	37.151	4	0.000	17.8112
	3	54.162	4	0.000	17.6848
	4	19.224*	4	0.001	17.654*

주: '*'는 최적 시차를 나타내는 우도비(Likelihood Ratio) 통계량(statistic)을 의미
자료: Apple 이동성 트렌드 보고서(https://covid19.apple.com/mobility),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둘째, 회귀분석 결과 확진자 수의 증가는 현재의 인구 이동성을 감소시키며, 4일 전 확진자 수 증가가 현재의 인구 이동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속변수를 자동차이동과 도보이동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확진자 수의 과거 4기까지의 값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
- **확진자 수 과거값과 인구 이동성간의 회귀분석 결과 현재 시점에서 4일 전 확진자 수는 자동차이동과 도보이동 등 인구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4기전 확진자 수의 계수값은 모형 1(자동차이동)은 -0.0199로 유의하며, 모형 2(도보이동)은 -0.0201로 유의

[표 3] 확진자 수와 이동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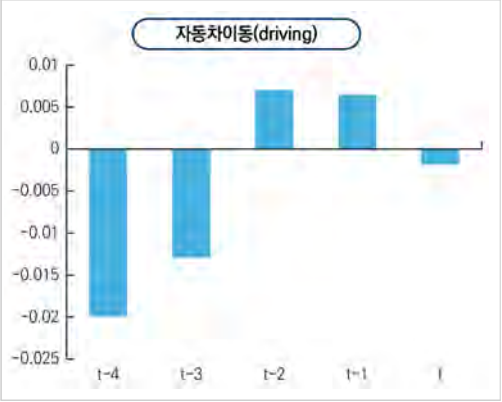
독립변수	종속변수: mobility	
	모형 1(driving)	모형 2(walking)
alpha	72.17*** (0.000)	52.43*** (0.000)
confirmed(t)	-0.00183 (0.774)	0.00411 (0.547)
confirmed(t-1)	0.00649 (0.422)	0.00735 (0.394)
confirmed(t-2)	0.00701 (0.381)	0.0120 (0160)
confirmed(t-3)	-0.0129 (0.113)	-0.00811 (0.349)
confirmed(t-4)	-0.0199*** (0.002)	-0.0201*** (0.004)
관측치	433	433
R2	0.3	0.045
F	37.6	5.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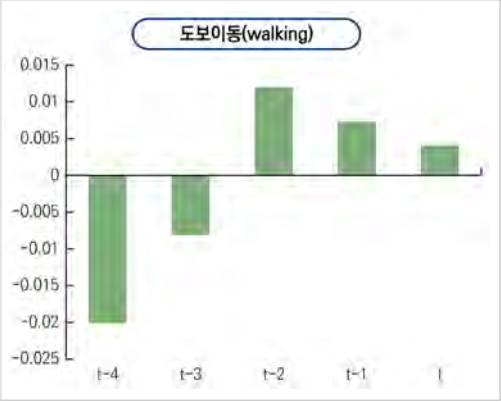
주: ***는 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

자료: Apple 이동성 트렌트 보고서(https://covid19.apple.com/mobility),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일 전부터 현재까지 시차가 증가할수록 인구 이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확진자 수와 이동성에 대한 회귀계수값 추정치의 변화





주: ***는 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

자료: Apple 이동성 트렌트 보고서(https://covid19.apple.com/mobility),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요약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이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인구 이동량은 대략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남

- 1차 대유행기(2020.2.16~3.8), 2차 대유행기(2020.8.9.~9.13), 3차 대유행기(2020.11.15.~2021.1.24.) 시기에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와 일평균 인구 이동량이 각각 분기별 최대치와 최소치를 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수와 이동성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확진자 수의 증가는 이동성(mobility)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일 전의 확진자수 증가가 현재의 인구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4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확진자 수의 증가는 현재의 자동차이동과 도보이동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PART 3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이슈

Ⅰ. 거시경제변수가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양적완화정책을 중심으로 ····· 112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거시경제변수가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양적완화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박선아** 경제분석관(6788-4656)

본고에서는 거시경제변수와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금융변동성지수(VIX지수), 대내외금리차 등으로 기본모형을 선정**
-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 미국의 통화정책기조(정책금리와 양적완화정책을 포함)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은 민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분석 결과 글로벌 경기변동,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대내외금리차는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 글로벌 경기개선은 위험자산투자 선호 경향을 강화시키고 이는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입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VIX지수) 또한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VIX지수와 자본유입 간 음(-)의 계수 값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 **대내외금리차는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보다는 국내자본의 해외투자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입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국내 총자본유입 뿐만 아니라 순자본유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미연준의 자산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증권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촉진하였으며, 반대로 양적완화의 축소는 자본유입이 줄어들거나 자본유출로 나타남**

최근 미국 경제가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현 시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기조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만일 미 연준이 금리인상과 양적완화 축소를 시행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대비로 부정적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필요**

1. 국내 증권시장의 자본유출입 동향

해외자본의 국내 자본유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과 2015년 중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이후 증가

■ **해외로부터의 국내 자본유입[1]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858억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과 2015년 중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2009~2015년 기간 중 감소하고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

-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약 265억달러 유출, 2015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 긴축으로 약 131억달러의 해외자본 유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2020년 연평균 320억달러의 자본 유입
- 2020년에는 2019년(388억달러)에 비해 약 100억달러 증가한 488억달러의 자본이 유입

[그림 1] 해외자본의 국내 자본유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주요거시경제변수와 미국 양적완화정책, 자본유출입 관련 국내외 논문, 한국은행 시계열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1) 한국은행 국제수지표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모든 거래를 계상하며 이 중 금융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가 있음. 직접투자는 직접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기업 간 발생하는 대외거래이고, 증권투자(포트폴리오투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발생하는 주식과 부채성증권(채권) 거래를 의미. 기타투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포함.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은 '부채' 계정으로,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는 '자본' 계정으로 기록됨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는 2012~2017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

■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에서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차감한 증권투자 순유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16년 이후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

-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는 국내외 경제여건, 글로벌 유동성,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는 자본유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전 세계적 경기 회복, 미국의 대규모 양적완화 등에 힘입어 증가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2013년 5월 발표; 2014년 시행)와 금리인상 등 미연준의 통화긴축으로 인해 2015~2016년 중 증권투자 자금이 유출**

- 그러나 2017년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정상화로 기조가 전환되면서 증권투자 자본 유입이 늘어나는 모습

■ **국내자본의 해외 증권투자는 2012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2017년 753.3억달러를 기록**

- 해외 증권투자는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 국내 금리인하 추세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의 필요성 등에 따라 증가
- 해외 증권투자의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강세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

[그림 2] 증권투자 순유입 추이

주: 순자본유입은 총자본유입에서 자본유출을 차감한 것으로 '증권투자(부채)-증권투자(자산)'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므로 미국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

■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은 KOSPI지수와 2000년 1/4분기부터 2020년 4/4분기까지 상관관계가 0.49, 환율과는 -0.43이므로, 자본유입의 변동성이 커지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은 국내외 경제여건, 선진국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음**

-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는 실물·금융부문에서 글로벌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2)]
- 특히,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달러화의 높은 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 금융 주기(global financial cycle)와 미국의 통화정책 간 연계성도 높은 수준[3)]
- 금융위기 이후 미국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는 글로벌 금융여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본 분석에서는 국내외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미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미국 연준은 정책금리 조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정책을 함께 활용
- 본 분석에서는 주로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를 중점으로 분석

2.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경제적 요인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요인으로는 대내외 경제여건, 대내외금리차, 금융시장 변동성(VIX지수) 등이 거론됨

■ **Ahmed and Zlate(2013)[4)]의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국내외 경제성장률이 자본유출입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임**

- 국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투자가치가 높아지므로 해외자본 유입이 확대
-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선호 경향이 강화될 경우 해외자본 유입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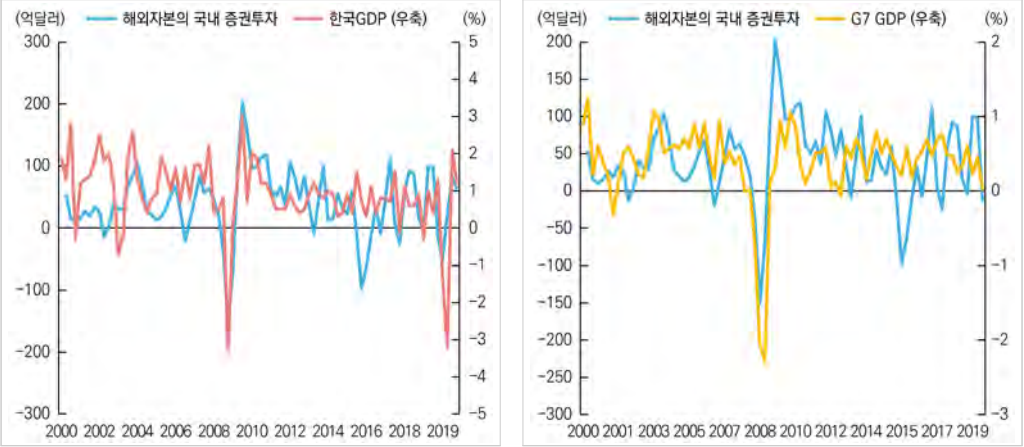
---

2)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 수출입 중 미국 달러화 결제 비중이 83.6%(유로화 6.2%, 엔화 2.9% 등)에 이르는 등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3) 권용오·김미라·소인환(2021),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경제연구 27 (1).

4) Ahmed and Zlate(2013),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A Brave New World?,"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 1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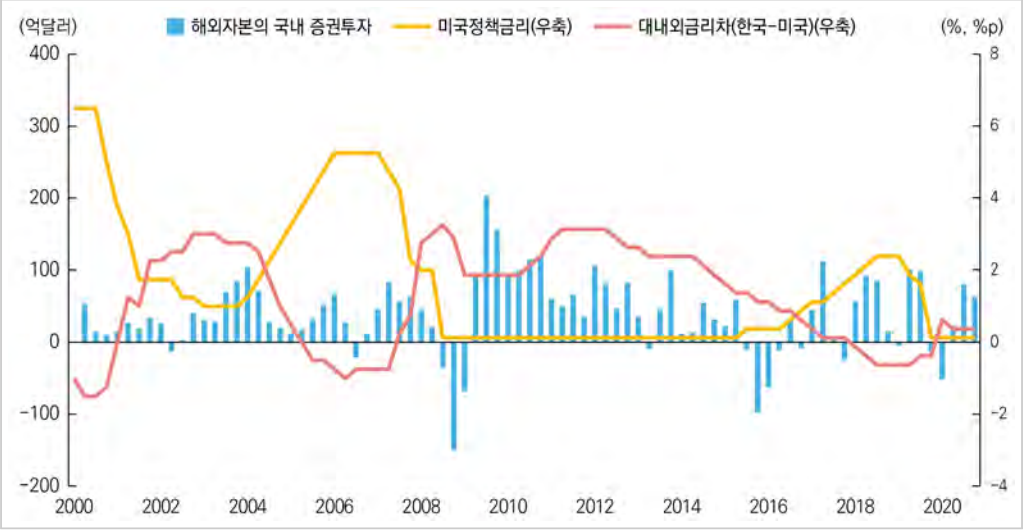
[그림 3]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와 한국, G7의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주: 증권투자는 2분기 이동평균, G7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OECD stats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7년까지는 대내외금리차[5]가 축소되면 자본유입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나타난 2006년과 2018년의 경우에는 자본유입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그림 4]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와 한국,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



주: 증권투자는 2분기 이동평균, 미국의 정책금리는 정책금리 목표범위의 중앙값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5) 본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대내외금리차의 정의와 같이 한국의 기준금리에서 미국의 정책금리 중앙값을 차감한 것을 사용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대표하는 VIX지수[6]는 해외자본의 투자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므로 지수가 상승하면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은 축소**

- VIX지수는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적인 위험회피도(global risk-aversion)를 대변하는 변수로 사용됨[7]

[그림 5]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와 VIX지수 추이

주: 증권투자는 2분기 이동평균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CBOE(시카고옵션거래소)

주요 거시경제변수가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고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영향력을 분석

■ **종속변수는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자본유입)로 명목GDP(달러기준) 대비 비율을 이용**

- 자본유입 자료는 한국은행 금융계정 상 증권투자(부채)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용

■ **독립변수는 선진국(G7)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한국과 미국의 대내외금리차, 글로벌 증권시장 변동성(VIX지수)을 이용**

- 해외와 국내의 경제상황, 대내외금리차, 글로벌 증권시장에서의 변동성을 대변하는 VIX지수를 분석에 이용
- 대내외금리차의 경우 미국이 기준금리를 변동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시차를 두고 금리 변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의 기준금리에서 미국의 정책금리 중앙값을 차감한 것을 변수로 사용

6) VIX(CBOE Volatility Index)지수는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S&P500 지수 옵션의 bid-ask 스프레드의 중앙값을 활용해 산출한 지수로서, VIX 지수의 포인트 각 시점으로부터 향후 30일간 S&P500지수의 예상 변동성 수준을 나타내므로 포인트가 상승하면 향후 S&P500지수의 변동성이 커져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나타날 것을 의미(시카고옵션거래소의 정의 참조)
7) Ahmed and Zlate(2013), 위 논문

- 한편, 본고에서는 선행연구[8]와 같이 환율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환율의 변화가 자본이동을 야기하지만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환율이 변화하므로 역인과관계 가능성을 포함하는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 **분석기간은 2003년 1/4분기부터 2019년 4/4분기[9]로 64개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

- 분석기간 중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4분기~2009년 2/4분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거시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여 금융위기 전후로 우리나라 자본유출입에 나타나는 영향력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10]

■ **단위근 검정 결과, G7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대내외금리차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고, VIX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를 차분하여 사용**

〈BOX1〉 주요 거시경제변수가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요 거시경제변수가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

$$\frac{PI_t}{NGDP_t} = \alpha_0 + GDP_t^{G7} \cdot \alpha_1 + GDP_t^{KOR} \cdot \alpha_2 + \left(R_t^{KOR} - R_t^{US}\right) \cdot \alpha_3 + VIX_t \cdot \alpha_4 + \epsilon_t,$$

- $\frac{PI_t}{NGDP_t}$: 명목GDP(달러기준) 대비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 비율
- GDP_t^{G7}, GDP_t^{KOR}: G7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left(R_t^{KOR} - R_t^{US}\right)$: 미국과 한국의 대내외금리차
- VIX_t : S&P500 지수 옵션의 변동성 1차 차분

8) Ahmed and Zlate(2013), 위 논문; 윤영진·박종욱(2019), "내외금리차와 자본유출입: 이론 및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67 (2); 최우진(2018),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 KDI 경제전망.

9) 분석기간은 자료 확보의 문제로 2003년부터로 설정. 3장의 분석 중 미연준의 자산매입규모 자료는 Federal Reserve St. Louis에서 2003년부터 제공 중임

10) 본 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2020년 1/4분기~4/4분기도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고, 이후 3장에서 더미변수로 통제하여 포함함

G7의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자본유입이 촉진되는 반면, VIX지수가 상승하면 자본유출이 확대

■ **금융위기 이전 G7 국가의 경제성장률, VIX지수는 자본유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금융위기 이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바뀐 반면, 대내외금리차는 금융위기 이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G7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입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에 매우 중요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 개선이 위험자산 투자 선호 경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로의 자본 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VIX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매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확대되면 국내 자본유입에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전후 모두 유의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 추정계수가 하락**

- 이는 대외경제 여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여건의 중요성이 하락한 것으로 보임

■ **대내외금리차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유의적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선행연구[11]에 따르면 국내자본의 해외 증권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순자본유입(유입-유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한 2018년에도 국내 자본유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

[표 1] 주요 거시경제변수가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속변수: 총자본유입	금융위기 이전 (2003.Q1~2008.Q2)	금융위기 이후 (2009.Q3~2019.Q4)
G7 경제성장률	1.190 (1.330)	2.650 ** (1.230)
한국 경제성장률	1.460 ** (0.513)	1.170 ** (0.550)
대내외금리차(한국-미국)	0.489 * (0.251)	0.293 (0.251)
VIX지수	-0.213 (0.128)	-0.259 *** (0.074)
상수항	-0.009 (0.008)	-0.013 (0.009)
R^2	0.568	0.432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윤영진·박종욱(2019), 위 논문.

3.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가. 분석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

■ **앞의 분석 결과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가 국내 자본유출입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말~2010년 국내 급격한 자본유입은 전 세계적 경제 회복에 따른 거시경제적인 영향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함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기인**

- 미국의 경우, 2008년부터 미국 연준의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자산매입(QE1, QE2, QE3)이 실시되자 2~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해외자본의 국내 자본 유입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남
- 반면, 2014년 미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실시되자, 이전과 같은 급격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음

■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

- 미연준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7천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20.3.15.)하였고, 이후 무제한 양적완화로 확대하여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 등 자산매입을 지속

[그림 6]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와 미국 양적완화(자산매입) 추이

주: 증권투자는 명목GDP 대비 비율을 나타냄, QE1, QE2, QE3는 각각 미국의 자산매입(양적완화) 시기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21년 들어 미국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금리 인상,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우리나라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3월 FOMC 회의에서 2021년 미국 경제는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20년 12월 전망치 4.2%에서 2.3%p 상향 조정)**

-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최근 미국 국채수익률이 상승(국채 10년물, 2021년 2월 1.26%→3월 1.61%)하면서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본유출이 우려됨**
  - 미국 경기는 최근 회복 흐름이 보이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남
  -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

- **따라서 이후에서는 자본유출입 분석 모형에 미국의 통화정책 변수를 추가하여 미국의 양적완화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전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기간을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함
  - 미국 통화정책의 기조를 대변하는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 변수를 추가하여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함

나. 미국 양적완화정책의 파급경로

통화정책은 공개시장운영, 기준금리 결정 등의 전통적 통화정책과 국공채, 회사채 등 자산매입을 통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구분

- **전통적 통화정책인 공개시장운영, 정책금리 조정, 지급준비금 조정의 파급경로는 단기금융시장을 통하여 시중 유동성 및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것임**

- **단기금리의 변동은 채권시장에서 만기별 국채 수익률의 조정을 통해 장기 국채 수익률이 변동**

- **전통적 통화정책이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과는 달리,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 정책은 장기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차이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단기금리를 변동시키는 전통적 통화정책의 여력이 크게 축소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통적·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함께 운용하여 물가와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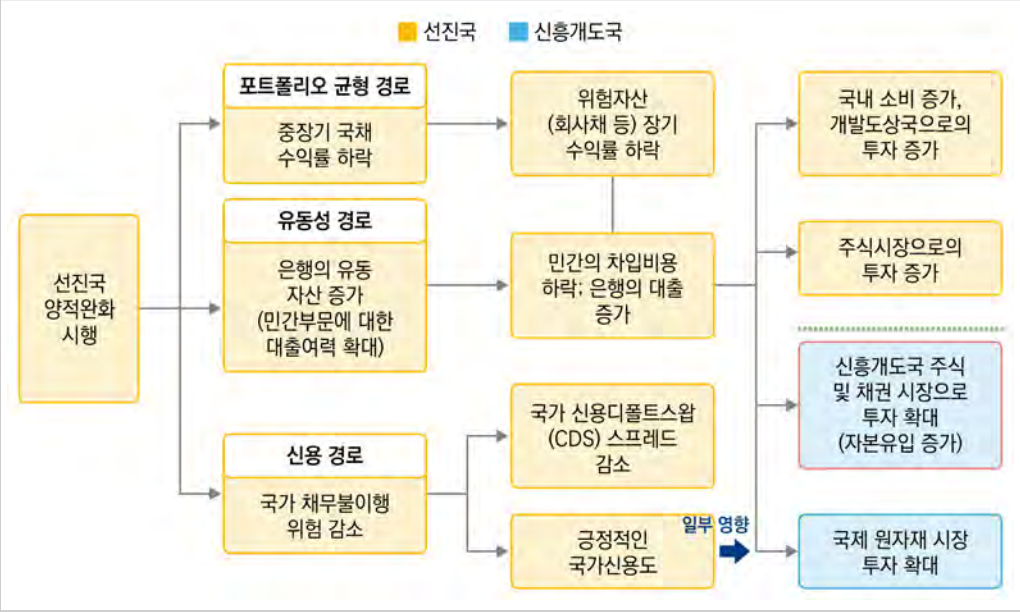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세 가지 파급경로 즉, 포트폴리오 균형 경로, 유동성 경로, 신용 경로를 통해 자국과 신흥개도국 경제에 영향을 미침[12)]

■ 선진국이 중장기 국채 등 자산매입을 통해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국채수익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됨(포트폴리오 균형 경로)

■ 유동성 경로를 통한 영향은 신흥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유동성이 풍부해져 민간의 차입비용이 감소하며, 자국 내 소비·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으로의 투자도 활발해짐

■ 신용경로는 양적완화 시행으로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이 축소되고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도 감소하게 되는 것임

[그림 7]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의 파급 경로



자료: Lim, Mohapatra, and Stocker(201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2) Lim, Mohapatra, and Stocker(2014), "Tinker, taper, QE, bye? The effect of quantitative easing on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6820.

한편, 선진국에서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발표하면 신흥국 자본유입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됨

■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는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감소시키고 환율 평가절하 압력으로 작용**

■ **선진국 중앙은행이 '포워드 가이던스[13)]'를 통해 양적완화 축소를 발표하면 신흥국 자본 유입은 즉각적으로 약 0.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14)]**

- 2013년 5월 미국이 2014년부터 자산매입을 축소할 것을 발표하자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2013.5월부터 2014.5월까지 1년간 약 100억달러의 자본이 신흥국에서 유출됨[15)])

다.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선행연구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과 양적완화정책 등 전통적·비전통적 통화정책 운용 방식이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

■ **Ahmed and Zlate(2013)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대리변수로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을 사용하였는데, 국채수익률 상승은 신흥국 증권시장에서의 자본유출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자산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시에는 신흥국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

■ **Lim, Mohapatra, and Stocker(2014)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신흥국의 GDP 대비 자본유입이 3%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테이퍼링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하면 자본유입이 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

■ **종속변수는 총자본유입과 순자본유입로 설정하고 각각의 모형을 분석함(<BOX2> 참조)**

- 총자본유입은 금융계정상 증권투자(부채)에 해당하는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이며 명목GDP(달러기준)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

13)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미래 통화정책의 방향이나 통화정책 변경 시기를 미리 제시하는 것
14) Lim, Mohapatra, and Stocker(2014), 위 논문.
15) Bloomberg

- 순자본유입은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에서 국내자본의 해외 증권투자를 차감한 뒤 명목GDP(달러 기준)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

■ **독립변수는 G7과 한국의 경제성장률[16], 한·미 대내외금리차(한국-미국), VIX지수로 구성된 거시경제변수와 미국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증감률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의 비교를 위해 미국의 통화정책을 대변(Proxy variable)하는 미국 국채10년물의 수익률(T-bond)을 포함**

-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미국 통화정책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는데,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운용 시 10년물 국채수익률을 고려하기 때문[17]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년 3/4분기~2009년 2/4분기), 코로나19 기간(2020년 1/4분기~4/4분기)을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와의 교차항을 분석에 추가하여 경제위기의 영향을 통제하였음

■ **분석기간은 2003년 1/4분기부터 2020년 4/4분기로 설정**

- 금융위기 기간(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과 코로나19 기간(2020년 1/4분기~4/4분기)을 포함

〈BOX2〉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국 통화정책이 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

- 앞의 〈Box 1〉 식에서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과 미국 연준의 자산매입 증감률을 추가
- 경제위기 기간(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통제

$$y_t = \alpha_0 + \alpha' X_{it} + \beta' US_{it} + \gamma' D_{crisis} \times (X_{it} + US_{it}) + \epsilon_t,$$

- $y_t = \frac{PI_t}{NGDP_t}, \frac{NPI_t}{NGDP_t}$: 명목GDP(달러기준) 대비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 비율, 명목GDP(달러기준)대비 순자본유입(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국내자본의 해외 증권투자) 비율

16) 미국의 경제성장률 대신 G7의 경제성장률을 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률에는 글로벌 경제여건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본 고에서는 선진국 경기여건에 대한 신흥국 자금 유입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임.
17) Ahmed and Zlate(2013), 위 논문.

- $X_{it} = \begin{pmatrix} X_{1it} \\ X_{2it} \\ X_{3it} \\ X_{4it} \end{pmatrix} = \begin{pmatrix} GDP_t^{G7} \\ GDP_t^{KOR} \\ R_t^{KOR} - R_t^{US} \\ VIX_t \end{pmatrix}$: G7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미국과 한국의 대내외금리차, VIX지수

- $US_{it} = US_t^{10}$, US_t^{LSAP}: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 미국 연준의 자산매입 증감률
- D_{crisis}: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3/4분기~2009년 2/4분기)와 코로나19(2020년 1/4~4/4분기) 기간을 1, 그 외 기간을 0으로 표현하는 더미변수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국내 증권시장의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양적완화는 총자본유입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의 국채수익률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이 자산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의 실시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국내 증권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촉진하며, 반대로 양적완화 축소는 국내 자본유입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 국채수익률은 미국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달러화환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위기 시 미국의 양적완화는 위기 외 기간에 비해 국내 자본유입을 더 많이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분모인 명목GDP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

[표 2] 미국 통화정책이 총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2003.Q1~2020.Q4)

종속변수: (총자본유입/GDP)	모형(1)	모형(2)
G7 경제성장률	1.510 * (0.792)	1.980 ** (0.823)
한국 경제성장률	0.893 ** (0.394)	0.823 ** (0.384)
대내외금리차(한국-미국)	0.205 (0.189)	0.210 (0.183)
VIX지수	-0.256 *** (0.069)	-0.234 *** (0.066)
미국 국채수익률(10년)	-0.344 (0.850)	-
양적완화(미연준 자산매입)	-	0.051 * (0.028)
(G7 경제성장률)×(위기더미)	-2.080 * (1.090)	-2.740 ** (1.130)
(한국 경제성장률)×(위기더미)	-0.558 (1.290)	-0.064 (1.260)
(대내외금리차)×(위기더미)	-0.502 (0.465)	-1.020 * (0.538)
(VIX지수)×(위기더미)	0.001 (0.002)	0.001 (0.001)
(미국 국채수익률)×(위기더미)	2.270 (2.780)	-
(미연준 자산매입)×(위기더미)	-	0.129 ** (0.056)
상수항	-0.002 (0.005)	-0.004 (0.006)
R^2	0.494	0.514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양적완화정책은 국내 순자본유입에 양(+)의 영향을 주고, 미국과 한국의 대내외 금리차 또한 순자본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순자본유입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모형의 경우, 총자본유입을 분석한 모형과는 달리 대내외금리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대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 해외자본의 국내 자본유입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임
- 위기 시의 대내외금리차 변수의 유의성이 없는 것은 대내외금리차의 영향력이 위기와 관계없이 순자본유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대내외금리차 단독 변수에 영향력이 기반영됨)

[표 3] 미국 통화정책이 순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2003.Q1~2020.Q4)

종속변수: (순자본유입/GDP)	모형(3)	모형(4)
G7 경제성장률	1.700 * (0.948)	2.610 *** (0.954)
한국 경제성장률	1.340 *** (0.472)	1.210 *** (0.444)
대내외금리차(한국-미국)	1.070 *** (0.226)	1.080 *** (0.212)
VIX지수	-0.223 *** (0.083)	-0.189 ** (0.077)
미국 국채수익률(10년)	-0.367 (1.020)	-
양적완화(미연준 자산매입)	-	0.088 *** (0.033)
(G7 경제성장률)×(위기더미)	-1.620 (1.300)	-3.010 ** (1.310)
(한국 경제성장률)×(위기더미)	-2.820 * (1.540)	-1.560 (1.460)
(대내외금리차)×(위기더미)	-1.270 ** (0.557)	-0.367 (0.623)
(VIX지수)×(위기더미)	0.0001 (0.002)	0.0003 (0.001)
상수항	-0.042 *** (0.007)	-0.047 *** (0.006)
(미국 국채수익률)×(위기더미)	1.620 (3.320)	-
(미연준 자산매입)×(위기더미)	-	0.144 * (0.065)
R^2	0.482	0.533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변화가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개선은 위험자산 투자 선호 경향을 강화하여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VIX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증권시장 자본유입에 주는 영향력이 커졌으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자본유입에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대내외금리차는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보다 국내자본의 해외투자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기간을 통제하고 미국의 통화정책이 총자본유입과 순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적완화정책은 총자본유입과 순자본유입에 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이 자산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의 시행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국내 증권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촉진하며, 반대로 양적완화 축소는 국내 자본유입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경제 여건의 영향이 증대**

■ **게다가,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 순자본유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미국의 금리인상과 양적완화 축소는 우리나라 증권시장 자본유입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부정적 경제충격에 대비할 필요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향후 금리인상, 양적완화 축소 등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경 시 우리나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5월호 | 통권 제17호

발행일 2021년 5월 27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 국회예산정책처, 2021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심사연혁 제공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엄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28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